

연구보고 RRC 2006-10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양 윤 정

공동 연구자 박 소 영

위촉연구조원 변 순 영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개발진

김백균(중앙대)	김정선(홍익대)	김형숙(서울대)
박선희(충남대)	오병욱(동국대)	전성수(부천대)
조은정(목포대)	조중현(개웅중)	

연구 협의진

강재원(충북단재교육연수원)	김대복(경북교육연구원)	김병일(전남대사대부속고)
김정희(경인교대)	나정아(광문고)	노용(이화여대)
박만용(부명중)	박은영(매송중)	서권수(인천광역시교육청)
서순원(태백장성고)	서예식(경기교육정보연구원)	신진환(울산효정고)
안금희(경인교대)	안혜리(국민대)	양민영(삼성고)
유덕철(인천청학공고)	유순식(서천여고)	유종희(서울미고)
윤여준(서산농공업고)	윤철현(퇴원고)	이경란(서울시동부교육청)
이달훈(청명고)	이석원(용산고)	이수경(동국대)
이옥주(충남교육청)	이현숙(전남교육청)	전상보(목포제일여고)
조성근(극동대)	홍기태(부평여고)	홍순열(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가나다 순)

머 리 말

최근 우리 나라 사회는 정보화·세계화의 방향으로 급격하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교육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질 높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좀더 현장 적합성 높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미술과 선택 과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선 방안은 학교 미술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개발진, 협의진, 협력진 선생님들과 설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신 전국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연구를 훌륭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2006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연구 요약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허용하여 교육 내용의 개인적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와 내용들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미술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쟁점별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국 단위의 현장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고서 각장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의 고등학교 미술 과목의 구성 체제와 운영 방식, 개설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이번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미술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과목 명을 바꾸는데 참고할 내용으로는 세부 실기 과목 명 외에도 ‘Art Foundations’, ‘Studio Arts’, ‘Media Arts’, ‘조형 예술’, ‘예술 생활’ 등이 있었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는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을 미국, 영국, 대만의 경우처럼 이전의 10학년까지의 성취 기준 또는 성취 수준, 내용 기준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수준에서 출발점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외국의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성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하나는 일반 교육 차원에서 좀더 전문 교육 차원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미술에서의 교양이나 전공의 소양에 요구되는 과목들을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 선정의 기준에서 반드시 한 가지 목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의 내용 구성 및 제시 방식에 있어 학습 주제나 교재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반계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문서의 편성·운영 지침을 분석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서 ‘선택’의 의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과목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선택 과목별 적절성에 대한 현장 교사, 학생,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종결’과 ‘준비’의 두 가지 다른 목적을 반영하여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추어, 미술과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미술과 생활’을, 심화 선택 과목으로 ‘미술 이론’, ‘미술 실기’를 개설하였다. 이 가운데 미술과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편성·운영은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편성·운영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 문서와 예술계 과목인 ‘미술 이론’, ‘소묘’ 과목의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각 선택 과목의 개설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예술계 전문 과목의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제시되어 있었다.

미술과 선택 과목들이 학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이 설치된 경우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술과 선택 과목은 동일 교과군에서 선택이 저조하거나, 심화 과목을 가르칠 교사, 수업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었다. 현행 과목별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서 교사, 학생, 전문가들은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과 생활’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수업과 차별화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술계열 전문 과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등 심화 선택 과목 교육과정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외에, 총론 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 개설 방식의 일원화와 국가 수준에서 예술 체육 과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 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을 중심으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개선의 기본 방향은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운 미술 교과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구성함으로써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셋째, 새로운 미술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미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과 선택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선택 과목 구성 체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미술과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미술을 심화하며, 교양 증진, 실생활 적합성 강조, 전공 심화를 목적으로 한다. 과목 명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각각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수정하였으며, 선택 과목간 수준과 범위는 유사하게 맞추어 정해진 순서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집중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미술 창작’을 과정 필수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두 과목은 순서 없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선택 과목과 공통 교과와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술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각각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과목을 개설하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통해 구현되고 교사들의 수업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과서에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방향 제시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에 기초하면서 이번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과목별 교육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내용 선정과 조직, 외형 체제 등을 탐색하여 편찬 및 심의 방향을 수정,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에서는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에서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단기, 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차 례

머 리 말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II.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동향 분석	10
1. 미국	10
2. 캐나다	16
3. 영국	19
4. 프랑스	22
5. 일본	23
6. 대만	27
7. 요약 및 시사점	32
III.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및 실태 분석	37
1.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37
2.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태	52
3. 요약 및 시사점	81

IV.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86
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86
2.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90
V.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104
1. 제7차 미술과 생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분석	104
2.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요구 분석	113
3.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120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32
1. 요약	132
2. 정책 제언	134
참고문헌	140
Abstract	151
부록	155
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설문지	155
2.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연구 협의회 회의록	181
3. 제7차 미술과 생활 교과서 분석표	204

표 차례

〈표 I-1〉 설문 대상별 배경 변인	6
〈표 I-2〉 설문지 회수율	6
〈표 I-3〉 미술 교사용과 전문가용 설문 내용	7
〈표 I-4〉 학생용 설문 내용	8
〈표 II-1〉 미국의 미술 국가 성취 기준(9-12학년)	11
〈표 II-2〉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각 및 실행 예술’ 교육과정(9-12학년)	12
〈표 II-3〉 미국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13
〈표 II-4〉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선택 과목(11-12학년)	17
〈표 II-5〉 캐나다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17
〈표 II-6〉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선택 과목(11-12학년)	19
〈표 II-7〉 ‘미술과 디자인’ 교육과정 내용	20
〈표 II-8〉 캐나다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20
〈표 II-9〉 ‘조형 예술’, ‘예술사’ 내용 구성	23
〈표 II-10〉 일본의 ‘미술 I’, ‘미술 II’, ‘미술 III’ 과목의 목표 및 내용	24
〈표 II-11〉 일본의 ‘공예 I’, ‘공예 II’, ‘공예 III’ 과목의 목표 및 내용	25
〈표 II-12〉 일본의 ‘서도 I’, ‘서도 II’, ‘서도 III’ 과목의 목표 및 내용	26
〈표 II-13〉 대만의 예술과 학기별 필수, 선택 과목 이수	27
〈표 II-14〉 대만의 필수 과목 ‘미술’의 목표 및 내용	28
〈표 II-15〉 대만의 선택 과목 ‘미술’의 목표 및 내용	30
〈표 II-16〉 대만의 선택 과목 ‘예술 생활’의 목표 및 내용	31
〈표 II-17〉 다른 나라의 미술 관련 선택 과목 수	34
〈표 II-18〉 다른 나라의 미술 관련 선택 과목 명	35
〈표 III-1〉 제7차 고등학교 미술 교과 및 선택 과목 구성 체제	38
〈표 III-2〉 제6차 고등학교 미술 교과 과목 구성 체제	39
〈표 III-3〉 전국의 예체능 집중 과정 설치 학교수(2005. 3. 1현재)	53

〈표Ⅲ-4〉 예술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해 설치된 집중 과정(학교 소재지별)	53
〈표Ⅲ-5〉 미술과 생활 과목 개설 여부	54
〈표Ⅲ-6〉 미술과 생활 과목 개설 학기와 단위 수	54
〈표Ⅲ-7〉 미술과 생활 과목 선택 이유(학생)	55
〈표Ⅲ-8〉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학생)	55
〈표Ⅲ-9〉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개설 여부	56
〈표Ⅲ-10〉 미술 이론 과목 이수 시기와 단위	56
〈표Ⅲ-11〉 미술 실기 과목 이수 시기와 단위	57
〈표Ⅲ-12〉 미술 이론 개설 과목 명(복수응답)	58
〈표Ⅲ-13〉 미술 실기 개설 과목 명(복수응답)	58
〈표Ⅲ-14〉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선택 이유(학생)	59
〈표Ⅲ-15〉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선택하지 않는 이유(학생)	59
〈표Ⅲ-16〉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적절성	60
〈표Ⅲ-17〉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개선 방향	61
〈표Ⅲ-18〉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과 목표의 적절성	62
〈표Ⅲ-19〉 미술과 생활 과목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복수 응답)	62
〈표Ⅲ-20〉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의 필요성	63
〈표Ⅲ-21〉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 수준의 적절성	64
〈표Ⅲ-22〉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 수준 및 학습량의 적절성(학생)	65
〈표Ⅲ-23〉 내용 연계성(학생)	65
〈표Ⅲ-24〉 미술과 생활 과목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66
〈표Ⅲ-25〉 미술과 생활 과목 평가의 적절성	67
〈표Ⅲ-26〉 미술과 생활 과목 교수·학습 방법 제시 방식	68
〈표Ⅲ-27〉 미술과 생활 과목 평가 제시 방식	68
〈표Ⅲ-28〉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적절성	69
〈표Ⅲ-29〉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의 개선 방향	70
〈표Ⅲ-30〉 미술 이론 전문 과목의 내용 영역별 필요성	72
〈표Ⅲ-31〉 미술 실기 전문 과목의 내용 영역별 필요성	73

<표Ⅲ-32>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내용 수준 및 학습량의 적절성(학생)	73
<표Ⅲ-33>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74
<표Ⅲ-34>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75
<표Ⅲ-35>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운영의 정상화 방안	75
<표Ⅲ-36> 선택 과목 체제의 일원화	77
<표Ⅲ-37> 선택 과목 성격의 개선 방향	77
<표Ⅲ-38> 미술과 선택 과목 일원화시 적절한 성격(우선 순위)	78
<표Ⅲ-39> 미술과 선택 과목 일원화시 적절한 과목 명(복수 응답)	79
<표Ⅲ-40> 국가 수준의 예술 체육 계열 교육과정 설치	80
<표Ⅲ-41> 국가 수준의 예술 체육 계열 교육과정 설치(학생 계열별)	80
<표Ⅳ-1>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쟁점	86
<표Ⅳ-2> 미술과 삶 과목의 내용 체계	97
<표Ⅳ-3>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	100
<표Ⅳ-4>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	103
<표Ⅴ-1> 수업시 미술과 생활 교과서 활용도(교사 경력별)	114
<표Ⅴ-2>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서 영역(교사 경력별)	114
<표Ⅴ-3>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115
<표Ⅴ-4>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내용 수준	115
<표Ⅴ-5> 향후 미술과 생활 교과서 개발 시 개선 사항(복수 응답)	116
<표Ⅴ-6>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117
<표Ⅴ-7> 미술 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복수 응답)	118
<표Ⅴ-8> 미술 실기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복수 응답)	118

그림 차례

[그림Ⅳ-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의 구조도	88
[그림Ⅳ-2]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성격	91
[그림Ⅳ-3] 미술과 선택 과목 명 개선안	92
[그림Ⅳ-4] 미술과 선택 과목과 공통 교과와 내용 연계성	93
[그림Ⅳ-5] 미술과 과목 이수 체계	93
[그림Ⅳ-6] 집중 과정 설치시 미술과 과목 이수 체계	94
[그림Ⅳ-7] 미술과 생활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95
[그림Ⅳ-8] 미술 이론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98
[그림Ⅳ-9] 미술 실기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101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부분·수시 개정 정책에 따라 2005년도에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개발될 것이다. 2005년도에 수행한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고,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이 학습자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공교육으로서 학교 미술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미술 교육의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중학교에서는 미술이 생활 세계와 맺는 관련성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확대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미술 문화 활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에 대한 건전한 미의식과 문화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마치고, 2학년부턴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두 가지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도에 개발된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건전한 미의식과 문화적 안목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미술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 적성, 소질을 고려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술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연장선 뿐 아니라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박순경 외(2005)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태 분석 결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 과목의 이수 경향을 보면, 학습의 용이성과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자의 진로, 적성,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규정에서 ‘진로, 적성, 소질’의 의미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본다면 결국 대학 입학과 관련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 입학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호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은 미술과의 일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이나, 심화 선택 과목인 ‘미술 이론’, ‘미술 실기’가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운영되기 어렵게 한다. 대학 입학 시험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원인 외에도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선택률이 저조한 원인을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술과 선택 과목들의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서 선택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교육적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교육과정인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들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학교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미술 교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미술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미술 교육의 ‘문화적 차원’을 좀더 학교 미술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난관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기술만으로는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극복의 길은 문화에 있다는 주장처럼, 세계 시장은 이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별

되는 서비스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상상력과 개성을 계발해야 하는 학교 교육은 그 창구 역할에 서야 할 것이다(강신임, 1999). 이제 문화는 여유롭게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시대는 가고 정체성의 확립이나 국가 경쟁력의 확보, 무한 경쟁의 가치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미술 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교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좀더 전인 교육 차원에서 미술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사회에서 문화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에서 미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학교 미술 교육에서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예술과 문화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미술과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의 미적 안목과 미의식에 대한 교육을 계승하여 문화 예술의 시대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중심으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계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교육과정을 진단하고, 국가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문화적 역량을 준비시키면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소질 등을 고려한 미술과의 선택 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을 모색한다.

넷째, 미술과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를 학교 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지침 및 검정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여 장차 개선될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구 내용

가.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동향 분석

◦주요 특징 분석

- 개설된 과목 명 및 과목 수 분석
- 과목별 지도 내용 분석
- 시사점 도출

나.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과목별 내용 분석

-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탐색
-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구성 체제 분석
-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내용 분석
- 시사점 도출

다.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실태 및 요구 분석

-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 분석
-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개선 요구 파악
- 시사점 도출

라.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 개선의 배경 탐색
- 쟁점 도출의 구조도 구안
- 개선의 기본 방향 설정
-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 마련

마.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 제7차 미술과 생활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분석

-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요구 분석
-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3.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문서 분석
-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관련 자료 분석
-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 관련 내용 영역 문헌 분석

나. 설문 조사

- 대상 : 전국의 고등학교 200개교의 미술 교사 1명, 3학년 학생 4명씩, 미술 교과교육전문가(교과 교육, 내용학) 50명
- 내용 :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 시기 : 2006. 4 ~ 5.

설문 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 200개교를 표집하였다. 그중 100개교는 예체능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 나머지 100개교는 집중 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선 표집하였다. 설문 대상별 배경 변인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1〉 설문 대상별 배경 변인 N(%)

설문대상	배경변인		응답자수(%)	전체
교사	성별	남	79(58.5)	135(100.0)
		여	56(41.5)	
	경력	3년 이하	10(7.4)	136(100.0)
		4-10년	18(13.2)	
		11-20년	60(44.1)	
		21년 이상	48(35.3)	
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44(32.6)	135(100.0)	
	광역시	11(8.1)		
	중소도시	49(36.3)		
	읍면지역	31(23.0)		
학생	성별	남	144(27.7)	520(100.0)
		여	376(72.3)	
	진학 예정 계열별	인문	121(23.4)	518(100.0)
		자연	29(5.6)	
		미술	314(60.6)	
		미술 외 예체능	44(8.5)	
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166(33.2)	500(100.0)	
	광역시	40(8.0)		
	중소도시	189(37.8)		
	읍면지역	105(21.0)		
전문가	성별	남	23(71.9)	32(100.0)
		여	9(28.1)	
	직급	대학교원	13(40.6)	
		교육전문직	12(37.5)	
		중등교원	7(21.9)	
	교수/강사 소속	교육대학	2(16.7)	
사범대학		7(58.3)		
교과서 개발참여	비사범대학	3(25.0)		
	참여	19(59.4)		
	비참여	13(40.6)		

설문지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수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I-2〉 설문지 회수율 N(%)

조사대상	조사인원	회수 인원	총 회수율
교사	200명	136명	68%
학생	800명	524명	66%
전문가	50명	32명	64%

미술 교사와 전문가용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 미술 교사용과 전문가용 설문 내용

영역	중영역	주요 설문 내용	
		교사	전문가
배경변인	선생님	1. 성별	2. 직급/소속
		2. 경력	3. 선택과목 개발 경험
	학교	3. 학교 소재지	*
		4. 집중과정 설치 여부, 설치 시 과정 명	*
		5. 선택과목 개설 여부, 개설 시 단위 수와 과목 명	*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제	일반 선택과목	1. 일반선택과목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 적절성,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 방향	
	심화 선택과목	2. 심화선택과목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 적절성,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 방향	
	개선 방안	3-1. 일원화 시 적절한 성격	
		3-2. 일원화 시 적절한 과목 명	
4. 예술체육계열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의견			
선택과목 별 교육과정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	5. 미술과 생활 성격의 적절성	
		6. 미술과 생활 목표의 적절성	
		7. 미술과 생활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	
		8. 미술과 생활 내용의 수준, 필요성	
		9. 미술과 생활 내용으로 수정, 추가해야 할 것	
		10. 미술과 생활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11. 미술과 생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방식	
		12. 미술과 생활 평가의 적절성	
		13. 미술과 생활 평가의 제시 방식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육과정	14. 미술 이론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14-1. 미술 이론의 적절한 내용		
	15. 미술 실기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15-1. 미술 실기의 적절한 내용		

교과서	미술과 생활 교과서	16.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수업 활용 정도	*
		16-1. 가장 많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내용 영역	*
		17-1.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17-2.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내용 수준	
	18. 미술과 생활 교과서 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것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19. 미술 이론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19-1. 미술 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20.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20-1. 미술 실기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전체		21.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반에 관한 자유 의견	

*의 내용은 전문가용 설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학생용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 -4> 학생용 설문 내용

영역	주요 설문 내용
배경 변인	1. 성별 2. 진학 예정 계열 3. 학교 소재지
미술과 생활 과목 이수 실태	1. 미술과 생활 이수 여부 1-1. 미술 수업과 차이점 1-2. 미술과 생활 과목 선택이유 1-3.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수준과 학습량 1-4. 미술과 생활 과목 선택하지 않은 이유
미술 이론 과목 이수 실태	2. 미술이론 이수 여부 2-1. 과목 명, 학기, 수업시간 2-2. 구체적 내용 2-3. 선택 이유 2-4. 내용 수준과 학습량 2-5. 교과서 필요성 2-6. 선택하지 않은 이유
미술 실기 과목 이수 실태	3. 미술실기 이수 여부 3-1. 과목 명, 학기, 수업시간 3-2. 구체적 내용 3-3. 선택 이유 3-4. 내용 수준과 학습량 3-5. 교과서 필요성 3-6. 선택하지 않은 이유
개선 요구	4. 미술이론, 미술실기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5. 예술체육계열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의견
전 체	6.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반에 관한 자유 의견

다. 전문가 협의회

◦대상 : 전국의 고등학교 미술 교사,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교육청 전문직,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미술교육전문가

◦내용

-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설정
-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내용 선정
- 미술과 선택 과목 선정 및 구성 방향 설정
-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 검토

◦시기 : 2006. 4 ~ 10.

II.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동향 분석

이 장에서는 외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대만)의 국가 수준 또는 주 수준에서의 고등학교 급의 미술 교과 관련 교육과정 문서와 학교 수준에서의 고등학교 미술 관련 과목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및 내용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 미국

가. 주요 특징

미국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에 의해 1994년 개발된 미국의 국가 예술 교육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 Education)에 의하면 3개의 학년 군별로 5개의 내용 기준별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NAEA에서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K-8학년까지는 성취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9-12학년은 숙련 과정(Proficient students)과 고급 과정(Advanced students)으로 구분하여 성취기준(<표 II-1> 참조)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술을 선택할 경우 교수·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내용 기준에 근거하여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과 이수 학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고등학교 3년 간 국어, 사회, 2년 간 수학, 과학, 체육, 1년 간 예술 또는 외국어 등 모두 6개 교과 영역을 필수로 부과하고 있다. 미술 교과는 주 수준에서 '시각 및 실행 예술(Visual & Performing Arts)' 교육과정 내에 무용, 음악, 연극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 9-12학년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아니고 미술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숙련 과정(Proficient students)과 고급 과정(Advanced students)으로 구분하여 성취해야 할 기준(<표II-1> 참조)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II-1> 미국의 미술 국가 성취 기준(9-12학년)

내용 기준	성취 기준 (9-12학년)	
재료, 기법,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P	a. 자신의 의도가 작품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확신과 감수성을 가지고 재료, 기법, 과정을 적용한다. b. 사용하는 재료, 기법, 과정에 아이디어가 연관되게 전달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술품을 구상하고 만든다.
	A	c. 적어도 하나의 시각예술매체의 효과에 대해 상위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d.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지적 기술을 사용하여 시각예술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제안하고 정의하며 해결한다.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P	a. 상업적, 개인적, 자치제의 미술을 완성하기 위한 특성과 구조에 관한 판단을 하고 항변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b. 조직적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미술품의 효과를 평가한다. c. 조직적 원리와 기능을 사용하여 특별한 미술 문제를 푸는 미술품을 만든다.
	A	d. 미술 작품의 조직적 원리와 기능의 사용에 대한 견해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e. 구조의 선택과 예술의 기능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각예술의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내린다.
주제, 상징, 아이디어의 범위를 선택, 평가하기	P	a. 미술작품들이 시각, 공간, 순간, 기능적으로 다르며 역사, 문화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b. 자신의 미술작품에서 주제, 상징, 아이디어를 응용하고 얻은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풀어간다.
	A	c. 특정 이미지와 아이디어의 기원에 대해 묘사하고 그것이 자신의 미술작품과 다른 학생의 미술작품에서 가치를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d. 내용 출처의 타당성과 자신의 미술작품과 다른 학생의 중요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와 주제, 상징의 방식을 변호하고 평가한다.

역사, 문화와 연관시켜 미술 이해하기	P	a. 미술품의 특징과 목적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차별화한다. b. 다양한 문화, 시대, 장소에서 특별한 미술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의미를 조사한다. c. 분석으로 만들어진 결론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결론을 자신의 미술 작업에 불어넣음으로 미술품과 역사, 미학, 문화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A	d. 비평가, 역사가, 미학자,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미술작품을 형태, 맥락, 목적들 간의 관계로 해석하고 분석한다. e. 시간과 문화/민족 그룹들간의 시각예술의 일반적 특징을 명백히 분석하여 분석, 평가, 의미의 해석을 발전시킨다.
자신과 타인의 작품 간에 특징과 장점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P	a. 미술품 창작 의도를 인식하고 함축된 다양한 목적을 밝히고 분석된 특정 한 작품의 목적을 정당화한다. b. 특정 작품제작과 작품의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술품 의 의미를 서술한다. c. 미술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해석 위에서 분석한다.
	A	d. 시각예술 작품에 대한 반응을 다양한 기법과 관련시켜서 의미, 아이디어, 태도, 관점, 의도에 대해 소통한다.
미술과 다른 학문 통합하기	P	a. 미술품과 창작과 분석에 사용된 다른 미술 분야의 재료, 기술, 매체, 과정 을 서로 비교한다. b.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양식의 미술의 특징을 인문학과 과학에서의 아이디 어, 쟁점, 주제와 비교한다.
	A	c. 시각 예술과 인문학, 혹은 과학의 기법들과 창조적, 분석적 원리를 종합한다.

* proficient students(성취 기준 상단) / Advanced students(성취 기준 하단)

〈표Ⅱ-2〉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시각 및 실행 예술’ 교육과정(9-12학년)

‘시각 및 실행 예술’(Visual & Performing Arts)

- level :
 - 9-12학년용: ‘숙련’(proficient), ‘고급’(advanced)의 2 단계
- 내용 요소
 - ‘미적 지각’(Artistic Perception)
 - ‘창조적 표현’(Creative Expression)
 - ‘역사적-문화적 맥락’(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 ‘미학적 가치’(Aesthetic Valuing)
 - ‘연계, 관계, 적용’(Connections, Relationships, Applications)

나. 과목 명 및 과목 수, 지도 내용

국가 수준과 주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시각 미술(또는 ‘시각 및 실행 예술’)이라는 과목 명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실제 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과목 명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선택 과목 명과 세부적인 전공 과목 명, 과목 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설된 과목 목록을 볼 때, 대체로 지도 내용은 미술의 종류별 실기 과목임을 알 수 있다.

〈표II-3〉 미국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학교 명	내 용		
Groton School	<p>1. 특징: 1884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기숙사). 매사추세츠 그로튼 소재. (중학교 성적 5% 이내의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함) (http://www.groton.org)</p> <p>2. Studio Art가 속한 계열 및 계열 소속 전공들: Arts (Studio Art, Music, Woodworking, Photography)</p> <p>3. Studio Art에서 제공하는 전공 과목 목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 Form Visual Studies ■ Portfolio Preparation ■ Ceramics ■ Acrylic Painting ■ Multi-Media Workshop ■ Printmaking ■ Photo 2 ■ Introduction to Digital Photo Imaging ■ Painting Outside the Lines ■ Art Without Boundaries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I Form Visual Studies ■ Visual Studies Workshop ■ Drawing Workshop ■ Sculpture ■ Video Tutorial ■ Photo 1 ■ Photo 3 ■ Mixed -Media Painting </td> </tr> </table> <p>4. 과목 수 : 18개</p> <p>5. Studio Art 과목들은 4개의 계열별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위 과목들은 계열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는 과목들을 중복 없이 나열한 것임). - 각 과목들은 학년 및 단계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과목 명에 1, 2, 3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수 과목을 수강하도록 명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 Form Visual Studies ■ Portfolio Preparation ■ Ceramics ■ Acrylic Painting ■ Multi-Media Workshop ■ Printmaking ■ Photo 2 ■ Introduction to Digital Photo Imaging ■ Painting Outside the Lines ■ Art Without Bound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I Form Visual Studies ■ Visual Studies Workshop ■ Drawing Workshop ■ Sculpture ■ Video Tutorial ■ Photo 1 ■ Photo 3 ■ Mixed -Media Pai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 Form Visual Studies ■ Portfolio Preparation ■ Ceramics ■ Acrylic Painting ■ Multi-Media Workshop ■ Printmaking ■ Photo 2 ■ Introduction to Digital Photo Imaging ■ Painting Outside the Lines ■ Art Without Bound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I Form Visual Studies ■ Visual Studies Workshop ■ Drawing Workshop ■ Sculpture ■ Video Tutorial ■ Photo 1 ■ Photo 3 ■ Mixed -Media Painting 		

<p>Philips Exeter Academ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징: 1781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기숙사). 뉴 햄프셔 엑서터 소재. (http://www.exeter.edu) 2. Studio Art가 속한 계열: Art로 독립되어 있으며, 세부 전공으로 Studio Art, Art History로 구분되어 있다. 3. Studio Art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 목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200: Introduction to Studio Art ▪ ART201: Architecture I ▪ ART202: Ceramics I ▪ ART203: Drawing I: Working from Life ▪ ART204: Painting I: Color & Design ▪ ART205: Photography I: Darkroom to Digital ▪ ART206: Printmaking: Monotypes to Multiples ▪ ART207: Sculpture I ▪ ART301: Architecture II ▪ ART302: Ceramics II ▪ ART303: Drawing II: Advanced Projects ▪ ART304: Painting II: Advanced Study of Color ▪ ART305: Photography II: Advanced Study ▪ ART307: Sculpture II ▪ ART444: Advanced Studio Art ▪ ART230: Impressionism and the Avant Garde ▪ ART300: Art and Ideas: A History of Art ▪ ART330: Studies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 ART410: Challenging Tradition: 20th-Century Art and Beyond </div> 4. 과목 수: 19개 5. 학기별로 과목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과목의 경우 상급반성적우 수생 등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둔다.
<p>Milton Academ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징: 1798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기숙사). 매사추세츠 밀턴 소재. (http://www.milton.edu) 2. Visual Arts가 속한 계열: Arts (Music, Performing Arts, Visual Arts) 3. Visual Arts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 목록: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70 474 502 604">A</td> <td data-bbox="518 474 1233 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otography ▪ Studio art (A.P.: Advance Placement) ▪ Wood studio ▪ Film and Video Production: Moving Image </td> </tr> <tr> <td data-bbox="470 609 502 936">B</td> <td data-bbox="518 609 1233 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io Art (A.P.) ▪ History of Art (A.P.) ▪ Advanced drawing ▪ Advanced Photography ▪ Sculpture ▪ Advanced Independent Art ▪ Painting ▪ Ceramics ▪ Architecture ▪ Advanced Art: Word & Image </td> </tr> </table> <p>4. 과목 수: 14개</p> <p>5. A의 과목 중 1과목은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B군의 과목들은 A군에서 1과목 이수 후 수강할 수 있는 고급 선택 과목들이다.</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otography ▪ Studio art (A.P.: Advance Placement) ▪ Wood studio ▪ Film and Video Production: Moving Image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io Art (A.P.) ▪ History of Art (A.P.) ▪ Advanced drawing ▪ Advanced Photography ▪ Sculpture ▪ Advanced Independent Art ▪ Painting ▪ Ceramics ▪ Architecture ▪ Advanced Art: Word & Image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otography ▪ Studio art (A.P.: Advance Placement) ▪ Wood studio ▪ Film and Video Production: Moving Image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io Art (A.P.) ▪ History of Art (A.P.) ▪ Advanced drawing ▪ Advanced Photography ▪ Sculpture ▪ Advanced Independent Art ▪ Painting ▪ Ceramics ▪ Architecture ▪ Advanced Art: Word & Image 																		
Cranbrook Schools	<p>1. 특징: 1927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기숙사). 미시간 블룸필드 소재. 명문인 Cranbrook Academy of Art와 연계하여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나, 예술 고등학교는 아님. (schools.cranbrook.edu/)</p> <p>2. Fine Arts가 속한 계열: The Arts (Fine Arts, Performing Arts)</p> <p>3. Fine Arts에서 제공하는 전공 과목 목록:</p> <table border="1"> <tr> <td>▪ Basic Design</td> <td></td> </tr> <tr> <td>▪ Painting</td> <td></td> </tr> <tr> <td>▪ Photography</td> <td></td> </tr> <tr> <td>▪ Beginning Ceramics</td> <td>▪ Ceramics Studio Honors</td> </tr> <tr> <td>▪ Continuing Ceramics</td> <td>▪ Drawing</td> </tr> <tr> <td>▪ Drawing Studio Honors</td> <td></td> </tr> <tr> <td>▪ Sculpture</td> <td>▪ Sculpture Studio Honors</td> </tr> <tr> <td>▪ Weaving/Fibers</td> <td>▪ Weaving/Fibers Studio Honors</td> </tr> <tr> <td>▪ Metal/Jewelry Studio Honors</td> <td>▪ Metalsmithing/Creative Jewelry</td> </tr> </table> <p>4. 과목 수: 14개</p> <p>5. Fine Arts에 Design이 속해 있음(Drawing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임) Drawing 혹은 Design 과목은 강하게 추천하는 과목이며,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임. 모든 Fine Arts 과목들은 무제한으로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p>	▪ Basic Design		▪ Painting		▪ Photography		▪ Beginning Ceramics	▪ Ceramics Studio Honors	▪ Continuing Ceramics	▪ Drawing	▪ Drawing Studio Honors		▪ Sculpture	▪ Sculpture Studio Honors	▪ Weaving/Fibers	▪ Weaving/Fibers Studio Honors	▪ Metal/Jewelry Studio Honors	▪ Metalsmithing/Creative Jewelry
▪ Basic Design																			
▪ Painting																			
▪ Photography																			
▪ Beginning Ceramics	▪ Ceramics Studio Honors																		
▪ Continuing Ceramics	▪ Drawing																		
▪ Drawing Studio Honors																			
▪ Sculpture	▪ Sculpture Studio Honors																		
▪ Weaving/Fibers	▪ Weaving/Fibers Studio Honors																		
▪ Metal/Jewelry Studio Honors	▪ Metalsmithing/Creative Jewelry																		

2. 캐나다

가. 주요 특징

캐나다의 교육 정책은 주 정부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0개의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순수 예술(Fine Arts)' 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선택 과목으로 '무용(Dance)', '드라마(Drama)', '순수 예술(Fine Arts)', '음악(Music)', '시각 미술(Visual Arts)'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11학년, 12학년에서의 '시각 미술'을 세분화하여 '미술 기초', '스튜디오 미술', '미디어 아트'의 3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다.

캐나다의 또 다른 주의 사례로서 온타리오 주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10-12학년을 '예술' 영역으로 운영하고 세부 선택 과목으로 '시각 미술', '음악', '드라마와 무용', '종합 예술', '미디어 아트', '실험 예술'이 개설되어 있다. 즉, '예술' 영역에서의 미술 관련 과목으로는 '시각 미술', '미디어 아트', '실험 예술' 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주 수준에서는 이와 같이 3과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하여 좀더 세분화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나. 과목 명 및 과목 수, 지도 내용

먼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11, 12학년에 미술과 관련하여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미술 기초', '스튜디오 미술', '미디어 아트' 3과목이다. 각각의 세부 지도 내용은 <표Ⅱ-4>와 같다.

<표II-4>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선택 과목(11-12학년)

과목 명		지도 내용
시각 미술	미술 기초 (art foundations) '02년 시행	① 이미지 개발과 디자인 전략 ② 맥락 ③ 예술과 디자인의 시각 요소와 원리 ④ 재료, 테크놀로지, 과정 * 규정 학습 성과: 인식/반응, 창작/소통의 2기준으로 제시함.
	스튜디오 미술 (studio arts) '02년 시행	① 이미지 개발과 디자인 전략 ② 맥락 ③ 예술과 디자인의 시각 요소와 원리 ④ 재료, 테크놀로지, 과정 * 프로그램 모델: 드로잉과 페인팅(drawing and painting), 도자와 조소(ceramic and sculpture), 판화와 그래픽(printmaking and graphic design), 직물과 섬유(fabric and fibre)
	미디어 아트 (media arts) '97년 시행	① 이미지 개발과 디자인 전략 ② 맥락 ③ 예술과 디자인의 시각 요소와 원리 ④ 재료, 테크놀로지, 과정 * 규정 학습 성과: 인식/반응, 창작/소통의 2기준으로 제시함.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산하의 단위 학교에서는 주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3과목을 기초로 하되 실제로는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하여 <표II-5>와 같이 상세한 전공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표II-5> 캐나다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학교명	내 용						
Saint George's School	1. 특징: 1931년 설립된 명문 남학교(기숙사). 1-12학년까지 있음.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소재. (www.stgeorges.bc.ca) 2. Fine Arts Dept. 로 제시하고 있음. 3. 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 관련 과목 목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Art 2D, 3D (G11 & 12)</td> <td>▪ Art History (AP)</td> </tr> <tr> <td>▪ Architecture (G11)</td> <td>▪ Ceramics (G11)</td> </tr> <tr> <td>▪ Media Arts (G11 & 12)</td> <td></td> </tr> </table>	▪ Art 2D, 3D (G11 & 12)	▪ Art History (AP)	▪ Architecture (G11)	▪ Ceramics (G11)	▪ Media Arts (G11 & 12)	
▪ Art 2D, 3D (G11 & 12)	▪ Art History (AP)						
▪ Architecture (G11)	▪ Ceramics (G11)						
▪ Media Arts (G11 & 12)							
	4. 과목 수: 5개 과목(세부 과목 13개)						

	<p>5. 그 외 visual Arts Program에 포함된 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Dimensional Art: Drawing, Painting, Printmaking, Photography ▪ 3-Dimensional Art: Ceramics, Sculpture, Architecture ▪ Media Arts: Animation, Film, Digital Video, Photography, Graphic Design
<p>Brentwood College School</p>	<p>1. 특징: 1923년 설립된 중등학교. 브리티시 콜롬비아 브렌트우드 베이 소재. (www.brentwood.bc.ca/)</p> <p>2. Visual Arts로 제시하고 있음.</p> <p>3. Visual Arts에서 제공하는 미술 관련 전공과목 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ttery (G 10-12) ▪ Visual Arts 3D Sculpture (G 8-12) ▪ Art Foundation 8 (Visual Arts 8-2D) ▪ Art Foundation 9 (Visual Arts 9-2D) ▪ Art Foundation 10 (Visual Arts 10-2D) ▪ Art Foundation 11-12 ▪ Studio Arts/Professional & Portfolio Preparation ▪ Visual/Studio Arts: Drawing & Painting ▪ Beginners Photography, Fun with Photography ▪ Advanced Photography ▪ Advanced Photography, The Art of Photography ▪ The Fine Art of Photography ▪ Drafting & Design-Beginner, Computer-Aided ▪ Drafting & Design-Advanced, Computer-Aided ▪ Model-Building ▪ Photojournalism ▪ Creative Science <p>4. 과목 수: 17개</p>

온타리오 주의 ‘시각 미술’, ‘미디어 아트’, ‘실험 예술’ 3과목의 세부 지도 내용은 <표II-6>과 같다.

<표II-6>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선택 과목(11-12학년)

학년	과목 명	지도 내용
11	시각 미술 *university/ college open 과정	① 이론: '시각 미술 리터러시', '미술사와 문화' ② 창작: '인지와 계획', '실험과 제작', '고찰과 평가' ③ 분석: '비평적 과정', '미학', '개인적 발전과 직업 준비'
	미디어 아트 *open 과정	① 이론: 개념과 용어, 역사, 연습 ② 창작: 개념의 사용과 과정, 제작 기술 ③ 분석: 비평적 분석, 나와 사회, 미디어 아트의 기능, 직업 준비
12	시각 미술 (visual arts)	① 이론: '시각 미술 리터러시', '미술사와 문화' ② 창작: '인지와 계획', '실험과 제작', '고찰과 평가' ③ 분석: '비평적 과정', '미학', '개인적 발전과 직업 준비'
	미디어 아트 *open 과정	① 이론: 개념과 용어, 역사, 연습 ② 창작: 개념의 사용과 과정, 제작 기술, 창조적 과정 ③ 분석: 비평적 분석, 나와 사회, 미디어 아트의 기능, 직업 준비
	실험 예술 *open 과정	① 이론: 개념, 역사적 맥락, 안전과 대인관계 기술 ② 창작: 개념 적용, 기법과 기술, 창조적 과정의 적용 ③ 분석: 비평적 과정, 예술의 기능

3. 영국

가. 주요 특징

영국 국가 교육과정(1999)에서 미술 관련 교과명은 '미술과 디자인(Art and Design)'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형태는 아니고 미국과 같이 하나의 교과에 대한 성취 기준이 해당 학년 군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10, 11학년)에 해당하는 단계는 Key Stage 4로 성취 수준 8에 해당되며 이후 심화된 다음 단계의 수준도 <표II-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7〉 ‘미술과 디자인’ 교육과정 내용(성취 수준 8, 뛰어난 수행 단계)

	내용
*수준 8	장르와 과정과 유형의 범위의 특성과 가능성을 구별하고 탐구한다. 시각적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관련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조직하고 제공하여 매체의 범위의 특성을 이용(개발)하여 자신이 연구한 것을 알리고 유지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의 배경을 평가하여 자신의 관점과 실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자신의 작품을 더욱 발전시킨다.
뛰어난 수행	선택한 장르와 과정과 유형의 다른 해석을 구별하고 탐구한다. 연구를 주도하고 방법과 결과물을 분석하고 시각적 형태와 다른 형태의 연구를 제공하고 보여주어 선택한 매체의 특성을 이용(개발)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창의적으로 반응한다. 왜 다른 사람의 작품의 아이디어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인지하여 지식과 이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실용적인 작품을 펼치고 자신의 아이디어, 통찰력, 관점을 전달한다.

나. 과목 명 및 과목 수, 지도 내용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개설되어 있는 선택 과목 명과 과목 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설되어 있는 과목 명을 볼 때 대체로 학생들의 실기 전공과 관련된 실기 위주의 내용이 지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8〉 캐나다 단위 학교의 개설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학교 명	내용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1. 특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공되는 명문 사립 여학교. (www.nlcs.org.uk/) 2. Art Dept. 로 제시. 3. Art Dept.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 목록: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Photography</td> <td>■ Computer aided Design</td> </tr> <tr> <td>■ Intaglio and Screen Printing</td> <td>■ Textile Design</td> </tr> <tr> <td>■ Welding</td> <td>■ Ceramics</td> </tr> </table>	■ Photography	■ Computer aided Design	■ Intaglio and Screen Printing	■ Textile Design	■ Welding	■ Ceramics
■ Photography	■ Computer aided Design						
■ Intaglio and Screen Printing	■ Textile Design						
■ Welding	■ Ceramics						
	4. 과목 수: 6개						

II. 외국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동향 분석

<p>Harrow School</p>	<p>1. 특징: 1672년 설립된 명문 학교. (www.harrowschool.org.uk/) 2. Art Dept로 제시하고 있음. 3. Art Dept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470 593 1252 683"> <tr> <td>■ Drawing</td> <td>■ Painting</td> <td>■ Pottery</td> <td>■ Printmaking</td> </tr> <tr> <td>■ Sculpture</td> <td>■ Stage Design</td> <td>■ Photography</td> <td></td> </tr> </table> <p>4. 과목 수: 7개</p>	■ Drawing	■ Painting	■ Pottery	■ Printmaking	■ Sculpture	■ Stage Design	■ Photography	
■ Drawing	■ Painting	■ Pottery	■ Printmaking						
■ Sculpture	■ Stage Design	■ Photography							
<p>Eton College</p>	<p>1. 특징: 1440년 헨리 6세가 설립한 명문 사립(public) 남학교. 런던 소재. (영국에서 college의 경우 사립 중고교를 일컫기도 함). (www.etoncollege.com) 2. Art Dept로 제시하고 있음. 3. Art Dept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470 929 1236 1019"> <tr> <td>■ Painting</td> <td>■ Drawing</td> <td>■ Sculpture</td> <td>■ Ceramics</td> </tr> <tr> <td>■ Printmaking</td> <td>■ ICT</td> <td></td> <td></td> </tr> </table> <p>4. 과목 수 : 6개 5. '특별 활동'에는 'Design & Technology'도 포함되어 있다(여기에는 'CAD/CAM & ICT', 'Electronic Products', 'Graphic Products', 'Resistant Materials'가 속해 있음).</p>	■ Painting	■ Drawing	■ Sculpture	■ Ceramics	■ Printmaking	■ ICT		
■ Painting	■ Drawing	■ Sculpture	■ Ceramics						
■ Printmaking	■ ICT								
<p>Cambridge Arts and Sciences (CATS)</p>	<p>1. 특징: Cambridge Education Group(CEG)에 속하는 A-level과 degree-level의 미술 고등학교. 캄브리지 소재. (www.catscollege.com) 2. Cambridge School of Art and Design(CSAD)으로 제시하고 있음. 3. Art & Design에서 제공하는 Core Subjects & Options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454 1332 1252 1579"> <thead> <tr> <th>Core Subjects</th> <th>Options</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Drawing ■ Visual Studies ■ Photography ■ Contextual Studies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ing & Drawing ■ Interdisciplinary Studies ■ Ceramics ■ Graphics & Illustration ■ Working with Metal ■ Film & Video ■ Sculpture ■ Art of Architecture ■ Textiles ■ 3-D Design ■ Photography </td> </tr> </tbody> </table> <p>4. 과목 수: 15개 5. 2년의 A level course와 1/2년의 GCSE course 가 있다.</p>	Core Subjects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Drawing ■ Visual Studies ■ Photography ■ Contextual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ing & Drawing ■ Interdisciplinary Studies ■ Ceramics ■ Graphics & Illustration ■ Working with Metal ■ Film & Video ■ Sculpture ■ Art of Architecture ■ Textiles ■ 3-D Design ■ Photography 				
Core Subjects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 Drawing ■ Visual Studies ■ Photography ■ Contextual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ing & Drawing ■ Interdisciplinary Studies ■ Ceramics ■ Graphics & Illustration ■ Working with Metal ■ Film & Video ■ Sculpture ■ Art of Architecture ■ Textiles ■ 3-D Design ■ Photography 								

4. 프랑스

가. 주요 특징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2001)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술 교과목을 필수 교과와 자유 선택 교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1학년 필수 교과로는 ‘조형 예술’, ‘영화와 오디오비주얼’, ‘무용’, ‘예술사’, ‘음악’, ‘연극’, ‘서커스 예술’을 제시하였고, 자유 선택 교과로는 필수 교과 중 서커스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필수 선택 교과, 자유 선택 교과 모두 1학년의 자유 선택 교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동일하다. 단지 내용 수준에 있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예술에 대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1학년 내용에 기초하면서 구체적인 예술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 과목 명 및 과목 수, 지도 내용

프랑스에서는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미술 관련 과목인 ‘조형 예술’, ‘예술사’ 2과목의 내용 구성은 <표Ⅱ-9>와 같다.

<표II-9> '조형 예술', '예술사' 내용 구성

과목 명	지도 내용
조형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2학년 : 지식과 기능, 제작활동에 기초하면서 학생의 일반 교육에 기여하도록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 주제 - '작품과 장소' : 형상화된 장소, 탐험해야 할 공간으로서의 장소, 상상된 장소와 실제 구축된 장소 •고등학교 3학년 : 좀 더 20세기 조형예술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동시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문학, 철학, 인문과학 등 다른 학문과 의미 있는 상호 보완 체제를 꾀한다. 또한 조형 예술 창조에서의 거대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시사성 있는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 주제 - '작품과 신체' : 활동 중인 신체, 형상화된 신체, 공간과 시간 속의 신체, 신체와 세계, 타인의 감각적인 경험
예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2학년 : '예술과 기술의 혁신', '예술가와 관객', '건축과 도시공학, 삶의 양상들', '예술 중심 지역과 예술의 유통' •고등학교 3학년 : '예술과 20세기 도시들', '예술가들과 건축', '1945년 이후의 프랑스 문화 정책'

5. 일본

가. 주요 특징

'신 학습 지도 요령'(2002)에 의하면 일본의 고등학교 급별 교육과정에서는 예술 교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에 '음악Ⅰ', '음악Ⅱ', '음악Ⅲ', '미술Ⅰ', '미술Ⅱ', '미술Ⅲ', '공예Ⅰ', '공예Ⅱ', '공예Ⅲ', '서도Ⅰ', '서도Ⅱ', '서도Ⅲ'의 선택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나. 과목 명 및 과목 수, 지도 내용

예술 교과의 선택 과목 중 미술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미술Ⅰ', '미술Ⅱ', '미술Ⅲ', '공예Ⅰ', '공예Ⅱ', '공예Ⅲ', '서도Ⅰ', '서도Ⅱ', '서도Ⅲ'의 9개 과목이 있다. 각 과목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표II-10>, <표II-11>, <표II-12>와 같다.

<표Ⅱ-10> 일본의 '미술Ⅰ', '미술Ⅱ', '미술Ⅲ' 과목의 목표 및 내용

		미술Ⅰ	미술Ⅱ	미술Ⅲ
목표	목표	미술의 폭넓은 창조 활동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미술을 애호하는 마음을 기르고, 감성을 높이며 창조적인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미술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미술을 애호하는 동시에 감성을 높이고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개성 풍부한 미술의 능력을 높인다.	미술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생애에 걸쳐 미술을 애호하는 마음과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감성과 미의식을 닦아 개성 풍부한 미술의 능력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느낀 것, 자신의 생각, 꿈이나 상상 등에 기초하여 주제 선정 ②표현 형식의 선택과 창조적인 표현의 구상 ③대상, 색채, 구성, 재료나 용구 사용방법 등 기능 향상 ④의도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연·자신·사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주제의 생성 ②미적·효과적인 표현의 구상과 재료·기법의 활용 ③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독창적인 주제와 표현 방법의 선택 ②개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능과 아름다움 및 즐거움을 생각한 주제 ②조형 요소의 이해와 창조적 표현의 구상 ③표현 형식의 선택, 색채, 재료나 용구의 특징을 살리는 방법 등의 기능 ④의도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생활을 여유 있게 창조하는 주제의 생성 ②미적·효과적인 표현의 구상과 재료·기법의 활용 ③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디자인 효과를 생각한 독창적인 주제와 표현 방법의 선택 ②개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영상 미디어의 특질을 살린 주제의 선정 ②시각적 전달 효과를 생각한 표현의 구상 ③색광, 기저재 등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활용 ④의도에 따른 표현 방법이나 편집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연, 자신, 사회 등을 깊게 바라보는 주제의 생성 ②독창성, 시간 표현, 이야기 등을 생각한 표현의 구상과 다양한 기저재의 활용 ③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독창적인 표현의 구상과 종합적인 표현 효과를 생각한 기저재의 활용 ②개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표현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미술작품의 좋음이나 아름다움 ②작가의 심정이나 의도와 표현의 연구 ③생활, 자연, 미술의 관련 ④일본의 미술의 역사와 표현의 특징 ⑤영상미디어 표현의 특징과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작품이나 작가의 개성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 ②풍부한 삶의 창조와 관계되는 미술의 기능 ③시대, 민족, 풍토 등에 의한 표현의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미술 문화 ④영상미디어 표현에서의 조형성과 전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작가의 삶의 방법이나 주장과 작품 ②미술이 국제간의 이해나 협조에 미치는 역할 ③문화유산으로서의 미술의 특색과 보존의 의미 ④영상미디어가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에 미치는 역할

〈표 II-11〉 일본의 ‘공예 I’, ‘공예 II’, ‘공예 III’ 과목의 목표 및 내용

		공예 I	공예 II	공예 III	
목 표		공예의 폭넓은 창조 활동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공예를 애호하는 마음과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높이고 창조적 표현과 감상능력을 기른다.	공예의 창조적인 여러 활동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해 공예를 애호하는 심정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높이고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개성 풍부한 공예의 능력을 높인다.	공예의 창조적인 여러 활동을 통하여 생애에 걸쳐 공예를 애호하는 마음과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감성과 미의식을 길러 개성 풍부한 공예의 능력을 높인다.	
	내 용	공예 제작	①자연이나 주변의 생활, 사용하는 사람의 심정, 꿈 등을 기본으로 한 마음 풍부한 발상 ②용도와 아름다움, 일본의 전통적인 표현의 종음을 살린 제작의 구상 ③재료나 용구의 활용과 제작 방법의 이해 ④제작 과정을 통한 음미와 창의적 연구	①용도나 기능과 아름다움, 체험이나 꿈 등을 기본으로 한 창조적 발상 ②미적 질서를 의도한 디자인의 구상 ③재료, 기법, 용구, 순서 등을 생각한 제작 ④제작의 음미와 창조적 개선	①생활환경의 미적 구성을 의도한 독창적 발상 ②개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제작의 추구
		프로젝트 제작	①사회 생활이나 주변의 환경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한 창조적 발상 ②용도나 기능, 생산성을 생각한 제작의 구상 ③제작 과정을 통한 음미와 창의적 연구	①생활을 여유 있게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 발상 ②유용성과 아름다움의 조화, 생산성 등을 생각한 제작의 구상 ③재료·기법, 용구, 구조, 순서 등을 생각한 제작 ④제작 음미와 창조적 개선	①생활환경의 미적 구성과 생산성을 의도한 독창적 발상 ②용도와 기능에 근거해, 개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제작의 추구
감 상		①공예 작품의 줄임이나 아름다움 ②작자의 심정이나 의도와 표현의 궁리 ③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는 공예 ④작품의 미의식이나 수제품의 줄임 ⑤일본 공예의 역사와 표현의 특징	①작품이나 작자의 개성 등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 ②공예와 자연 및 생활 환경의 구성과의 관계 ③풍부한 삶의 방법 창조와 관계되는 공예의 기능 ④시대, 민족, 풍토 등에 의한 표현의 상위난 공통성과 미술 문화	①작자의 삶의 방법이나 생활 문화와 작품 ②공예가 국제간의 이해나 협조에 미치는 역할 ③문화유산으로서의 공예의 특색과 문화유산 등 보존의 의의	

〈표Ⅱ-12〉 일본의 ‘서도Ⅰ’, ‘서도Ⅱ’, ‘서도Ⅲ’ 과목의 목표 및 내용

		서도Ⅰ	서도Ⅱ	서도Ⅲ
목표		서도의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책을 애호하는 심정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서사능력을 높이고 표현과 감상의 기초능력을 편다.	서도의 창조적인 제 활동을 통하여 책을 애호하는 심정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높이고 책의 문화나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개성 풍부한 표현과 감상 능력을 편다.	서도의 창조적인 제 활동을 통하여 생애에 걸쳐 책을 애호하는 심정과 책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닦아 개성이 풍부한 책의 능력을 높인다.
내용	한자와 일어가 섞인 책	①표현과 용구·용재와의 기본 관계 ②한자와 일어가 조화를 이룬 선질의 표시법 ③자형, 문자의 크기와 전체의 구성 ④의도에 근거하는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의도에 맞는 표현과 용구·용재의 궁리 ②20 명필의 감상에 근거하는 표현의 궁리와 개성적인 표현 ③표현 형식에 따른 전체의 구성 ④감흥이나 의도에 따른 소재의 선정,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소재를 살린 효과적인 표현 방법의 궁리 ②주체적인 구상에 근거하는 개성적, 창조적인 표현
	한자 책	①고전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점화선 선질의 표시법과 용필·운필과의 관계 ②자형의 구성, 전체의 구성 ③의도에 근거하는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서체나 서풍에 맞는 용필·운필 ②고전에 근거하는 표현의 궁리와 개성적 표현 ③표현 형식에 따른 전체의 구성 ④감흥이나 의도에 따른 소재의 선정,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고전에 의한 책의 전통의 이해와 서체의 특색을 살린 표현에의 심화 ②주체적인 구상에 근거하는 개성적, 창조적인 표현
	일어 책	①고전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선질의 표시법과 용필·운필과의 관계 ②단체, 연면과 전체의 구성 ③의도에 근거하는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서풍에 맞는 용필·운필 ②고전에 근거하는 표현의 궁리와 개성적 표현 ③연면이나 흘러쓰기에 의한 전체의 구성 ④감흥이나 의도에 따른 소재의 선정, 표현의 구상과 궁리	①고전에 의한 책의 전통의 이해와 서체의 특색을 살린 표현에의 심화 ②주체적인 구상에 근거하는 개성적, 창조적인 표현
	감상	①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책의 관심과 효용 ②책의 아름다움과 표현 효과 ③일본 및 중국의 책의 문화	①책의 미의 제요소의 파악과 표현 효과 ②책의 미와 시대, 풍토, 필자의 개성 등의 관련 ③일본 및 중국 등의 책의 역사·문화와 책의 현대적 의의	①책의 미의 다양성과 작품의 특징 ②서론에 의한 책의 이해와 감상의 심화 ③일본 및 중국 등의 책의 전통과 제 문화와의 관련

6. 대만

가. 주요 특징

대만의 국가 교육과정(2001)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에 ‘예술과’가 있고 그 하부에 ‘음악’, ‘미술’, ‘예술 생활’의 과목을 설치하고 있는데, 1학년에서는 미술을 1시간씩 필수로 지도하고, 2, 3학년에서는 3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2시간씩 지도하도록 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줄 고등학교 2, 3학년의 과목 중 미술과 관련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서의 ‘미술’과 선택 과목으로서의 ‘미술’, ‘예술 생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일부 미술과와 관련된 과정으로 공통적인 기초 과정, 환경 예술, 응용 예술, 영상 예술이 있다.

〈표II-13〉 대만의 예술과 학기별 필수, 선택 과목 이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예술과	음악	1	1	1		1		.	.
	미술	1	1	1	2	1	2	.	.
	예술 생활			2		2		.	.

나. 과목 명, 과목 수, 지도 내용

1학년의 필수 과목 ‘미술’과 2, 3학년 선택 과목의 ‘미술’, ‘예술 생활’의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표Ⅱ-14〉 대만의 필수 과목 '미술'의 목표 및 내용

목표	〈제1단계 목표〉 미술과 문화의 의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창작 표현과 감상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제2단계 목표〉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접하게 하여 감상의 범위를 넓히고 창작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제3단계 목표〉 세계 각국 여러 민족의 미술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독창적인 견해를 기르고 창작 표현 및 감상 능력을 키운다.	
	〈제4단계 목표〉 다방면에 걸쳐 미술과 문화, 미술과 기타 영역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표현을 함으로써 창작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제1 단계	핵심 능력	
	창작	감상
	미술과 문화의 의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창작 표현과 감상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①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창작 방법을 생각하고 토론한다. ② 미술품 구성, 구조, 기능을 이해한다. ③ 기본적인 특정 매체와 기법 및 과정을 사용하여 창작을 한다.	① 일반적인 미술 작품의 형식과 원리를 감상한다. ② 생활 중의 시각 문화를 이해한다. ③ 적절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한다.
	교재 내용	
	1. 평면재료, 입체재료, 복합적인 재료 및 미디어 매체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표현한다. 2. 디자인의 구성, 기본 주제와 소재, 기법과 원리 및 생활 중의 활용 3. 미술의 의미, 형식, 내용과 기능 등의 기본 개념 4. 여러 장르의 미술 및 시각 문화의 창작품 속에 내포된 의미, 형식의 특징 및 생활과의 관계 5. 관련 미술 어휘	
제2 단계	핵심 능력	
	창작	감상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접하게 하여 감상의 범위를 넓히고 창작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①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아, 사회, 자연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창작의 주제를 생각한다. ② 여러 가지 재료, 기법, 형식, 방법, 창작 과정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③ 특정한 재료, 기법 및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창작한다.	① 미술과 생활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대만과 중국 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과 특징을 이해한다. ③ 적절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발표한다.
	교재 내용	
	1. 평면재료, 입체재료, 복합적인 재료 및 미디어 매체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2. 미술과 시각 문화의 기본 방법을 연구한다.(예: 작가에 대한 심층토론, 작품 창작 배경에 대한 심층토론, 작품의 의식 행태에 대한 심층토론 등) 3. 대만 미술의 시대적 배경, 기능과 특징 4. 중국 미술의 시대적 배경, 기능과 특징 5. 관련 미술 어휘	

		핵심 능력	
		창작	감상
제3 단계		세계 각국 여러 민족의 미술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독창적인 견해를 기르고 창작 표현 및 감상 능력을 키운다.	
		① 여러 작품의 재료, 개법, 구조 및 창작 과정의 관점을 비교한다. ②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특정 주제의 작품을 창작한다. ③ 특정 재료와 기법을 응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작품을 완성한다.	① 시각 부호와 사회, 생활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토론한다. ② 여러 민족과 세계 각국 미술의 시대 배경과 특징을 이해한다. ③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비평과 감상을 발표한다.
		교재 내용 1. 평면재료, 입체재료, 복합적인 재료 및 미디어 매체 중에서 특정 재료 혹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해하고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의 창작을 진행한다. 2. 현대의 여러 가지 의제(예: 환경 보호, 성별, 지역성 등)의 창작과 디자인의 이념, 부호 상징과 의의 3. 세계 각국 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과 특징 4. 여러 민족 미술의 시대 배경, 기능과 특징 5. 관련 미술 어휘	
		핵심 능력	
		창작	감상
제4 단계		다방면에 걸쳐 미술과 문화, 미술과 기타 영역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표현을 함으로써 창작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① 미술과 기타 예술 과목의 재료, 기법, 창작 과정에서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한다. ②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각 예술과 기타 예술의 창작 원리와 기법을 종합하여 창작을 진행한다. ③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표현한다.	① 특정 시기의 인문, 사회, 혹은 과학 사조와 미술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② 예술가, 평론가, 미학자 및 미술사학자의 관점을 살펴보고 예술 작품을 분석한다. ③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비평과 감상을 발표한다.
		교재 내용 1. 평면재료, 입체재료, 복합적인 재료 및 미디어 매체를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2. 여러 종류의 예술 창작과 디자인의 연구와 표현 3. 시각 예술과 기타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 주제의 결정, 형식과 내면적 표현에서의 다른 점 4. 특정한 예술의 주제, 시기와 특징에 나타난 인문 또는 과학 사조의 창작 표현을 다각도로 토론한다. 5. 관련 미술 어휘	

〈표 II-15〉 대만의 선택 과목 ‘미술’의 목표 및 내용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인문적 소양과 생활의 질을 높인다. 2. 세계 각국, 각 민족의 미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특정한 재료를 알고 독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창작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른다. 3. 다각도로 미술과 문화 및 미술과 기타 영역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창작 표현과 감상의 능력을 기른다. 	
범주	핵심 능력	
	창작	감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작 과정의 체험 2. 현대 미술 창작의 주제 3. 세계 미술 4. 여러 민족의 미술 5. 미술과 기타 예술의 창작과 심미 영역을 뛰어넘은 특정 주제 연구 7. 미술과 문화의 관계를 다각도로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작품에 쓰인 재료, 기법, 조직과 창작 과정의 관점을 비교한다. 2.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특정한 주제의 창작을 진행한다. 3. 특정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작품을 완성한다. 4. 미술과 기타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 재료, 기법, 과정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한다. 5.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각 예술과 기타 예술의 창작 원리와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한다. 6.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독창성 있는 작품을 완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 부호와 사회, 생활의 관계를 탐구한다. 2. 여러 민족과 세계 각국 미술의 시대적 배경, 기능과 특징을 이해한다. 3. 명확한 언어를 이용하여 비평과 감상을 발표한다. 4. 특정 시기의 인문, 사회, 과학 사조와 미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설한다. 5. 예술가, 평론가, 미학자, 미술사학자의 관점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6. 전문적인 언어와 서술로 비평과 감상을 발표한다.
	교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재료, 입체재료, 복합재료, 미디어 매체 등 여러 가지 재료의 이해와 종합적 이용(예: 수묵, 수채, 유채, 아크릴, 석재, 판재, 컴퓨터 영상 등)하여 특정 주제의 창작을 진행한다. 2. 현대의 여러 가지 주제(예: 환경보호, 성별, 지역성 등)의 창작과 디자인의 이념, 부호 상징과의 의의 3. 세계 각국(예: 대만, 중국, 일본, 한국, 이집트, 그리스, 인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미술의 시대, 사회적 배경, 기능, 특징 4. 여러 민족 미술의 시대, 사회적 배경, 기능, 특징 5. 다양한 예술의 창작과 구상 및 표현 연구(예: 자연주의 미술의 창작과 구상, 페미니즘 미술의 창작과 구상, 퍼포먼스의 창작과 구상, 예술과 과학 기술 등) 6. 시각 예술과 기타 예술 창작에서의 재료 선택, 주제의 결정, 형식과 내면적 표현상의 차이점 7. 다각도로 (예: 인류학, 문학, 문화, 철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기호학 등의 관점에서) 특정한 예술의 주제, 시기, 성격의 인문적 혹은 과학적 사조와 창작 표현에 대해 탐구한다. 8. 관련 미술 어휘 	

〈표II-16〉 대만의 선택 과목 ‘예술 생활’의 목표 및 내용

목표	1. 문화적 소양을 키운다. 2. 심미적 수준과 관찰력을 향상시킨다. 3. 생활 속의 흥미를 유발시켜 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4. 예술 감상 능력을 향상시켜서 품성을 함양한다.		
교과과정	핵심 능력		
기초과정	1. 생활 주변의 사물에 대한 감각,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기른다. 2. 인공물과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관찰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3.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재료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4. 기능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5. 예술의 요소를 이해한다.		
환경예술	1. 생활 환경을 느끼고 감상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환경 예술의 재료, 기술과 과정을 안다. 3. 환경 예술의 형식, 구조와 기능 간의 관계를 안다. 4. 환경과 문화, 역사의 관계를 이해한다. 5. 환경 예술을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 환경 예술의 형식, 공간의 상징과 의미를 이해한다. 7. 자신의 생활 환경을 구상하고 창조한다.		
응용예술	1. 일상 생활 속의 각종 기물에 내포된 과학적, 인문적 특징을 이해한다. 2. 기물의 미감과 품질을 판단한다. 3. 기물의 역사, 문화 및 지방성을 이해한다. 4. 각종 천연 및 인공 재료의 제작 기법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5.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 감각과 디자인 감각을 발휘한다.		
영상예술	1.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영상 예술과 다중 매체의 발전 역사 및 미학적 특성을 안다. 2. 자발적으로 영상 예술을 감상하고 학습과 정보의 흡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풍부한 문화 생활을 누린다. 3. 시각 언어를 이해하고 촬영, 녹화, 컴퓨터 등의 기자재로 영상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통해 각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4. 일상 생활 중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매체의 시각 언어 운용과 문화 및 사회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의 매체 소양을 향상시킨다.		
교과과정	교재 내용		
기초과정	1. 기초적인 미적 감각	1-1. 미적 감각의 원칙	1-2. 예술적 관점
	2. 감각적요소	2-1. 자연과 생명	2-2. 색채와 질감 2-3. 빛과 울동
	3. 실기	3-1. 조형 디자인	
환경예술	1. 건축	1-1. 건축의 구성 요소	1-2. 건축의 미학
	2. 도시	2-1. 도시의 조직	2-2. 도시 공간의 미학 2-3. 도시와 건축의 관계
	3. 경관	3-1. 자연과 인공 경관	3-2. 경관의 미학 3-3. 공원과 도시
	4. 실내	4-1. 실내 디자인과 건축	4-2. 공간 디자인의 원칙 4-3. 디자인 실기
응용예술	1. 식기	1-1. 도자 공예	
	2. 가구	2-1. 목공예	
	3. 의상	3-1. 복식공예	3-2. 염직공예
	4. 장신구 및 기타 용품	4-1. 금속공예	4-2. 유리공예 4-3. 칠기공예
영상예술	1. 영화	1-1. 영화 이론 1-2. 영화의 미학 1-3. 영화 제작 원리 1-4. 영화 감상	
	2. 다중 매체	2-1. 시각전달 개론 2-2. 비디오 아트 개론	
		2-3.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2-4. 신매체 디자인 2-5. 매체 비평과 분석	

7.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먼저, 미국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는 성취 기준으로 공통 기본 교과와의 일관된 내용 기준을 중심으로 심화된 내용과 활동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역시 국가 성취 기준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급에서는 이전의 단계보다 심화된 내용을 선정하면서 보다 상세화, 구체화된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택 교과목의 편성은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미술과 관련된 전공 과목이 많게는 25개의 과목까지 개설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수 순서에 따라 1, 2, 3의 형태로 개설되어 전공에 따라 심화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대체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교양의 성격이기 보다는 대학에서의 미술 실기 전공에 기초하여 세분화되어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의 선택 과목으로 ‘시각 미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11, 12학년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과목으로 ‘미술 기초’, ‘스튜디오 미술’, ‘미디어 아트’를 개설하였다. 개정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미술 관련 선택 과목 역시 3개로서 과목 선정 및 내용 구성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학교 수준에서 개설되어 있는 ‘시각 미술’의 전공 과목들을 살펴보면, 주 수준의 교육과정의 과목에 기초하여 크게 ‘평면 미술’, ‘입체 미술’, ‘미디어 아트’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대학에서의 미술 관련 전공별에 기초하여 세분화시켜 제시하고 있는 경우 등 학교별로 다양하게 선택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의 10, 11학년에 해당하는 단계 4의 ‘미술과 디자인’은 선택 과목으로서 성취 수준 8에 해당되며 이후 뛰어난 수행 단계의 성취 수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단계 4에서 미술과 디자인이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 과목과 연계해서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후 단계의 성취 수준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미술 관련 전공 과목은 학교마다 다

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6-7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한 학교의 경우에는 ‘미술과 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도 하부에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수준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와 자유 선택 교과목의 내용 구성이 다루어야 할 주제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개발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미술 관련 교과목인 ‘조형 예술’과 ‘예술사’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과는 달리 성취 기준이나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학습 주제, 여러 학문과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예술’ 교과 아래 하부 교과목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술과 관련해서 개설된 과목은 ‘미술’, ‘공예’, ‘서도’ 3가지 과목인데, 심화된 연속 과목으로서 각각 1, 2, 3의 세 과목으로 수준을 나누어 9개 과목의 목표 및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미술’ 과목에서는 회화, 조각, 디자인, 영상 미디어, 감상을 다루고, 미술의 한 장르인 ‘공예’와 ‘서도’를 독립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미술의 장르를 모두 선택 교과목으로 나열하여 개설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특정 장르 몇 개만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예술과’를 설치하고 하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필수 과목으로의 ‘미술’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또 선택 과목으로의 ‘미술’의 목표 및 내용을 달리 제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예술 과목을 함께 다루는 ‘예술 생활’이라는 선택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교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제만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만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예술 생활’의 경우에는 모든 예술 과목을 총망라하는 개론서의 성격으로 교재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나. 시사점

여러 나라의 국가 수준 또는 주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과목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성취 기준, 내용 기준, 학습 주제, 교재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선택을 중요시한다면 우리나라도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이 좀더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는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은 3개이고, 이외에 편성, 운영에 있어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또 다른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각 나라에서 미술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과목 수는 국가, 주, 학교 차원에서 제각각 달랐다. 주와 학교 차원에서는 조사된 곳만을 중심으로 <표Ⅱ-17>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Ⅱ-17> 다른 나라의 미술 관련 선택 과목 수

국가 명	과목 명
미국	• 학교 수준에서 실기 전공을 고려하여 14개 - 19개 정도
캐나다	• 주 수준에서 3개 • 학교 수준에서 실기 전공을 고려하여 13개 - 17개 정도
영국	• 학교 수준에서 실기 전공을 고려하여 6개 - 15개 정도
프랑스	• 국가 수준에서 2개
일본	• 국가 수준에서 9개
대만	• 국가 수준에서 2개

둘째, 우리나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선택 과목 3개의 과목 명 설정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나라의 과목 명을 정리해 보면 <표Ⅱ-18>과 같다. 각 나라에서 개설하고 있는 미술 관련 과목 중에 세부 실기 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 명은 일단 제외시켰다. 하지만 학교 수준에

서 다양한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을 제4의 과목으로 개설한다면, 미국, 캐나다, 영국의 학교 수준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공 실기 관련 과목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8〉 다른 나라의 미술 관련 선택 과목 명

국가 명	과목 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Studio Art • Art and Ideas: A History of Art • Advanced Art: Word &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vanced Studio Art • Advanced Independent Art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 Foundations • Media 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io Arts • Experience Arts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ual Studies • Interdisciplinary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extual Studies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III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생활 	

셋째,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는 미술 관련 선택 과목 3개의 성격이나 내용을 미국, 영국, 대만의 경우처럼 이전의 10학년까지의 성취 기준 또는 성취 수준, 내용 기준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수준에서 출발점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캐나다,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의 미술의 내용 영역을 분화시켜서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캐나다의 ‘미술 기초’, ‘스튜디오 미술’, ‘미디어 아트’ 또는 ‘평면 미술’, ‘입체 미술’, ‘미디어 아트’의 과목 편성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선택 과목 3개의 성격이나 내용 구성 시 참고할 만 하다.

넷째, 외국의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성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한 가지는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실기 중심, 전공 영역 중심의 과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교육 차원에서 좀더 전문 교육 차원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프랑스, 대만 등의 교육과

정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에서의 교양이나 전공의 소양에 요구되는 과목들을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에 나가서 문화적 소양에 필요한 미술 과목으로 ‘미술 비평’, ‘미술 감상’, ‘미디어 아트’, ‘미술과 타학문과의 관계 이해’ 등에 대한 것들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 선정의 기준에서 반드시 한 가지 목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미술 관련 선택 과목의 내용 구성 및 제시 방식에 있어 프랑스, 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주제나 교재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이라고 교육과정 상에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개발될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 구성, 제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II.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및 실태 분석

제7차 교육과정 체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허용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 흥미, 적성, 수준 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차를 6차 교육과정에서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허경철 외, 2002).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도입 취지와 구성 체제에 따라 교과별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술과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과목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를 개설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체제와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 선택 과목의 운영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가.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한 학생 주도적 교과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전문성 심화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돈희 외(1996)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시기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종결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 진로 탐색을 하는 준비 교육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종결 교육의 의미를 지니는 학생들에게는 흥미나 수준에 알맞은 일반 교양 성격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전문화 교육의 준비 과정을 갖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되, 학생들이 교과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의 종결 단계 교육임과 동시에 전문화 교육의 준비 교육 단계임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의 폭을 두었는데 바로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에 나타나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목 편제표에 제시된 교과별 선택 과목은 이와 같이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다. 제7차에 개설된 미술과 선택 과목은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이다. 제7차 고등학교 미술과의 교과와 과목의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Ⅲ-1〉 제7차 고등학교 미술 교과 및 선택 과목 구성 체제

	국민공통기본교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성 격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교과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증진 및 실생활 관련 과목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 과목	
과목 수	1	1	2	
과목 명	미술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단위 수	2단위	4단위	4단위	4단위 이상

이러한 과목 구성은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좀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차 고등학교 미술과의 과목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III-2> 제6차 고등학교 미술 교과 과목 구성 체제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성 격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해당 과정을 선택할 경우 배우는 과목
과목 수	1	1
과목 명	미술 I	미술 II
단위 수	4단위	4단위

우선, 공통 미술은 6차에서는 ‘미술 I’, 7차에서는 ‘미술’ 교과로 되어 있다. 미술 I은 4단위로 고등학교 3개 학년 중 어느 학기 또는 학년이든지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차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 교과로 이수하고 있지만 실제 이수 단위에서는 50%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술과 선택 과목은 6차에서는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미술 II’를 개설하였고, 7차에서는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다. 6차와 7차의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차 교육과정>

(가) 보통 교과에는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과 각 과정에 알맞게 이수하는 과정별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을 둔다. (교육부, 1992, p.2).

<7차 교육과정>

(가)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나)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p. 13).

이상의 지침에 따르면, 6차의 과정별 필수 과목은 7차의 심화 선택 과목과 관련성이 높다. 왜냐하면, 심화 선택 과목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 결국 과정에

서 주로 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6차와 크게 달라진 점은 심화 선택 과목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의 도입에 있다. 제7차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성격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3)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선행 학습의 정도와 상관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마) 일반 선택 과목은 가능한 한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4)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과정이나 진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목이다 (이돈희 외, 1996, pp.107-108).

일반 선택 과목은 ‘종결 교육’, ‘일반 교양 증진’, ‘선행 학습 정도와 무관한 과목’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심화 선택 과목은 ‘전문화 교육의 준비 과정’, ‘과정이나 진로 고려’에 관련이 있다.

두 가지 목적에 적합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성격이 좀더 명료할 필요가 있으나 지침에 제시된 바로는 그리 명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두 과목이 교육의 대상을 달리하기 위해서 실제 과목의 내용이나 수준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공통 교과-일반 선택 과목-심화 선택 과목’의 계열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좀더 구체적인 과목의 의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후조 외 (1998)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명료한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선행 학습의 정도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 중간의 난도를 가진 과목이거나, 공통 기본 교과보다 난도는 낮되, 실제 생활에의 적합성(relevance)을 강화한 과목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과 생활”이라는 명칭의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자와 같이 교과와 생활을 연결하거나 통합하는 생활 적응적 성격의 과목인 경우 그것은 국민공통기본 교

과와 심화선택과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인가?(홍후조 외, 1998, p. 20)

일반 선택 과목은 종결 교육 단계의 소수 학생들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 특히, 공통 기본 교과보다 난도가 낮거나 생활 적응적 성격의 과목인 경우에 선택의 의미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의 성격을 명료화하여 공통 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의 위계,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위계 등 선택 과목과 공통 교과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적인 구조로 볼 때 미술과도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남으로써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편성·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 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 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③ 예 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교양 과목군에서는 2개 과목 이상,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 과목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p. 13).

일반 선택 과목은 과목군에서 최소 1과목 이상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과 건강’, ‘음악과 생활’, ‘미술과 생활’이 하나의 과목군이다. 그러나, 세 과목이 동일한 과목군으로 묶인 데에는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나 교육적 의도가 없음을 홍후조 외(1996)에서 밝히고 있다.

교과군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외국어 분야와 같은 상식적 구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과군 개념의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우선, 편제표에서 교과군별 과목과 이수 단위의 상대적 비중을 쉽

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일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간의 단순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될 필요가 있는 과목의 경우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홍후조 외, 1996, p. 29).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군 구분의 필요성에 있어서 과목간 단순 중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체육, 음악, 미술은 내용 중복이 일어날 수 없는 교과들이다. 오히려, 미술 교과의 경우, 문학이 포함된 국어 교과나 문화가 포함된 사회 교과와 중복이 될 수는 있어도 소리를 본질로 하는 음악과 이미지를 본질로 하는 미술 교과가 내용상 중복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나타나있듯이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구분일 뿐이지 구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타당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교과군을 구분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이나 예술적 소양에 대한 교육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의 편성·운영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편제표상에 제시한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체제라는 점이다. 제7차의 심화 선택 과목에는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예술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다른 선택 과목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은 교육과정이 없는 가상의 과목 명이라는 점이다.

<7차>

③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표 3】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p. 7).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심화 선택 과목의 취지와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나 기타계 고등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어느 정도로 개설할 수 있을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에서 전문 교과를 가르칠 만한 교사와 학교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실효성있게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일반계 보통 교과와 실업계 및 기타계의 전문 교과와의 관계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차용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두 계열의 유사한 교과나 내용들이 각각의 교육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유지하면서 연계되기 위한 방안이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미술과 선택 과목은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세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는 예술 계열 과목의 교육과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다. 본 내용에서는 선택 과목들의 구체적인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선택 과목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심화 선택 과목의 경우는 예술에 관한 교과의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반계 심화 선택 과목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이다.

1) 미술과 생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는 미술과의 일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은 국민공통기본 교육 기간을 마친 학생들이 가운데 좀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미술에 관련해서 흥미롭고 실용적인 미술의 이해, 비평, 제작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박소영 외, 1997, p. 90).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

목이며, 선행 학습의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돈희 외, 1996). 그 전까지 배운 미술 교과와 관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미술 교과에서의 이수 정도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는 '미술과 생활'은 '미술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좀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며, '흥미롭고, 실용적인 교과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미술 교과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 교과를 이수한 후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공통 교과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실용적인 것과 관련시켜 배우는 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진술하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겠다.

가) 성격

미술은 생활의 경험을 반영하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즉 미술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창조, 발전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는 활력소로 작용한다. 또, 미술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민족성 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

이러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미술 문화를 유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미술과 생활'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의 '미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이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의 이해'에서는 미술의 특성과 미술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미술 감상'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미술 창작'에서는 목적과 쓸모 등을 생각하며 미술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준다.

'성격' 항을 살펴보면, '미술과 생활' 과목은 '생활'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과목의 성격이 단순한 생활의 도구적 기능 외에도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단계의 미술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미술과 문화의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것과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과 생활’ 과목은 미술 문화적 안목을 목적으로 하며 효과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생활 소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은 공통 교과를 좀더 심화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실제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심동적 능력과 미술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정의적 능력을 목표로 제시한다.

생활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미술과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목표 ‘가’항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미술 현상에 좀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이 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문화로서 미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목표 ‘나’항은 감상 능력에 관련된 목표로서,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주제나 작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암기 위주의 감상을 지양하고, 미술 작품의 미적 형식을 파악함으로써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목표 ‘다’항은 실제로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미술 분야와 그것의 기능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적과 기능을 살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미술품을 제작하고, 영상 매체와 같이 미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공통 ‘미술’ 교과목의 목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미술’ 교과목과 2, 3학년에서 배우는 ‘미술과 생활’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표현의 활용 능력에 강조점을 둔 것 외에는 ‘미술 문화의 이해’나 ‘미술품의 가치 판단’은 공통 교과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구성은 내용 체계에서 좀더 확인할 수 있다.

다) 내용

다음은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이다.

영역	내용
미술의 이해	(1)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2)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기
	(3)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이해하기
	(4)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미술 감상	(1)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2) 시대별, 지역별로 미술품 감상하기
	(3)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
미술 창작	(1)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2)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 제작하기
	(3)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하기

‘미술과 생활’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술의 이해’에서는 미술의 기능, 특성, 역할,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고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 미술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통해 미술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미술 감상’에서는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의 해석과 판단 등 비평 능력을 기르고, 조형 예술 문화의 의미와 상호 교류, 미술사에 대한 이해, 생활과 문화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조직하였다.

‘미술 창작’은 미술품을 제작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생활과 관련된 조형품이나 조형물을 목적과 쓸모를 생각하여 제작, 설계하여 제작의 기쁨과 사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술을 생활화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 체계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내용 영역의 순서가 이해, 감상, 창작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공통 교과와 체험, 표현, 감상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창작 또는 표현의 중요성이 좀더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미술에서 표현 또는 창작은 특수한 소질이 요구되는 활동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실제로 표현 활동으로 인해 미술에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해와 감상 중심의 미술 과목의 내용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만 보고서는 미술 수업과 차별화된 미술과 생활 수업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해놓았는가에 따라 교사의 수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와 내용 체계에 익숙해진 교과서 개발자들은 ‘미술과 생활’의 내용 체계만 보고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를 가지고 공통 교과와 차별성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의 학습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교수·학습 방법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6차의 ‘방법’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변경하는 기본 철학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 중심의 ‘지도상의 유의점’ 제시에서 탈피하여 학생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 개별 집단별 학습 활동, 협동 학습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포함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술과의 경우 전통 미술에 관련된 지도를 강조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관한 이해와 이의 활용에 관한 사항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의 각 영역별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가. 학습 지도 계획은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한다.
- 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행사 또는 계절 등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다.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 라. ‘미술의 이해’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1)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2) 표현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마. ‘미술 감상’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1)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 (2)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 (3)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 (4) 이해 및 표현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5) 미술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바. ‘미술 창작’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1) 다양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 (2) 학습 내용은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
 - (3)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 (4)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 (5) 이해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6) 표현 활동 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가’, ‘나’, ‘다’항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라’항 이후로는 내용 영역별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의 ‘교수·학습 방법’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의 학습이 미술 문화적 소양이나

실생활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안내가 좀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통 교과에서 미술 감상 학습이 일반 선택 과목의 미술 감상 학습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마) 평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관한 일반적·특수적 지침,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평가 결과 처리,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제시하되,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구체적 지침이 되도록 하여 교육의 실제에서 평가의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과 평가의 관점, 평가 방법,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한다.
- 다.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라.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 마. 평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인다.
- 바. 평가 결과는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한다.
- 사. 각 영역별 평가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미술의 이해’ : 지식, 이해, 적용, 발표력, 태도 등
 - (2) ‘미술 감상’ :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판단력, 발표력, 태도 등
 - (3) ‘미술 창작’ : 표현력, 상상력, 관찰력, 재료 및 용구의 선택과 활용,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이해의 적용, 태도 등

앞서 교수·학습 방법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 영역별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미술 교과와 차별화된 미술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미술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미술 이론’, ‘미술 실기’이다. 총론 차원에서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정의한다. 총론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설명하면서 ‘심화 선택 과목은 1학년 과정의 성공적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홍후조 외, 1998). 다른 교과를 예로 든다면, 수학과와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마치고 심화 선택 과목인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을 순서대로 이수하도록 위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미술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이나 2, 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과의 이수 체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학교에서 미술과의 심화 선택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박소영, 외, 2004). 심화 선택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이 공통 교과나 일반 선택 과목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것처럼 ‘예술에 관한 교과’에서 선택되는 과목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은 현재 54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미술 이론과 관련된 과목은 ‘예-10. 미술 이론’이고, 미술 실기와 관련된 과목은 ‘예-12. 소묘, 예-13. 회화, 예-14. 판화, 예-15. 조소, 예-16. 디자인, 예-17. 공예, 예-18. 서예, 예-19. 영상 미술’이다. ‘예-10. 미술 이론’과 ‘예-12. 소묘’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0. 미술 이론>

<목표> 미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체계>	
가. 미술의 이해	
(1) 미술의 특성	(2) 미술의 역할
나. 미술의 구조	
(1) 조형 요소	(2) 조형 원리
다. 미술의 영역	
(1) 회화	(2) 판화
(3) 조소	(4) 디자인
(5) 공예	(6) 서예
(7) 영상 미술	(8) 기타

<예-12. 소묘>

<목표> 소묘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용 체계>	
가. 이해	
(1) 소묘의 특성	(2) 소묘의 종류
(3) 재료 및 용구	(4) 표현 기법
나. 표현	
(1) 크로키	(2) 데 생
(3) 정밀 묘사	(4) 기 타

두 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술에 관한 교과와 과목별 교육과정은 예술 고등학교의 전문인 교육에 적합하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 체계가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와 ‘미적 체험, 표현, 감상’과는 전혀 다른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용 분류의 기준이 주로 창작 분야의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계 학교의 미술 교육이 창작 분야의 탈장르를 지향하고 있으며, 좀더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계 교육과정으로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루어진 ‘미술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박소영·양윤정·이수경, 2004), ‘미술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양윤정·박소영·이성도, 2005)에서 이루어진 미술과 선택 과목의 실태 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실태

1) 예술 계열 집중 과정 운영

미술과 선택 과목들은 대학 입학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일반계 학교에서 선택률이 저조하며 심화 선택 과목의 경우 대체로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만 선택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이 있었다(박순경 외 2004; 박소영·양윤정·이수경,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대상 학교 200개중 50%를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선정하여 미술과 선택 과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중 과정의 설치 여부에 따라 선택 과목별 운영 실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집중 과정 운영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예술 계열 집중 과정 설치 여부

전국의 집중 과정 운영과 관련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1,192개교 가운데 118개교가 예체능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III-3〉 전국의 예체능 집중 과정 설치 학교수(2005. 3. 1현재)

지역	과정			계
	미술과정	예능과정	예체능 통합과정	
서울	28	7	32	67
경기	1	10	25	36
인천	0	0	2	2
부산	0	0	5	5
대전	0	0	2	2
전북	0	0	2	2
경남	0	0	2	2
충남	0	1	0	1
경북	0	0	1	1
계	29	18	71	118

나)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의 명칭

예술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해 설치된 집중 과정의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미술과정, 예술과정, 예체능과정 등이 있었고, 이중에서 '예체능 과정'이 58.2%로 가장 많았다.

〈표III-4〉 예술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해 설치된 집중 과정(학교 소재지별) N(%)

	집중과정			계
	미술과정	예술과정	예체능과정	
서울특별시	20(55.6)	0(0)	16(44.4)	36(100.0)
광역시	0(0)	0(0)	5(100.0)	5(100.0)
중소도시	4(20.0)	1(5.0)	15(75.0)	20(100.0)
읍면지역	2(33.3)	1(16.7)	3(50.0)	6(100.0)
전체	26(38.8)	2(3.0)	39(58.2)	67(100.0)

2) 미술과 생활 과목 운영

학교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의 운영 실태는 집중 과정의 설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술과 생활 과목의 개설 여부, 개설 시기와 이수 단위, 개설 과목 명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학교 수업에서 ‘미술’과 ‘미술과 생활’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가) 과목 개설 여부

2004년 실태 분석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의 약 70%의 학교가 미술과 생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 결과, ‘미술과 생활’은 집중 과정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집중 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78.3%의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5〉 미술과 생활 과목 개설 여부 N(%)

선택 과목	집중 과정 설치 여부	예	아니오	계
미술과 생활	설치	34(77.3)	10(22.7)	44(100.0)
	미설치	47(78.3)	13(21.7)	60(100.0)

나) 미술과 생활 과목 개설 학기와 단위 수

본 설문 조사에서 ‘미술과 생활’은 2학년 1학과 2학기에 걸쳐 2단위씩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04년 실태 조사에서 분석된 ‘2학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위 수는 학기별로 2단위씩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표Ⅲ-6〉 미술과 생활 과목 개설 학기와 단위 수 N(%)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11단위	계
2학년 1학기	4(6.3)	52(82.5)	4(6.3)	2(3.2)	1(1.6)	63(100.0)
2학년 2학기	2(3.3)	52(86.7)	4(6.7)	2(3.3)	0(0)	60(100.0)
3학년 1학기	1(9.1)	6(54.5)	2(18.2)	1(9.1)	1(9.1)	11(100.0)
3학년 2학기	1(14.3)	3(42.9)	2(28.6)	1(14.3)	0(0)	7(100.0)

다)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

학생용 설문지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미술과 생활’의 경우 선택하는 이유는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40.3%),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32.0%)가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의 필수 이수 과목이라서’, ‘다른 과목보다 선호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Ⅲ-7〉 미술과 생활 과목 선택 이유(학생) N(%)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	미술을 좋아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서	기타	계
97(32.0)	122(40.3)	75(24.8)	4(1.3)	5(1.7)	303(100.0)

라)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에 70%이상이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3학년에서는 배우지 않음’, ‘이론보다 실기를 중요시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Ⅲ-8〉 미술과 생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학생) N(%)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진로와 관련이 없어서	수능 시험과 관련이 없어서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수업 준비가 많아서	평가가 부담스러 워서	기타	계
156(75.0)	22(10.6)	10(4.89)	9(4.3)	5(2.4)	1(.5)	5(2.4)	208(100.0)

3)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운영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개설 여부, 개설 시기와 이수 단위, 개설 과목 명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가) 과목 개설 여부

2004년 실태 분석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의 약 25%가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는 집중 과정 설치 학교에서는 각각 73.2%와 96.4%로 개설하고 있으며, 집중 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각각 12.0%와 32.3%가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개설 여부 N(%)

선택과목	집중과정 설치 여부	예	아니오	계
미술 이론	설치	30(73.2)	11(26.8)	41(100.0)
	미설치	3(12.0)	22(88.8)	25(100.0)
미술 실기	설치	53(96.4)	2(3.6)	55(100.0)
	미설치	10(32.3)	21(67.7)	31(100.0)

나)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개설 학기와 단위 수

2004년 연구에서는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를 구분하지 않고 심화 선택 과목의 개설 현황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에서 2학년에서는 학기별 2단위로 총 4단위가 많았고, 3학년에서는 학기별 4단위로 총 8단위가 많았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미술 이론’은 2학년과 3학년에 2, 3, 6단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실기’의 경우는 1단위부터 11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술 실기 과목의 경우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0〉 미술 이론 과목 이수 시기와 단위 N(%)

	2단위	3단위	6단위	계
2학년 1학기	11(78.6)	2(14.3)	1(7.1)	14(100.0)
2학년 2학기	12(92.3)	0(0)	1(7.7)	13(100.0)
3학년 1학기	9(56.3)	7(43.8)	0(0)	16(100.0)
3학년 2학기	9(60.0)	6(40.0)	0(0)	15(100.0)

〈표III-11〉 미술 실기 과목 이수 시기와 단위 N(%)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7단위	8단위	9단위	10단위	11단위	계
2학년 1학기	0 (.0)	6 (23.1)	3 (11.5)	5 (19.2)	2 (7.7)	3 (11.5)	1 (3.8)	4 (15.4)	0 (.0)	0 (.0)	2 (7.7)	26 (100)
2학년 2학기	0 (.0)	6 (26.1)	1 (4.3)	5 (21.7)	1 (4.3)	4 (17.4)	1 (4.3)	3 (13.0)	0 (.0)	0 (.0)	2 (8.7)	23 (100)
3학년 1학기	1 (2.0)	3 (5.9)	6 (11.8)	10 (19.6)	3 (5.9)	6 (11.8)	7 (13.7)	7 (13.7)	2 (3.9)	1 (2.0)	5 (9.8)	51 (100)
3학년 2학기	0 (.0)	4 (8.0)	5 (10.0)	10 (20.0)	3 (6.0)	7 (14.0)	7 (14.0)	6 (12.0)	2 (4.0)	1 (2.0)	5 (10.0)	50 (100)

다) 단위 학교에 개설된 심화 선택 과목 명

2004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기별로 개설하는 과목 명을 적어 달라는 자유 응답 결과, 2학년에서는 미술 이론, 3학년에서는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기별 미술 실기 내용을 적어달라는 자유 응답 결과에서는 대체로 소묘(텍생, 석고 소묘, 인체 소묘), 나머지는 회화, 조소, 수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6년도 설문 조사에서는 미술 이론 과목과 관련해서 ‘미술 이론’이 80%, ‘미술사’가 20%로 나타났다. 미술 실기 과목과 관련해서 ‘소묘’, ‘회화’, ‘미술 실기’, ‘디자인’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소묘 실습’, ‘회화 실기’, ‘미술 실기 1, 2’, ‘전공 실기’, ‘디자인 일반’ 등의 과목 명이 있다. 또한, ‘조소’, ‘공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실무’, ‘조형’, ‘조형 실습’, ‘수채화’, ‘채화’, ‘판화’, ‘만화 창작’ 등의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는 ‘미술 실기’라는 교육과정 편제의 과목 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전공 명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또한 전공 명에도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창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형’, ‘조형 실습’ 등의 전공 공통의 기초 과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화 선택 과목은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었다. 개설 과목들은 예술 계열 과목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심지어 실업계 디자인 실무 과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계열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목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Ⅲ-12〉 미술 이론 개설 과목 명(복수응답) N(%)

	미술이론	미술사	계
2학년 1학기	8(66.7)	4(33.3)	12(100.0)
2학년 2학기	10(71.4)	4(28.6)	14(100.0)
3학년 1학기	12(80.0)	3(20.0)	15(100.0)
3학년 2학기	12(80.0)	3(20.0)	15(100.0)

〈표Ⅲ-13〉 미술 실기 개설 과목 명(복수응답) N(%)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소묘	7(33.3)	4(22.2)	17(37.8)	18(37.5)
소묘실습	0.0	0.0	1(2.2)	1(2.1)
회화	5(23.8)	4(22.2)	15(33.3)	15(31.3)
회화실기	1(4.8)	1(5.6)	0.0	0.0
미술실기	4(19.0)	3(16.7)	11(24.4)	12(25.0)
미술실기1	1(4.8)	0.0	0.0	0.0
미술실기2	0.0	1(5.6)	0.0	0.0
전공실기	2(9.5)	2(11.1)	3(6.7)	3(6.3)
예체능 전공실기	0.0	0.0	1(2.2)	1(2.1)
공예	2(9.5)	2(11.1)	1(2.2)	1(2.1)
디자인	2(9.5)	2(11.1)	12(26.7)	14(29.2)
디자인 일반	0.0	0.0	0.0	1(2.1)
조소	0.0	0.0	1(2.2)	1(2.1)
애니메이션	1(4.8)	0.0	0.0	1(2.1)
애니메이션 실무	0.0	0.0	0.0	1(2.1)
조형	1(4.8)	1(5.6)	0.0	0.0
조형실습	0.0	0.0	1(2.2)	1(2.1)
수채화	0.0	0.0	2(4.4)	2(4.2)
채화	1(4.8)	0.0	0.0	0.0
판화	0.0	1(5.6)	1(2.2)	1(2.1)
만화장작	0.0	0.0	0.0	1(2.1)
계	21(100.0)	18(100.0)	45(100.0)	48(100.0)

라)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

학생용 설문지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미술 이론’은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53.2%), ‘미술 실기’는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48.9%)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미술 실기’는 ‘다른 과목보다 선호해서’ 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III-14〉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선택 이유(학생) N(%)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	미술을 좋아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서	기타	계
미술이론	116(53.2)	70(32.1)	31(14.2)	1(5)	0(0)	218(100.0)
미술실기	92(29.8)	151(48.9)	59(19.1)	6(1.9)	1(3)	309(100.0)

마)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두 과목 모두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에 70%이상이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미술 이론’은 ‘필요성이 없어서’, ‘이론보다 실기를 중요시해서’, ‘미술 실기’는 ‘필요성이 없어서’로 응답했다.

〈표III-15〉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선택하지 않는 이유(학생) N(%)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진로와 관련이 없어서	수능 시험과 관련이 없어서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수업 준비가 많아서	평가가 부담스러 워서	기타	계
미술 이론	200(71.4)	36(12.9)	22(7.9)	8(2.9)	5(1.8)	0(0)	9(3.2)	280 (100.0)
미술 실기	149(70.6)	31(14.7)	12(5.7)	11(5.2)	5(2.4)	2(9)	1(5)	211 (100.0)

나.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개선 방향

2004년(박소영·양윤정·이수경, 2004), 2005년(양윤정 외, 2005)에서는 고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성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1) 미술과 생활 과목

가)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의 적절성

현행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전문가가 ‘그렇다’에 50%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Ⅲ-16>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적절성 N(%)

	교사			전문가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성격	95(84.8)	17(15.2)	112(100.0)	24(77.4)	7(22.6)	31(100.0)
과목 수	62(79.5)	16(20.5)	78(100.0)	17(68.0)	8(32.0)	25(100.0)
과목 명	63(81.8)	14(18.2)	77(100.0)	13(52.0)	12(48.0)	25(100.0)
단위수	59(72.0)	23(28.0)	82(100.0)	16(64.0)	9(36.0)	25(100.0)

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개선 방향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III-17〉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개선 방향

	교사	전문가
과목 수	각 장르별 실기 내용에 따른 교재만큼 늘린다. 미학, 미술사 등 이론적 근거가 될만한 교과 개설이 필요하다.	2과목, 3과목
과목 명	미술과 생활, 미술, 미술사, 미술2, 디자인, 순 수 미술, 미술과 문화, 시각문화와 미술	미술과 문화, 미술과 생활, 시각언어, 시각예술 과 인문, 미술, 교양미술, 디자인과 문화, 미술 의 이해, 미술이론, 조형예술, 미술의 역사와 철학적 기초, 미술과 삶, 현대사회와 시각예술, 미디어 시대의 미술, 예술문화의 이해
단위수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8단위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	2, 4, 6, 8단위 많을수록 좋다.

개선 방향에서는 과목 수는 현재보다 한 두 과목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수 단위 수는 표현 활동에 필요한 단위 수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과목 명에 대한 의견에는 현재의 과목 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그 외에 이론적인 내용이나 시각 문화와 같은 새로운 미술 내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다) 교육과정의 적절성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과목 교육과정이 ‘미술과 생활’ 만 개발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관련된 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① 성격, 목표

2004년 설문 조사에서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가 적절한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사, 전문가 모두 ‘적절한 편이다’에 각각 67.2%, 75.0%의 응답을 보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성격과 목표를 구분하여 적절성을 평가했다. 성격에 대해서는 ‘그렇다’에 교사는 86.4%, 전문가는 64.5%로 응답했다. 또한, 목표에 대해서는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사가 전문가보다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위 항목별로는 ‘미술과 미술 문화 이해’에 대해서 교사와 전문가가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Ⅲ-18>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과 목표의 적절성 N(%)

		교사			전문가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성격	'미술과 생활'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을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114 (86.4)	18 (13.6)	132 (100.0)	20 (64.5)	11 (35.5)	31 (100.0)
	생활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112 (96.6)	4 (3.4)	116 (100.0)	26 (89.7)	3 (10.3)	29 (100.0)
목표	가. 미술과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111 (96.5)	4 (3.5)	115 (100.0)	26 (86.7)	4 (13.3)	30 (100.0)
	나.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99 (89.2)	12 (10.8)	111 (100.0)	22 (73.3)	8 (26.7)	30 (100.0)
	다.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96 (84.2)	18 (15.8)	114 (100.0)	17 (58.6)	12 (41.4)	29 (100.0)

②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목표

미술과 생활 과목의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에는 '미술과 미술 문화의 이해'에 교사 '59.7%', 전문가 '73.3%'로 모두 높게 응답했다.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한 내용은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교사 '33.3%', 전문가 '16.7%'로 응답했다. 미술과 생활 과목은 주로 미술 문화나 실용성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미술 감상과의 관련성은 약한 것으로 보여 졌다.

<표Ⅲ-19> 미술과 생활 과목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복수 응답) N(%)

	교사	전문가
미술과 미술 문화 이해	77(59.7)	22(73.3)
미술품의 가치 판단	8(6.2)	3(10.0)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43(33.3)	5(16.7)
기타	4(3.1)	0(0)
계	129(100.0)	30(100.0)

③ 내용 구성의 타당성

2004년 설문 조사에서는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타당한 편이다'에 교사 75.0%, 전문가 62.5%가 응답했다.

④ 내용의 필요성

내용 영역별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전문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두 집단 모두 '미술의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비해서 전문가는 '미술과 다른 분야의 관계 이해'나 '문화의 발전과 교류'를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었다.

<표III-20>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의 필요성 N(%)

영역	내용		내용의 필요성			계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미술의 이해	·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교사	73(74.5)	25(25.5)	0(0)	98(100.0)
		전문가	20(71.4)	7(25.0)	1(3.6)	28(100.0)
	·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기	교사	62(62.6)	35(35.4)	2(2.0)	99(100.0)
		전문가	17(60.7)	8(28.6)	3(10.7)	28(100.0)
	·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이해하기	교사	58(59.8)	34(35.1)	5(5.2)	97(100.0)
		전문가	19(67.9)	9(32.1)	0(0)	28(100.0)
	·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교사	61(62.2)	36(36.7)	1(1.0)	98(100.0)
		전문가	19(67.9)	8(28.6)	1(3.6)	28(100.0)
미술 감상	·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교사	65(66.3)	30(30.6)	3(3.1)	98(100.0)
		전문가	11(42.3)	13(50.0)	2(7.7)	26(100.0)
	· 시대별, 지역별로 미술품 감상하기	교사	61(61.0)	36(36.0)	3(3.0)	100(100.0)
		전문가	11(39.3)	17(60.7)	0(0)	28(100.0)
	·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	교사	61(61.0)	37(37.0)	2(2.0)	100(100.0)
		전문가	17(63.0)	9(33.3)	1(3.7)	27(100.0)
미술 창작	·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 환경 꾸미기	교사	59(59.0)	38(38.0)	3(3.0)	100(100.0)
		전문가	17(60.7)	8(28.6)	3(10.7)	28(100.0)
	·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 제작하기	교사	60(60.0)	36(36.0)	4(4.0)	100(100.0)
		전문가	14(50.0)	10(35.7)	4(14.3)	28(100.0)
	·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하기	교사	66(66.0)	31(31.0)	3(3.0)	100(100.0)
		전문가	16(57.1)	12(42.9)	0(0)	28(100.0)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전문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보통이다’가 ‘필요하다’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전문가의 응답 중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중심의 감상’이나 ‘시대별, 지역별 미술품 감상’ 등이다. 미술사나 감상이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들은 미술 창작에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 달리 전문가는 ‘필요하다’와 ‘보통이다’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⑤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절성

2006년도 설문 조사에서는 ‘미술과 생활’ 내용 영역별 수준에 대해서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 ‘보통이다’ 이상에 응답하고 있어서 내용 수준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내용의 필요성과 비교해서 각 항목의 학습량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II-21>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 수준의 적절성 N(%)

영역	내용		내용의 수준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계
미술의 이해	·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교사	60(46.5)	67(51.9)	2(1.6)	129(100.0)
		전문가	17(54.8)	14(45.2)	0(0)	31(100.0)
	·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기	교사	42(32.6)	81(62.8)	6(4.7)	129(100.0)
		전문가	11(35.5)	17(54.8)	3(9.7)	31(100.0)
	·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이해하기	교사	44(34.6)	69(54.3)	14(11.0)	127(100.0)
		전문가	15(48.4)	12(38.7)	4(12.9)	31(100.0)
·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교사	40(31.0)	71(55.0)	18(14.0)	129(100.0)	
	전문가	16(51.6)	12(38.7)	3(9.7)	31(100.0)	
미술 감상	·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교사	47(37.3)	70(55.6)	9(7.1)	126(100.0)
		전문가	14(45.2)	12(38.7)	5(16.1)	31(100.0)
	· 시대별, 지역별로 미술품 감상하기	교사	48(37.5)	67(52.3)	13(10.2)	128(100.0)
		전문가	15(48.4)	13(41.9)	3(9.7)	31(100.0)
	·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	교사	45(35.4)	73(57.5)	9(7.1)	127(100.0)
		전문가	10(33.3)	17(56.7)	3(10.0)	30(100.0)
미술 창작	·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 환경 꾸미기	교사	40(32.0)	73(58.4)	12(9.6)	125(100.0)
		전문가	9(29.0)	16(51.6)	6(19.4)	31(100.0)
	·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 제작하기	교사	38(30.2)	70(55.6)	18(14.3)	126(100.0)
		전문가	10(32.3)	15(48.4)	6(19.4)	31(100.0)
	·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하기	교사	38(30.4)	67(53.6)	20(16.0)	125(100.0)
		전문가	12(38.7)	17(54.8)	2(6.5)	31(100.0)

학생들에게 ‘미술과 생활’ 수업을 받으면서 각 과목들의 내용 수준과 학습량은 어떠한지를 질문했다. 세 과목에 대한 내용 수준과 학습량에 대해서 대체로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표III-22〉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 수준 및 학습량의 적절성(학생) N(%)

내용 수준				학습량			
높다	보통이다	낮다	계	많다	보통이다	적다	계
40(13.4)	233(78.2)	25(8.4)	298(100.0)	35(12.0)	203(69.5)	54(18.5)	292(100.0)

⑥ 내용의 연계성

2004년 설문 조사에서는 현재 1학년 미술 과목과 2, 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연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교사와 전문가가 모두 ‘적절한 편이다’에 각각 68.8%, 56.3%에 응답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에도 43.8%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서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과 생활’ 수업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미술’ 수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1 미술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의견에 44.9%가 응답했다.

〈표III-23〉 내용 연계성(학생) N(%)

	인문	자연	미술	미술 외 예체능	기타	전체
고1 미술과 거의 비슷하다	21(42.0)	8(72.7)	93(45.6)	8(36.4)	2(33.3)	132(44.9)
고1 미술을 좀더 심화시켰다	19(38.0)	0(0.0)	42(20.6)	4(18.2)	1(16.7)	67(22.8)
고1 미술보다 더 확대된 전문내용을 다룬다	4(8.0)	1(9.1)	54(26.5)	10(45.5)	0(0.0)	69(23.5)
고1 미술보다 더 생활관련 내용을 다룬다	4(8.0)	1(9.1)	11(5.4)	0(0.0)	3(50.0)	19(6.3)
입시 위주의 미술만 한다	6(4.0)	1(9.1)	3(1.5)	0(0.0)	0(0.0)	6(2.0)
1학년 때만 배운다	0(0.0)	0(0.0)	1(0.5)	0(0.0)	0(0.0)	1(0.3)
계	50(100.0)	11(100.0)	204(100.0)	22(100.0)	6(100.0)	294(100.0)

⑦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적절성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표Ⅲ-24〉 미술과 생활 과목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N(%)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교사			전문가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가. 학습 지도 계획 시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존중	110 (88.7)	14 (11.3)	124 (100.0)	22 (73.3)	8 (26.7)	30 (100.0)
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행사 또는 계절 등 고려	93 (77.5)	27 (22.5)	120 (100.0)	22 (73.3)	8 (26.7)	30 (100.0)
다.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114 (91.9)	10 (8.1)	124 (100.0)	27 (93.1)	2 (6.9)	29 (100.0)
라. 미술의 이해 지도 시 유의 사항: 멀티미디어 활용, 표현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 고려	108 (87.1)	16 (12.9)	124 (100.0)	26 (86.7)	4 (13.3)	30 (100.0)
마. 미술 감상 지도 시 유의 사항: 다양한 감상 관점 활용, 미술 용어 이해 및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이해 및 표현 활동과의 연계 고려, 미술 품 존중 태도 함양	109 (89.3)	13 (10.7)	122 (100.0)	25 (83.3)	5 (16.7)	30 (100.0)
바. 미술 창작 지도 시 유의 사항: 다양한 발상 지도,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학습 내용 선정,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도, 환경 문제 고려, 이해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 고려, 주변 정리	110 (88.7)	14 (11.3)	124 (100.0)	24 (77.4)	7 (22.6)	31 (100.0)

〈표III-25〉 미술과 생활 과목 평가의 적절성 N(%)

미술과 생활 과목의 평가	교사			전문가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가.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평가	89 (80.2)	22 (19.8)	111 (100.0)	22 (73.3)	8 (26.7)	30 (100.0)
나.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의 균형 있는 평가	106 (90.6)	11 (9.4)	117 (100.0)	26 (86.7)	4 (13.3)	30 (100.0)
다.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99 (86.1)	16 (13.9)	115 (100.0)	25 (83.3)	5 (16.7)	30 (100.0)
라. 3가지 내용 영역을 모두 평가	102 (88.7)	13 (11.3)	115 (100.0)	25 (83.3)	5 (16.7)	30 (100.0)
마. 평가 기준 제시	108 (93.1)	8 (6.9)	116 (100.0)	29 (93.5)	2 (6.5)	31 (100.0)2
바. 개인별 성장 수준 파악을 위한 결과의 누가 기록	93 (82.3)	20 (17.7)	113 (100.0)	23 (79.3)	6 (20.7)	29 (100.0)
사. 각 영역별 평가 요소	103 (92.0)	9 (8.0)	112 (100.0)	26 (89.7)	3 (10.3)	29 (100.0)

⑧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제시 방식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현행 제시 방식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전문가가 달랐다. 전문가들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제시 방식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에 높게 응답했으나,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35.4%)에, 평가에서는 ‘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36.6%)에 높게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보다 평가 상황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좀더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내용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게 보고 있었다. 선택 과목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항을 개선할 때 구체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기타 의견에서는 교육과정보다는 해설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Ⅲ-26〉 미술과 생활 과목 교수·학습 방법 제시 방식 N(%)

	교사	전문가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6(35.4)	13(41.9)
현행대로 한다	26(20.0)	6(19.4)
좀더 간략하게 제시한다	23(17.7)	4(12.9)
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	35(26.9)	4(12.9)
*기타	0(0)	4(12.9)
계	130(100.0)	31(100.0)

* (전문가)기타: 교수 학습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양하게 제시하여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시 내용을 최소화한다.

〈표Ⅲ-27〉 미술과 생활 과목 평가 제시 방식 N(%)

	교사	전문가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2(24.4)	10(30.3)
현행대로 한다	31(23.7)	10(30.3)
좀더 간략하게 제시한다	19(14.7)	6(18.2)
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	48(36.6)	6(18.2)
*기타	1(8)	1(3.0)
계	131(100.0)	33(100.0)

* (교사)기타: 전 학생을 모두 교사 혼자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기타: 평가방향 제시와 교육과정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미술과 생활 과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004년 실태 조사에서 미술과 생활 과목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 응답은 다음과 같다.

<편성 운영 및 제도 관련>

- 내신 성적 미포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어렵다.

- 교사의 수업 시수에 문제가 있다.
- 학교의 여건에 따른 집단 선택이 문제이다.
- 교사의 수급이 개선되어야 한다.
- 지도 자료의 공유와 보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학생보다 교사중심의 선택이 강하다.

<과목 내용 구성 관련>

- 미술과 생활 교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실기 수업에 대한 부담이 있다.
-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2)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가)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의 적절성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에 대해서는 교사와 전문가가 대체로 ‘그렇다’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미술 이론 과목 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에 56.0%로 응답했다. 최근에는 대학의 과목 명도 ‘이론’, ‘개론’ 등의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술에서 ‘이론’이 배워도 전이력이 없는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II-28>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적절성 N(%)

	교사			전문가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성격	85(82.5)	18(17.5)	103(100.0)	23(82.1)	5(17.9)	28(100.0)	
과목 수	55(72.4)	21(27.6)	76(100.0)	15(60.0)	10(40.0)	25(100.0)	
과목 명	미술 이론	58(74.4)	20(25.6)	78(100.0)	11(44.0)	14(56.0)	25(100.0)
	미술 실기	55(65.5)	29(34.5)	84(100.0)	15(60.0)	10(40.0)	25(100.0)
단위 수	미술 이론	51(68.0)	24(32.0)	75(100.0)	18(72.0)	7(28.0)	25(100.0)
	미술 실기	52(62.7)	31(37.3)	83(100.0)	14(56.0)	11(44.0)	25(100.0)

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의 개선 방향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III-29〉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의 개선 방향

		교사	전문가
과목 수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전공 영역별 과목으로 조절해야 한다. 분야별 다양한 과목이 필요하다.	1, 3, 4, 5과목 실기과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과목 명	미술 이론	미술이론, 미술사, 미술2, 미술과 진로, 미술비평, 미술일반, 미술과 세계, 관찰과 표현2, 미디어와 미술, 미술과 역사	미술사, 미술이론, 미술이론 및 실기, 미술비평, 조형 예술이론, 미학과 미술, 디자인 이론, 미술감상, 조형 원리, 조형예술, 시각예술, 미술의 역사와 철학적 기초, 미술과 사회사, 미술의 관점, 미술이론 심화, 관심을 끌 수 있는 과목 명으로 통합적 명칭 필요.
	미술 실기	소묘, 디자인, 회화, 미술실기, 공예, 수채화, 전공실기, 조소, 미술2,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일반, 평면실기, 입체실기, 관찰과 표현2, 조형원리와 표현, 시각디자인	평면표현, 입체표현, 영상표현, 미술실기, 디자인실기, 조형예술실기, 미술과 직업, 미술과 나, 미술과 표현, 미디어 시대의 미술, 회화나 조소 외 미술, 환경예술, 구상의 표현, 발상과 표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수	미술 이론	1, 2, 3, 4, 6단위, 11단위 이상	2, 4, 16단위 많을수록 좋다. 미술이론, 미술사 각각 4단위로
	미술 실기	2, 3, 4, 5, 6, 7, 8, 10단위, 11단위 이상 많을수록 좋다.	6, 8, 16단위 실제로 미술 전공을 하려면 좀더 필요하다 많을수록 좋다.

과목 수에 대한 개선 의견은 지금보다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실기 과목을 세분화하거나 좀더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과목 명에 대한 개선 의견에는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에 대한 각 집단들의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술 이론 과목 명에는 미술사, 미술 비평, 미술과 진로 등 미술 이론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미술의 내용을 분화하고 심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미술 실기에는 교사들은 회화, 조소, 디자인 등 기존의 전공 영역명이나 아예 예술 고등학교 ‘전공 실기’와 같은 과목 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평면 표현, 입체 표현, 영상 표현, 조형예술실기, 미술과 표현, 미디어 시대의 미술 등 새로운 미술 분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미술 실기의 경우 실기의 범위를 현재와 같은 대학 전공 분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다) 교육과정의 적절성

현행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 두 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예술 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의 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전문 과목 내용의 필요성,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질문했다.

① 현행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관련 전문 과목의 내용 영역별 필요성

현행 예술 계열 교육과정의 전문 과목인 미술 이론 과목의 내용 영역 중 필요한 내용 순위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미술의 이해’에 대하여 교사 39.8%, 전문가 48.1%로 1순위에 응답했다. 2순위에 대해서는 교사는 ‘미술사’에 31.7%, 전문가는 ‘미술의 구조’에 34.6%로 다르게 응답했다. 3순위는 교사는 ‘미술 감상’에 31.7%, 전문가는 ‘미술사’에 30.8%로 응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들은 ‘미술 관련 진로 탐색’, 전문가들은 ‘통합적인 교육과정’, ‘미술과 커뮤니케이션’, ‘미술과 미디어’, ‘사회와 미술 문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III-30〉 미술 이론 전문 과목의 내용 영역별 필요성 N(%)

	교사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미술의 이해: 미술의 특성, 미술의 역할	41 (39.8)	11 (10.9)	15 (14.9)	13 (48.1)	2 (7.7)	3 (11.5)
미술의 구조: 조형 요소, 조형 원리	9 (8.7)	24 (23.8)	15 (14.9)	3 (11.1)	9 (34.6)	2 (7.7)
미술의 영역별 이론: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영상 미술, 기타	22 (21.4)	17 (16.8)	15 (14.9)	3 (11.1)	5 (19.2)	4 (15.4)
미술사: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22 (21.4)	32 (31.7)	23 (22.8)	4 (14.8)	6 (23.1)	8 (30.8)
미술 감상	9 (8.7)	17 (16.8)	32 (31.7)	2 (7.4)	3 (11.5)	6 (23.1)
*기타	0 (.0)	0 (.0)	1 (1.0)	2 (7.4)	1 (3.8)	3 (11.5)
계	103 (100.0)	101 (100.0)	101 (100.0)	27 (100.0)	26 (100.0)	26 (100.0)

*(교사)기타: 미술관련 진로 탐색(3순위)

(전문가)기타: 통합적인 교육과정 개발, 미술과 커뮤니케이션(1순위), 미술과 창작(2순위), 미술비평, 미술과 미디어, 사회와 미술문화(3순위)

현행 예술 계열 교육과정의 미술 실기 관련 전문 과목의 내용 중 필요한 순위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교사는 ‘소묘’에 28.4%, 전문가는 ‘조형의 기초’에 28.6%가 1순위로 응답했다. 2순위로는 교사는 ‘회화’ 37.1%, 전문가는 ‘디자인’ 22.2%에 응답했다. 3순위는 교사는 ‘디자인’ 28.2%, 전문가는 ‘영상 미술’ 25.0%에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들은 조형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감상 연구 등을 제시했고, 전문가들은 공통 실기로서 소묘와 조형의 기초만 지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III-31〉 미술 실기 전문 과목의 내용 영역별 필요성 N(%)

	교사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묘	27(28.4)	4(4.5)	2(2.4)	5(23.8)	2(11.1)	1(6.3)
회화	15(15.8)	33(37.1)	13(15.3)	2(9.5)	2(11.1)	2(12.5)
판화	0(0)	3(3.4)	3(3.5)	0(0)	0(0)	0(0)
조소	0(0)	2(2.2)	14(16.5)	0(0)	1(5.6)	0(0)
디자인	12(12.6)	22(24.7)	24(28.2)	1(4.8)	4(22.2)	3(18.8)
공예	3(3.2)	1(1.1)	10(11.8)	0(0)	0(0)	3(18.8)
서예	0(0)	1(1.1)	1(1.2)	0(0)	0(0)	0(0)
영상 미술	1(1.1)	10(11.2)	10(11.8)	1(4.8)	2(11.1)	4(25.0)
조형의 기초	21(22.1)	9(10.1)	1(1.2)	6(28.6)	3(16.7)	1(6.3)
실기 영역 모두	15(15.8)	4(4.5)	6(7.1)	4(19.0)	3(16.7)	1(6.3)
기타	1(1.1)	0(0)	1(1.2)	2(9.5)	1(5.6)	1(6.3)
계	95(100.0)	89(100.0)	85(100.0)	21(100.0)	18(100.0)	16(100.0)

* (교사)기타: 조형관련 교육필요(1순위), 감상연구(3순위)

(전문가)기타: 관찰표현(공예), 실기영역 모두 웹상의 전자 교과서로(1순위), 디자인(2순위), 공통실기로서 소묘와 조형의 기초만 지도(3순위)

② 내용 수준과 학습량

학생들에게 ‘미술 이론’, ‘미술 실기’ 수업을 받으면서 각 과목들의 내용 수준과 학습량은 어떠한지를 질문했다. 내용 수준과 학습량에 대해서 대체로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표III-32〉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내용 수준 및 학습량의 적절성(학생)N(%)

	내용 수준				학습량			
	높다	보통이다	낮다	계	많다	보통이다	적다	계
미술이론	29(13.9)	162(77.9)	17(8.2)	208(100.0)	28(13.8)	136(67.0)	39(19.2)	203(100.0)
미술실기	53(17.9)	128(73.6)	25(8.4)	296(100.0)	54(18.7)	205(70.9)	30(10.4)	289(100.0)

라)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학생들은 미술 이론 과목과 관련해서 더 배우고 싶은 내용에 ‘서양 미술사’, ‘미술과 문화’, ‘현대 미술’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학생들은 미술 실기 과목과 관련해서 더 배우고 싶은 내용에 ‘시각디자인’, ‘사진’, ‘제품디자인’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표Ⅲ-33〉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N(%)

미술이론		미술 실기	
서양미술사	124(9.5)	시각디자인	146(10.8)
미술과 문화	108(8.3)	사진	128(9.5)
현대미술	98(7.5)	제품디자인	125(9.3)
한국미술사	73(5.6)	애니메이션	104(7.7)
시각디자인	65(5.0)	수채화	95(7.0)
미술과 사회	60(4.6)	컴퓨터그래픽	94(7.0)
재료 및 표현기법	54(4.1)	건축	73(5.4)
제품디자인	50(3.8)	소묘	67(5.0)
동양미술사	49(3.7)	유화	68(5.0)
사진	49(3.7)	금속공예	60(4.5)
작품감상	49(3.7)	염색공예	58(4.3)
미술비평	45(3.4)	재료 및 표현기법	43(3.2)
미술과 과학	44(3.4)	도자공예	42(3.1)
컴퓨터 그래픽	42(3.2)	조각	38(2.8)
색채	39(3.0)	환경디자인	29(2.2)
건축	38(2.9)	색채	26(1.9)
애니메이션	37(2.8)	수목화	21(1.6)
미술과 종교	37(2.8)	서예	21(1.6)
수채화	28(2.1)	소조	19(1.4)
미학	28(2.1)	채색화	18(1.3)
소묘	24(1.8)	조형요소, 조형원리	11(0.8)
조형요소, 조형원리	24(1.8)	작품감상	11(0.8)
작가 연구	24(1.8)	판화	7(0.5)
금속공예	17(1.3)	작가 연구	6(0.4)
유화	16(1.2)	미학	6(0.4)
염색공예	15(1.1)	미술비평	4(0.3)
환경디자인	14(1.1)	서양미술사	3(0.2)
채색화	13(1.0)	현대미술	3(0.2)
도자공예	8(0.6)	미술과 사회	3(0.2)
서예	7(0.5)	미술과 문화	3(0.2)
판화	5(0.4)	미술과 과학	3(0.2)
조각	5(0.4)	**기타	10(0.7)
수목화	4(0.3)		
소조	3(0.2)		
*기타	13(1.0)		
계	1309(100.0)	계	1348(100.0)

*미술 이론 기타 내용: 영상미술, 디자인론, 공예이론, 디자인, 채색방법, 구성, 기초이론

**미술실기 기타 내용: 미술과 종교, 발상, 표현, 한국미술사, 크로키, 채색, 인체드로잉

마)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2004년 조사에서는 보통 교과로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필요하다’에 교사는 73.4%, 전문가는 81.1%로 응답했다. 2006년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는 ‘미술 이론’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에 76.3%, 전문가는 81.3% 응답했다. ‘미술 실기’의 경우는 ‘필요하다’에 교사 77.8%, 전문가 62.5%가 응답했다.

〈표III-34〉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N(%)

		교사	전문가
미술이론	필요하다	103(76.3)	26(81.3)
	필요하지 않다	32(23.7)	6(18.8)
	계	135(100.0)	32(100.0)
미술실기	필요하다	105(77.8)	20(62.5)
	필요하지 않다	30(22.2)	12(37.5)
	계	135(100.0)	32(100.0)

바)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방안

2004년 설문 조사 결과, 심화 선택 과목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별도의 심화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47.6%로 응답했다. 이외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표III-35〉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 운영의 정상화 방안 N(%)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별도의 심화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개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심화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심화과목을 지도할 교사가 확보	지역의 전문기관에서의 전공 관련 학점 이수가 학교의 내신에서 인정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	합계
10(47.6)	8(38.1)	3(14.3)	3(14.3)	21(114.3)

이외에도 2004년 조사 결과, 미술 이론, 미술 실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 기타 자유 응답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편성 운영 및 제도 관련>

-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문제이다.
- 인문계에서는 심화 선택 과목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
- 입시 제도 개선으로 선택의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 예체능 과정의 독립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
- 수업 시수가 부족하다.
- 미술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연수 활동의 기회가 필요하다.
- 미대 진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
-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심화 선택이 필요하다.
- 미술실 등 별도 공간이 부족하다.
- 2학년 미술 교과 운영이 1학년과 연계되어야 한다.

<과목 내용 구성 관련>

- 미술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단원 개발이 필요하다.
- 이론의 내용 범위가 고등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다.
-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술 이론 과목의 명칭을 세분화해야 한다.
-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를 적정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 미술 실기의 통합 교육이 불가능하다.
- 공통된 실기 과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다양한 실기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선택 과목 체제

가) 선택 과목 체제의 일원화

허경철 외(2005)에서는 현재의 선택 과목 체제를 일원화한다는 선택중심 교육

과정 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구분한 것은 교양 증진을 위하여 과목군별로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이러한 구분이 없어도 각 교과와 필요성에 맞게 교양 증진 목적의 과목과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 조건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과목군별로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원화에 대한 2004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36〉 선택 과목 체제의 일원화 N(%)

찬성한다.	41(65.1)
반대한다.	22(34.9)
계	63(100.0)

나) 선택 과목 체제의 일원화시 적절한 성격

2004년 연구에서는 선택 과목을 일원화함에 따라 어떠한 성격이 적합한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 ‘현행의 미술과 생활 보다 좀더 문화적이고 대중적인 미술의 성격으로 과목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III-37〉 선택 과목 성격의 개선 방향 N(%)

현행의 ‘미술과 생활’ 과목의 성격을 중심으로 선택과목을 구성한다.	현행의 ‘미술과 생활’ 과목 보다 좀더 문화적이고 대중적인 미술의 성격으로 선택과목을 구성한다.	현행의 ‘미술 실기’ 과목처럼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현행의 ‘미술 이론’ 과목처럼 대학에서의 전공 이론에 가까운 내용으로 선택과목을 구성한다.	기타	합계
9(22.0)	24(58.5)	7(17.1)	3(7.3)	2(4.8)	41(109.8)

2006년 연구에서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성격을 제시할 경우, 현행의 선택 과목이 지향하는 성격에 대하여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으며, 응답은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는 1순위에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44.4%)을, 전문가는 ‘교양 증진’(56.3%)에 응답했다. 2순위는 공통적으로 ‘실생활 관련’에 높게 나타났고, 3순위에서는 교사와 전문가 모두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에 높게 응답했다.

<표Ⅲ-38> 미술과 선택 과목 일원화시 적절한 성격(우선 순위) N(%)

	교사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교양증진	49 (36.3)	24 (27.3)	28 (31.8)	0 (.0)	18 (56.3)	2 (8.3)	7 (29.2)	0 (.0)
실생활 관련	25 (18.5)	48 (54.5)	26 (29.5)	0 (.0)	4 (12.5)	15 (62.5)	5 (20.8)	1 (50.0)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	60 (44.4)	16 (18.2)	34 (38.6)	0 (.0)	8 (25.0)	7 (29.2)	12 (50.0)	0 (.0)
기타	1 (.7)	0 (.0)	0 (.0)	1 (100.0)	2 (6.3)	0 (.0)	0 (.0)	1 (50.0)
계	135 (100.0)	88 (100.0)	88 (100.0)	1 (100.0)	32 (100.0)	24 (100.0)	24 (100.0)	2 (100.0)

다) 선택 과목 체제의 일원화시 적절한 과목 명

2004년 연구에서 선택 과목을 일원화할 경우 적절한 과목 명에 대한 자유 응답 결과는 미술사 38.1%, 공예 33.3%, 건축 디자인, 디자인, 미술 실기가 14.3%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2006년 연구에서 선택 과목을 일원화할 경우 적절한 과목 명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와 전문가 모두 ‘미술과 생활’, ‘미술 실기’, ‘미술’, ‘미술 이론’ 등 기존의 과목 명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밖에 다양한 과목 명이 제시되었다.

〈표III-39〉 미술과 선택 과목 일원화시 적절한 과목 명(복수 응답) N(%)

교사		전문가	
미술과 생활	39(17.6)	미술과 생활	13(16.0)
미술실기	19(8.6)	미술과 문화	6(7.4)
미술	16(7.2)	미술실기	5(6.2)
미술이론	16(7.2)	미술의 이해	4(4.9)
디자인	10(4.5)	미술이론	2(2.5)
생활미술	10(4.5)	미술이론 및 실기	2(2.5)
회화	9(4.1)	미술 감상	2(2.5)
미술 감상	6(2.7)	미술과 시지각	2(2.5)
소묘	6(2.7)	교양미술	2(2.5)
미술사	6(2.7)	조형예술	2(2.5)
미술2	6(2.7)	시각예술	2(2.5)
미술과 문화	5(2.3)	미술과 표현	2(2.5)
미술의 이해	4(1.8)	**기타	37(45.7)
순수미술	4(1.8)		
미술일반	4(1.8)		
공예	3(1.4)		
미술교양	3(1.4)		
미술3	2(0.9)		
전공실기	2(0.9)		
조형	2(0.9)		
실용미술	2(0.9)		
미술(심화과정)	2(0.9)		
*기타	46(20.7)		
계	222(100.0)	계	81(100.0)

(교사)*기타 과목 명 - 시각미술, 조형예술, 조형예술 실기 조형예술 이론 미술과 표현 교양미술, 현대미술의 이해, 현대사회와 미술, 미술과 창조, 미술입문, 미술과 진로, 감상과 표현, 회화실기, 동양회화, 서양회화, 회화감상, 조형활동, 조형과 표현, 조형과 생활, 애니메이션, 조소, 예술, 아름다운 교과, 행복한 시간, 영상미술, 그래픽 미술, 응용미술,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 실기, 디자인 일반, 미술실기1, 미술더하기, 미술실습, 미술심화, 미술개론, 미술심화 과정, 미술의 적용과 실제, 미술과 세계, 평면실기, 입체실기, 관찰과 표현1, 창의적 계발, 미적체험, 종합 미술, 조형원리와 표현, 감상과 이해

(전문가)**기타 과목 명 - 시각미술, 평면표현, 입체표현, 영상표현, 문화이해, 시각예술과 인문, 시각예술과 생활, 시각예술과 우리들의 삶, 미술의 표현과 조형, 미술사, 미술의 세계, 미술의 발견, 작가와 작품, 디자인과 문화, 응용미술, 생활미술, 디자인 이론,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 실기, 미술의 원리, 조형예술 실기, 조형예술 이론, 예술일반, 미술교육, 미술, 미술의 역사와 철학적 기초, 미술과 사회사, 미학기초, 미술의 관점, 공예와 생활, 고등학교 미술, 현대미술의 이해, 우리나라 미술, 디자인과 미술, 미술감상 입문, 감상과 이해, 전공실기

4) 국가 수준의 예술 체육 계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계열을 제시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사, 전문가, 학생 모두 80% 이상이 ‘바람직함’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Ⅲ-40〉 국가 수준의 예술 체육 계열 교육과정 설치 N(%)

	교사	학생	전문가
매우 바람직함	64(47.4)	178(34.8)	17(56.7)
바람직함	49(36.3)	280(54.8)	7(23.3)
바람직하지 않음	15(11.1)	39(7.6)	3(10.0)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7(5.2)	14(2.7)	3(10.0)
계	135(100.0)	511(100.0)	30(100.0)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Ⅲ-41〉 국가 수준의 예술 체육 계열 교육과정 설치(학생 계열별) N(%)

	인문	자연	미술	미술 외 예체능	기타	전체
매우 바람직함	28(23.5)	8(27.6)	121(39.3)	17(39.5)	3(30.0)	178(34.8)
바람직함	71(59.7)	17(58.6)	166(53.9)	18(41.9)	7(70.0)	280(54.8)
바람직하지 않음	16(13.4)	3(10.3)	15(4.9)	5(11.6)	0(0)	39(7.6)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4(3.4)	1(3.4)	6(1.9)	3(7.0)	0(0)	14(2.7)
계	119(100.0)	29(100.0)	308(100.0)	43(100.0)	10(100.0)	511(100.0)

3.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1) 미술과 선택 과목 구성 체제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다. 특히, 이수 순서나 내용의 수준에서 두 과목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아서 교과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과 기본 교과와의 관계도 명료하지 않다. 기본 교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현재의 이중 구조가 교과별로 적용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반 선택 과 심화 선택 구분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성격이 제시되어 교과별로 과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과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예체능 과목군의 분류 근거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체육, 음악, 미술 세 교과는 서로 다른 인식 방식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과목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초등학교 통합 교과인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개발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박소영·유정애·이경연, 2004). 과목군의 개념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현재의 세 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은 각 교과의 교육적 효과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선택 방식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등 심화 선택 과목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계와 기타계 및 실업계의 유사 교과나 교육 내용의 성격과 목적이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계에서 미술 심화 교육을 예술 고등학교의 전문인 양성 교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 타당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예술 계열 학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계 학생들에게 전문성의 준비 교육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

술계 전문 교과와 과목들이 일반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이나 폭을 가진 것인지 검토 없이 무조건 가져다 쓰라는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전문성 심화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2)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첫째, ‘미술과 생활’의 ‘성격’이 총론에서 정의한 일반 선택 과목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총론적 정의는“ ‘△△과 생활’이라는 과목들은 주로 기본 교과보다 난도는 낮되, 실제 생활에의 적합성(relevance)을 강화한 과목”이다. 그러나 ‘미술과 생활’의 개발 취지에는 ‘미술을 배우고 난후 미술에 좀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미술’보다 교육 내용의 폭이 넓고 깊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술과 생활’은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미술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취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술과 생활’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와 수준이나 폭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미술과 생활 과목은 목표와 내용의 근간이 이해, 감상, 창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통 교과의 체험, 표현, 감상의 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과 생활이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통 교과 내용의 폭과 넓이를 확대한 과목이라면 내용에서 연계성 뿐만 아니라 위계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과 생활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며 공통 교과인 미술과는 학습 대상이나 교육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내용 영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화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와 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10. 미술 이론’과 ‘예-12. 소묘’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인 교육의 교육과정은 일반계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반계와 기타계 유사 교과간의 내용의 폭과 넓

이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계 학생들에게 예술계 학생들의 교육내용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미술 방면에 소질이나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심화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간 연계성,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 미술과 선택 과목 편성·운영 실태

첫째, 학교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이 선택되고 있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미술과 생활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선택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은 거의 선택되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이유를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선택권은 주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미술과 선택 과목이 선택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미술과 선택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목 개설과 함께 교육적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 계열 집중 과정은 전국 학교에서 10%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예체능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문 사회나 자연 과학 계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성적으로 대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예술 계열 진학 학생들은 전공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학교 밖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교육비의 부담과도 직결되고 있다.

셋째, 집중 과정이 주로 대학 입학과 관련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 개설되는 미술과 심화 선택 과목은 대부분이 실기 과목들이었다. 심지어는 실업계의 실무 과목까지도 개설되고 있었다.

4)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적절성

설문 조사 분석에 따르면,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며, ‘미술과 생활’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목표는 ‘미술과 미술 문화의 이해’이며,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현장에서 미술과 생활 과목은 미술 문화와 실생활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학생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목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내용 가운데서 미술사나 감상 영역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있으며 내용 영역별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학습량의 적절성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둘째, ‘미술과 생활’의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 내용 연계성 면에 있어서 교사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전문가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에도 43.8%의 응답을 보이고 있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고 1 미술 수업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44.9%나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공통 교과와 선택 과목의 연계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전문가, 교사,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

넷째, 미술 이론이라는 과목 명은 일반계 고등학교 과목 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대학의 과목 명도 ‘이론’, ‘개론’ 등의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론’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으로 비판되어 왔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는 과목 명이라고 보고 있다. 과목의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는 각 실기별 이론의 필요성이 가장 적으며, 미술사와 감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미술 실기의 내용을 지금처럼 대학 전공 분야나 대학 입학 실기 시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기 지도나 새로운 분야의 실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기 과목을 통합한 창작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지도하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나.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술과 생활’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미술 교과와 연계되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행의 교육과정 내용 중 비교적 적절하지 않은 영역들을 삭제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술 감상 영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편이었다. 미술과 생활 과목은 문화 이해나 실생활 관련성 측면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은 과목 명, 내용 체계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만큼 학교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술 이론과 관련된 개선 방향은 이론을 암기하는 내용 보다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을 기를 수 있는 비평 능력 중심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 실기는 기능 중심에서 사고를 전환하여, 새로운 시각 문화 환경에서 필요한 창작 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좀더 통합적인 안목에서 창작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

셋째, 선택 과목이 일원화 될 경우에 대비한 새로운 성격 설정이 필요하다. 교양 증진의 수준과 범위, 실생활 관련의 수준과 범위, 전공, 소질, 적성이 가지는 제한된 의미 등으로 인해 두개의 성격 구분은 서로 다른 위계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았다. 교양을 교과와 사교나 안목과 관련시킨다면, 교양 증진이 전문성의 준비 교육에서도 다를 수 있다.

미술과 선택 과목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의 대부분이 운영 여건에 관한 것이다. 심화 선택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술 계열 진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 즉, 교사, 시설, 학점 인정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IV.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가.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쟁점

외국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동향을 분석하여 구성 체제와 과목별 내용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도입 취지와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의 선택 과목 운영 실태와 교육과정 적절성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상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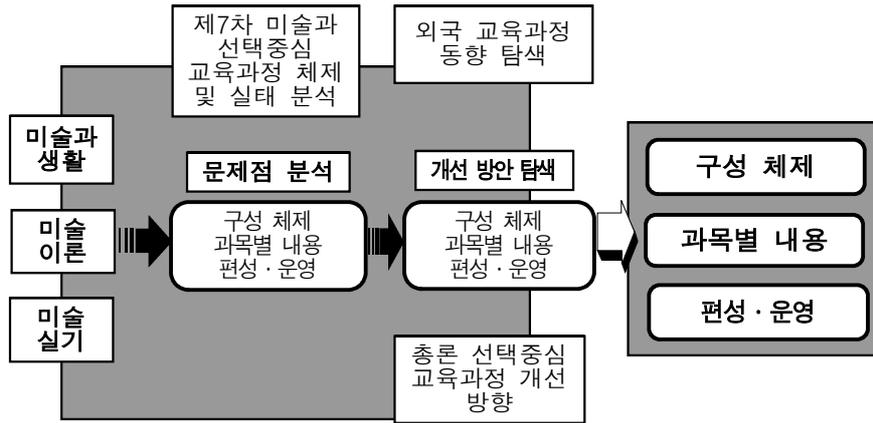
〈표 IV-1〉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쟁점

선택 과목 연구 내용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 분석	구성 체제	·예체능 과목군의 이론적, 교육적 근거 부족 - 건강, 예술적 소양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의 필요	·*표 편성·운영 지침이 현실성 없음(예술계 과목 사용) - 일반고 예술계 진학생의 전문성 준비 교육 여건 마련	·*표 편성·운영 지침이 현실성 없음(예술계 과목 사용) - 일반고 예술계 진학생의 전문성 준비 교육 여건 마련
	과목별 교육과정	·일반 선택 과목의 성격이 명료하지 못함. - 고1 미술의 심화 및 실용성 강화 내용 필요	·계열별 유사 과목간 내용의 폭과 넓이에 대한 검토 없이 예술계 과목의 수평적 사용의 문제 - 일반계 학생에 적합한 교육과정 필요	·계열별 유사 과목간 내용의 폭과 넓이에 대한 검토 없이 예술계 과목의 수평적 사용의 문제 - 일반계 학생에 적합한 교육과정 필요

IV.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제7차 미술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와 요구 분석	학교 운영 실태	· 교육청, 학교 선택에 따라 학생 선택권 제한됨 -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집중 과정 설치 학교에서만 개설함. 학교에 집중과정 설치가 열악한 이유로 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움. - 일반고 예술계 진학생의 전문성 준비 교육 여건 마련	· 집중 과정 설치 학교에서만 개설함. 학교에 집중과정 설치가 열악한 이유로 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움. · 시험 과목 중심으로 개설됨 - 예술계 진학생 전문성 준비 교육 여건 마련
	과목별 교육과정 적절성 평가	· 고1 미술과 성격, 목표, 내용의 연계성 약함. - 과목 성격에 비추어 일부 교육 내용 삭제 및 조정	· 전문 과목 교육과정의 부적합성(미술 교육의 시대적 변화 반영이 미흡함, 고1 미술과 연계가 어려움) - 미술 이론 과목 명 수정 - 시각적 문해력, 비평적 사고력 과목 구성 필요 - 고1 미술과 연계성 확보	· 전문 과목 교육과정의 부적합성(미술 교육의 시대적 변화 반영이 미흡함, 고1 미술과 연계가 어려움, 실기 시험 과목 중심의 구성) - 미술 실기 과목 명 수정 - 창작에 대한 안목과 소양 과목 구성 필요 - 디지털 시대의 표현 과목 - 고1 미술과 연계성 확보
외국 교육과정 동향 분석	구성 체제	· 미술과 선택 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줌 · 세부적인 전공명 외에 통합적인 성격의 이론, 창작 과목 명이 제시됨 · 일반 교육에서 전문 교육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목 설정과 교양이나 전공의 소양 과목 설정의 두 가지 입장이 있음.		
	과목 내용	· 국가 교육과정이 있는 나라는 대체로 10학년까지의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수준에서 출발점을 결정함. · 성취 기준 제시형과 학습 주제나 교재 제시형이 있음.		
총론 개선 방향	선택 과목 개설 방식 일원화	· 선택 과목 개설 방식의 일원화에 따른 선택 과목 성격 재조정 · 공통 교육과정과 연계성 확보		
	집중 과정 설치	· 예술 체육 과정의 과목 설계 다양화 · 미술 선택 과목 다수 개설하여 선택의 폭 확대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구성 체제	· 과목 설정 취지 개선 : 미술 문화적 소양, 시각적 문해력, 창작 소양을 강조하는 과목, · 과목간 연계성 확보 : 고등학교 미술 교과내 내용 영역 분화와 수준 심화 - 미술과 삶 : 미적 체험 영역의 심화 - 미술 감상 : 감상 영역의 심화 - 미술 창작 : 표현 영역의 심화 · 선택 과목간 이수 순서 없음		
	과목 구성	· 과목 명 :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 미술과 삶 : 미술 문화의 이해와 실생활 적합성 강조, 주제 중심의 내용 체계 - 미술 감상 : 시각적 문해력, 비평적 사고력 강조, 방법 중심의 내용 체계 - 미술 창작 : 창작 소양 강조, 방법 중심의 내용 체계		
	편성·운영	· 일반계에서 예술계 진학생들의 전문성 준비 교육 정상화 · 교육과정 운영 시설 확보 및 교사 수급		

이상에 따른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쟁점 도출과 개선 방안 탐색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V-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의 구조도

나. 개선의 기본 방향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종결 교육과 준비 교육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인문 과정이나 자연 과정 학생의 대학 입학 준비 교육으로 편성, 운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실업계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종결 교육이나 예술계 진학자들의 전문성 준비 교육이 소외되어 왔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는 6차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신의 적성이나 진학과는 맞지 않는 과목들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술과 선택 과목 가운데 예술계 전문성 준비 과목들은 일반계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았으며, 과목 개설에 필요한 제약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학습자의 다양한 진로와 관심을 고려한 교육 선택권을 넓혀갈 수 있는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술과 선택 과목은 모든 계열 학생에게 필요한 예술적, 문화적 소양을 다루는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생활에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관련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문, 자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정보, 사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다면, 선택 과목간의 수준과 양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이수 순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 이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운 미술 교과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구성함으로써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총론 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 개설 방식 일원화에 맞춰 미술과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 및 성격을 명료화하고, 과목간 내용 연계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목별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각 요소가 개설 취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미술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 과목 명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술의 분야별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하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도 개설되는 과목 명에 이론이나 개론에서 이해로, 실기에서 조형이나 발상 등으로 바뀌는 등 미술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통 교과 교육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미술 교육에서 실기 교육의 통합적 시각이나 시각적 문해력 교육에 대한 요구와 실생활과 관련하여 디지털 매체 교육, 비평적 사고력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미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과 선택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학생들이 그 준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시설, 교수 인력, 학점 이수

방안 등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실제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조사하거나 파악하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학교간 협력을 통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기타계나 실업계 관련 요구를 조사하여 지역별 운영 거점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거점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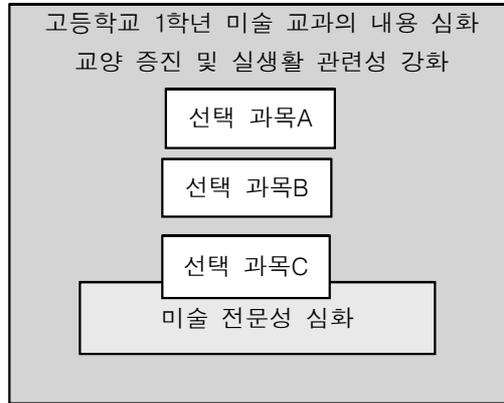
2.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가. 구성 체제

1) 선택 과목의 성격 재설정

제7차의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는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 관련’,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이었다. 그러나, 총론 연구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과목 개설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과 선택 과목 개설 취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미술과 생활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심화이며, 실생활 관련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술과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과 실생활 관련성을 기본 취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에서 교양 증진이나 심화 과정이나의 구분을 없앴다. 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 수준은 좀더 깊어진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세 개의 과목에서 교양 증진과 실생활 관련성을 모두 강조하였다. 단, 한 과목은 7차의 ‘미술 실기’처럼 예술 집중 과정을 개설할 경우에 적합한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림IV-2] 미술과 선택 과목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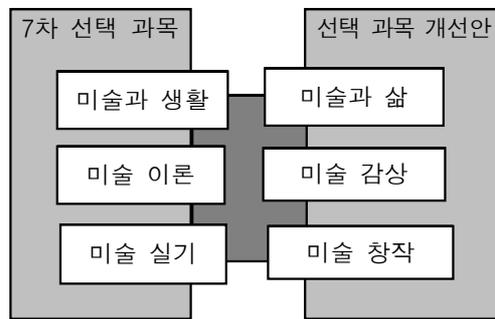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과목 명 선정

‘미술과 생활’은 ‘미술과 삶’으로 수정하였다. ‘미술과 생활’이 설정된 배경에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실생활 관련을 추구한 과목이 필요해서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에서는 미술 교과와의 연계성면에서 미술의 문화적 이해가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미술에서 실생활 관련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의 문화적 차원의 확장과 심화된 수준의 과목 명으로 ‘생활’의 범주를 ‘삶’의 범주로 확장시켜 명칭을 수정하였다. 내용 구성에서도 실용성과 문화적 이해를 관련시켰다.

‘미술 이론’은 ‘미술 감상’으로 수정하였다. 미술 이론 과목 명에 대한 시대적 적합성이 지적되어 왔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소양 측면에 비추어볼 때 미술에서의 시각적 문해력이나 비평적 사고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제7차 ‘미술과 생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미술 감상이 교육 내용의 적절성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미술 이론을 일반계 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생활에서 갖추어야 하는 미술 감상의 안목을 길러주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미술 실기’는 ‘미술 창작’으로 수정하였다. 미술 실기 과목에 개설되는 세부 과목들이 대학 전공이나 입학 시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일반계 학교에서 개설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학의 전공이나 미술계의 표현 영역에 있어서 전공 구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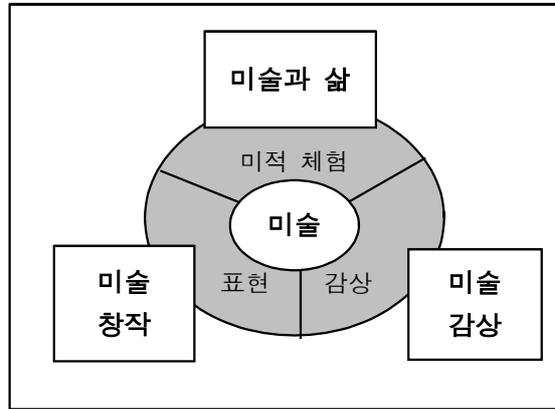
폐지하고 통합하는 경향이 많으며, 전문가나 교사들이 미술 실기를 창작의 필요성이나 기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실기 분류로는 새로운 실기 분야들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창작의 분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창작의 기초 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IV-3] 미술과 선택 과목 명 개선안

3) 공통 교과와 선택 과목간 내용 연계성 확보

미술과 생활 과목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와의 연계성 측면이다.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공통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살린 선택 과목들을 구성하였다. 연계성 구성 방식은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의 주요 내용 영역인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을 각각 심화시킨 과목을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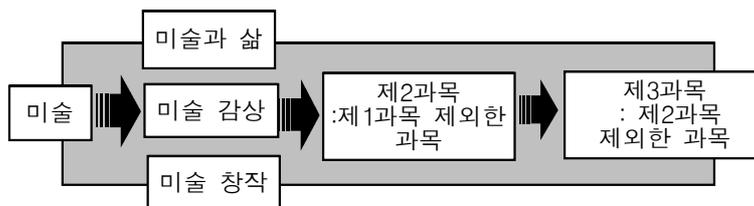


[그림 IV-4] 미술과 선택 과목과 공통 교과와의 내용 연계성

4) 미술과 선택 과목 이수 체계

■ 1안) 일반적인 과목 이수 체계

집중 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학교에서 개설되는 미술과 선택 과목 간에는 이수 순서가 없다.



[그림 IV-5] 미술과 과목 이수 체계

■ 2안) 집중 과정 설치시 과목 이수 체계

학교에서 집중 과정을 설치할 경우에 과정 필수 과목을 '미술 창작' 과목으로 한다.



[그림 IV-6] 집중 과정 설치시 미술과 과목 이수 체계

나. 과목별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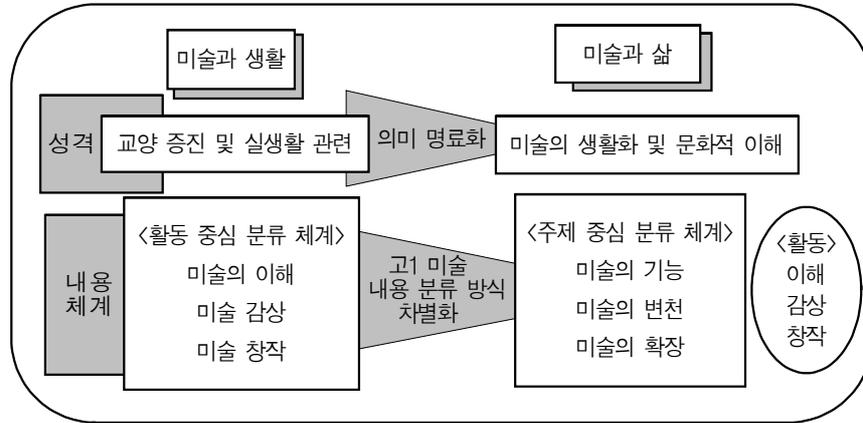
1) 미술과 삶

가) 개선 내용

첫째, 미술과 생활 과목의 도입 취지 ‘실생활 관련’에서 ‘실생활’의 의미를 단순하게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론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성격을 주로 기본 교과보다 내용의 난도가 떨어지며 간학문적인 내용 중심이라서 과목의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7차 미술과 생활 과목은 ‘미술 문화의 이해’라는 비교적 높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와 내용도 학생들의 고등 정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따라서, ‘미술과 생활’의 도입 취지를 살려 ‘실생활 관련’의 의미를 ‘미술 문화 이해’와 ‘미술의 생활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과목 명과 내용을 개선하였다.

둘째,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영역을 조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미술 감상’ 영역은 ‘미술과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미술 감상 영역은 미술과 선택 과목에서 독립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미술 감상 영역을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에서 삭제하였다.

셋째, 미술과 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으로 된 것은 미술 교과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통 교과와 선택 과목간의 수업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기존의 이해, 감상, 창작이라는 활동 중심의 분류 체계를 문화와 관련된 주제 중심의 분류 체계로 변경하였다.



[그림 IV-7] 미술과 생활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나) 개선안의 개요

■ 과목 성격

- 7차의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육적 의도를 계승 발전
- 미술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향유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
- '생활'을 포함하는 인류의 삶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 내용 구성
- '미술과 삶' 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미적 체험' 영역을 생활, 문화와 관련한 주제 중심 과목으로 발전시켜 구성
-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미술 과목

■ 7차 관련 과목

-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 '미술과 생활'

■ 교육과정 문서 체제

1. 성격
2. 목표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나. 영역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 가. 교수·학습 계획
 - 나.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가. 평가 계획
 - 나. 평가 방법
 - 다. 평가 결과의 활용

■ 과목 목표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문화인으로서의 소양과 일상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생활 속에서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실천한다.

나. 시·공간에 따른 미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미술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

다. 자신의 삶 속에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체계

- 주제 중심의 대영역 구성

〈표 IV-2〉 미술과 삶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미술의 기능	(가) 미술과 언어	①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기능 이해하기 ②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시각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제작하기
	(나) 미술과 디자인	①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미술의 기능 이해하기 ② 생활 용품, 생활 공간 등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2) 미술의 변천	(가) 미술의 의미	① 시대별, 지역별 미와 미술의 시각 변화 이해하기 ② 미와 미술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는 작품 제작하기
	(나) 미술과 테크놀로지	①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미술의 변화 이해하기 ② 새로운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 제작하기
(3) 미술의 확장	(가) 미술과 통합	① 미술과 다른 분야와의 통합의 의미 이해하기 ② 다양한 통합 방안을 미술에 적용하기
	(나) 미술과 직업	① 다양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 조사하기 ② 진로와 관련된 직업군을 조사하고 진로 계획 세우기

2) 미술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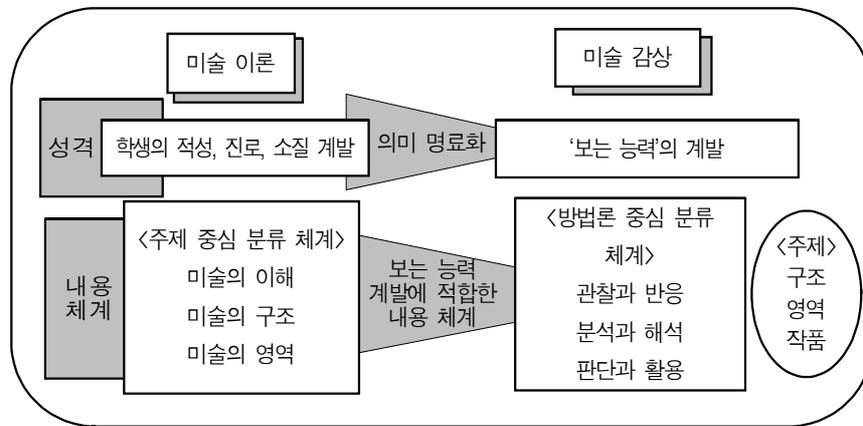
가) 개선 내용

첫째, 미술 이론 과목 명이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미술 이론 과목 명을 수정하였다.

둘째, 미술 이론이 미술의 이해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이해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미술 교육에서 ‘보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각 이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문해력이나 비평적 사고력 교육이 미술 교육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으로서 소양이 필요하며 이에 시각적 문해력이나 비평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미술과 과목

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 감상 과목이 미술에서 보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이라면 내용 체계 구성 방식도 이에 적합해야 한다. 미술 이론 과목처럼 주제별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는 경우에 보는 ‘방법’ 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미술 감상 과목이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는 ‘방법’이나 ‘원리’ 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 8] 미술 이론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나) 개선안의 개요

■ 과목 개설 취지

- 현대 생활에서 미술 작품을 비롯한 시각 현상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소양이며 이에 필요한 감상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교육이 미적 체험, 표현 등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감상에서의 ‘보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감상에서의 ‘읽고 말하기’, ‘해석하고 판단하기’ 등 폭넓은 감상 교육이 필요함.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학습자들은 비평적 사고와 활동이 활발해지고 미술에 대한 가치 판단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적합한 감상 교육으로서 비평 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과목

■ 7차 관련 과목

- 일반계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미술 이론’
- 예술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미술 이론’, ‘미술사’

■ 교육과정 문서 체재

- | |
|--------------|
| 1. 성격 |
| 2. 목표 |
| 3. 내용 |
| 가. 내용 체계 |
| 나. 영역별 내용 |
| 4. 교수·학습 방법 |
| 가. 교수·학습 계획 |
| 나. 교수·학습 방법 |
| 5. 평가 |
| 가. 평가 계획 |
| 나. 평가 방법 |
| 다. 평가 결과의 활용 |

■ 과목 목표

미술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비평 능력과 심미적 안목을 길러, 미술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미적 대상의 특성을 관찰하고 지각한다.
- 나. 미술 감상과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다.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활용한다.

■ 내용 체계

- 방법 및 절차 중심의 대영역 구성

<표 IV-3> 미술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관찰과 반응	(가) 직관적 감상	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② 감상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나) 현장 체험	① 생활 주변, 미술관, 박물관, 작가 스튜디오 등에서 미술을 감상하기 ② 학교 및 지역 미술 행사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2) 분석과 해석	(가) 조형적 특성 이해	①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기법 등을 분석하기 ② 작가 양식, 시대 양식, 민족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③ 감상 대상의 형식적 특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해석하기
	(나) 미술가 탐구	① 미술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② 미술가의 개인적 경험, 성장 배경, 표현 특성의 관계 이해하기 ③ 미술가가 지역, 사회,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해석하기
	(다) 맥락적 이해	① 시대별, 지역별 미술의 특성 비교 분석하기 ② 감상 대상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③ 시간, 장소, 환경에 따른 감상 대상의 의미 변화 이해하기
(3) 판단과 활용	(가) 미술 비평	① 미술이나 미술가에 대한 비평의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기 ② 비평 관점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나) 감상의 활용	① 주제가 있는 전시 기획하기 ② 감상 대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보여주는 작품 감상집,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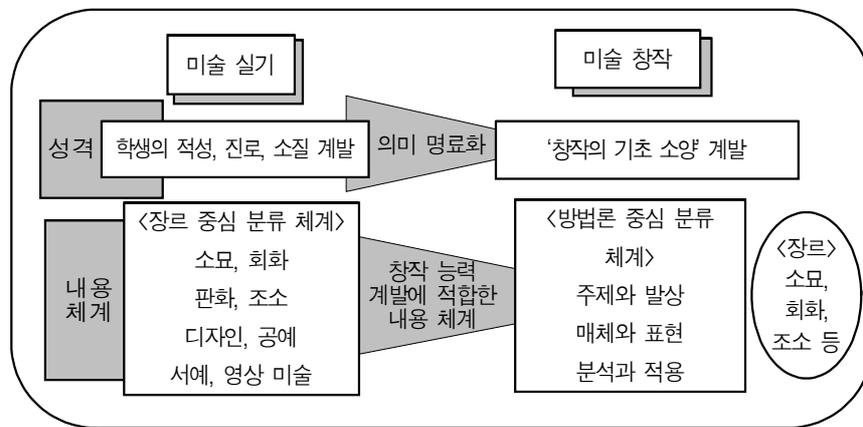
3) 미술 창작

가) 개선 내용

첫째, 현재와 같이 미술 실기 과목에 개설되는 내용들이 대학 입학 시험 과목 중심인 것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문성 교육에 적합하지 못하다. 일반계 고등학생이라면 예술계 학생보다는 일반적인 소양의 토대 위에서 미술을 심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관점에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공 실기를 통합하여 창작의 기초 개념과 원리 중심의 과목명과 내용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미술 실기 과목들이 입학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개설된다면 일

반계 학교에서 실제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미술 실기의 종류 중심의 내용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미술 실기를 통합할 수 있는 '창작'의 기초 개념과 원리 등이 소개된다면, 이미 다양한 전공 분야를 통해서 전문적 소양을 갖춘 고등학교 미술 교사들이 지도하기 쉬운 과목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술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미술 교사들이 충분히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는 창작의 기본 개념과 원리 등 창작 '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V-9] 미술 실기 과목 적절성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나) 개선안의 개요

■ 과목 개설 취지

- 현대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을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함.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표현 교육이 미적 체험, 감상과 균형을 이루면서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창조의 감각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표현 교육이 필요함.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형화하고 싶어하며 이에 필요한 창작의 기초 소양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미술 창작 분야를 좀 더 심도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

■ 7차 관련 과목

- 일반계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 ‘미술 실기’
- 예술계 고등학교 전문 교과 ‘소묘’,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영상 미술’

■ 교육과정 문서 체재

- | |
|--------------|
| 1. 성격 |
| 2. 목표 |
| 3. 내용 |
| 가. 내용 체계 |
| 나. 영역별 내용 |
| 4. 교수·학습 방법 |
| 가. 교수·학습 계획 |
| 나. 교수·학습 방법 |
| 5. 평가 |
| 가. 평가 계획 |
| 나. 평가 방법 |
| 다. 평가 결과의 활용 |

■ 과목 목표

미술의 조형 언어와 매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다양한 표현 주제와 발상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나.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적용한다.

다.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표현에 적용함으로써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내용 체계

- 방법 및 절차 중심의 대영역 구성

〈표IV-4〉 미술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주제와 발상	(가) 표현 주제	① 문화적 맥락에서 주제, 상징, 아이디어의 변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② 작품에 나타난 상징성을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기
	(나) 발상과 표현	① 발상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기 ②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2) 매체와 표현	(가) 평면 표현	① 평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② 평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기
	(나) 입체 표현	① 입체 표현의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② 입체 표현의 특징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기
	(다) 매체의 확장	①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표현하기 ②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여 표현에 적용하기
(3) 분석과 적용	(가) 작품 분석	① 작품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 재료와 표현 방법을 분석하기 ② 작품 분석을 통해 조형 방식의 차이와 소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나) 작품의 재발견	①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② 작품 평가에서 얻은 개선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기

V.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이 장에서는 개정되는 미술과 선택 과목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어떤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가 개발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되었는지를 문서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하여 개발되고 심의된 미술과 생활 교과서와 선택 과목이지만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에 관한 현장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렇게 기존의 지침과 기준, 현장의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개정된 선택 과목별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심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1. 제7차 미술과 생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분석

가. 집필상의 유의점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학교 급을 고려한 교과용 도서의 연차적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상의 유의점이 1999년 교육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교육부(1999)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에 관한 집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미술과 생활

<교과서>

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 생활’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하되,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한다.
- (2) 내용 선정은 미술과 교육과정 중 ‘미술과 생활’의 ‘가. 내용 체계’ 및 ‘나. 영역별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3) 내용 선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미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창의력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단원의 구성

- (1) 단원을 구성할 때는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다.
- (2) 단원의 구성 체제는 내용 구조, 학습의 연계성에 따라 창의성 있게 구성한다.
- (3) 단원 전개에 있어 학습 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 및 용어, 주제(표현),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한다.
- (4) 관련 자료(작품, 참고 자료, 삽화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접 도움이 되고,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5)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높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정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시대, 양식, 영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도록 한다.
 - (나) 작품을 제시할 때는 작품명, 재료, 크기, 작가명, 시대, 국적 등을 편수 자료와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한다.
 - (다) 원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는 괄호 속에 ‘부분’이라고 표기한다.

다. 내용의 수준과 범위

- (1)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미술’과의 연계에 유의하며, ‘미술과 생활’에서의 중심 학습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 (2)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영역이 체계적으로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역별로 운영하거나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 (3) ‘미술의 이해’ 영역은 다양한 예시 자료를 통해 미술의 전반적인 특성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미술 감상 및 미술 창작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4) ‘미술 감상’ 영역은 다양한 예시 자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미술의 이해 및 미술 창작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5) ‘미술 창작’ 영역은 다양한 발상 자료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미술의 이해 및 미술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지도서>

- (1) 총론,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집필한다.
- (2) 총론에는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의 해설, 교과서 활용상의 유의점, 현대 미술 교육의 동향, 미술과 학습 지도 이론 및 지도 방법 등을 제시한다.
- (3) 각론에는 단원별 지도 계획을 제시한다.
 - (가) 단원 설정의 이유, 단원의 목표, 지도 방법, 평가, 준비물 등을 제시한다.
 - (나) 참고 자료에서는 교과서 예시 자료(작품, 참고 자료, 삽화 등)에 대한 해설, 교수·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참고 사항, 관련 자료, 심화 학습 등을 풍부하게 수록한다.
- (4) 부록에는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 표'를 수록하고, 이 외에 미술 교육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시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의 사본 1부를 교과서 검정 신청본 제출시 반드시 첨부한다.)

나. 검정 기준

2000년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교육부(2000) 자료에 의하면 2종도서의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목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공통 기준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용 도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V.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심사 영역	심사 관점	판정		비고
		있음	없음	
I.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국가, 종교, 단체, 계층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한 내용이 있는가.			
II.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3.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III. 저작권 위배 여부	4.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표절했거나 또는 현저하게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IV. 내용의 보편 타당성	5. 학문상의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서 공통 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 교육과정의 준수	1.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II. 내용 선정 및 조직	2.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해당 학년 특성에 적절하고, 전후 학년간의 계열성을 고려하였는가.			
	3.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는가.			
	4. 특정 인물, 성, 지역,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왜곡하거나 옹호·우대하는 내용은 없는가.			
	5. 범교과 학습(민주시민교육, 반부패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민족문화정체성교육, 소비자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재해대비교육, 관광교육 등)은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6. 학습량은 적절하며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II. 교수·학습 방법	7. 교과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8.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9. 교과 교육의 목표-내용-교수·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IV. 표현·표기	10. 한글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V. 편집 및 외형 체제	11. 판형, 쪽수, 색도 등 외형 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12. 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13. 사진과 삽화가 선명하고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VI. 독창성	14.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15.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은 독창적인가.			

교사용 지도서 공통 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 교육과정·교과서 안내	1. 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가.			
	2.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3.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 체제, 지도서의 내용 구성 및 활용, 연간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4.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I. 구성 체제	5. 총론, 각론, 부록 등을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는가.			
	6.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각 단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7. 심화·보충 학습(또는 수준별 교수·학습) 등 학습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적절한 지도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III. 교수·학습 방법	8. 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9. 학습 목표, 제재,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10. 교수·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는가.			
IV. 자료의 활용과 안내	11. 교수·학습 과정과 교과 교육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최신 참고 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가.			
	12. 단위 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등 각종 참고 자료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V. 표현·표기	13.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VI. 편집 체제	14. 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VII. 독창성	15.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2) 과목 기준 : 미술과 생활

과목별 교과용 도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미술과 생활 과목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술과 생활’ 교과서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 교육과정의 준수	1.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II. 내용 선정 및 조직	2. ‘미술과 생활’의 학습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3. 교육 내용은 ‘미술’ 교과를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심화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가.			
	4.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하였는가.			
	5. ‘미술과 생활’ 배당 시간에 알맞은 학습 분량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는가.			
	6. 각 영역의 내용을 조직하는데 있어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7.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고 있지 않은가.			
	8. 관련 작품 및 자료는 다양하며, 학습 내용과의 관련이 드러나도록 제시하였는가.			
	9. 학습 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는가.			
	10. 범교과 학습(민주시민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진로 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 내용을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II. 교수·학습 방법	11. 학습 목표, 제재, 내용에 적절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12. 학습자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평 능력 등의 신장에 효과적이며, 자기 주도 학습, 개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13. ‘미술과 생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매체의 정보 및 활용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4. ‘미술과 생활’ 교육의 목표·내용·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V.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탐색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V. 표현·표기	10.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16. 사진, 삽화, 픽토그램, 인명, 지명, 각종 용어, 도표, 전체와 부분 표기, 작품 등의 출처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였는가.			
V. 편집 및 외형 체제	17. 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18. 사진과 삽화는 선명하며, 작품은 원작의 색을 잘 살려 제시하였는가.			
	19. 판형, 쪽수, 색도 등 외형 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VI. 독창성	20. 교육과정에 준하면서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서의 활용 및 체제를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미술과 생활’ 교사용 지도서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 교육과정·교과서 안내	1. ‘미술과 생활’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관련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과 현대 미술 교육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가.			
	2.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 체계, 지도서의 내용 구성 및 활용, 연간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II. 구성 체제	4. 총론, 각론, 부록 등을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는가.			
	5. 단원 설정의 이유, 단원 목표, 교수·학습 계획안, 지도상의 유의점, 배정 시간, 준비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6. 부록에서는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및 미술 교육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A	B	C
III. 교수·학습 방법	7. 학습자에게 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8. 학습 목표, 제재,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9. 학습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는가.			
IV. 자료의 활용과 안내	10. 학습 지도 시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넷 활용 방안,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자료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11. 교과서 예시 자료(작품, 참고 자료, 삽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V. 표현·표기	12.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13. 사진, 삽화, 픽토그램, 인명, 지명, 각종 용어, 도표, 작품 등의 출처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였는가.			
VI. 편집 체제	14. 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적절하며,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VII. 독창성	15.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서 활용 방법이 창의적인가.			

다. 개선 방향

제7차 미술과 생활 교과용 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에 대하여 교과서 집필자 몇 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통된 의견과 지적 사항을 묶어서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 집필상의 유의점이나 검정 기준 모두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 유지: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 수정: 교과서 개발에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한다.

-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제시된 내용이 곧 검정 기준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 관련지어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7차 미술과 생활 과목의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은 현재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집필상의 유의점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검정 기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목별 기준이 있는데, 교과목별 기준에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일반 공통 기준은 차별화되는데, 교과서 공통 기준과 지도서 공통 기준은 교과목별 교과서 검정 기준과 지도서 검정 기준과 일부는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다.
 - 교과목별 교과서 검정 기준과 지도서 검정 기준에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공통 기준의 사항을 사전에 마련하되, 검정 기준에서는 교과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제7차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은 항목별로 집필상의 유의점보다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집필상의 유의점을 검정 기준의 수준으로 좀더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요구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운영 실태와 또 다른 선택 과목인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과목에 대한 향후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에 근거한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검정 기준의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 미술과 생활 교과서

1) 미술과 생활 교과서 활용도

미술과 생활 교과서는 현재 총 5종이 검인정 교과서로 개발되어 있으며, 71.1%의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활용한다’에 응답했다.

〈표 V-1〉 수업시 미술과 생활 교과서 활용도(교사 경력별) N(%)

	3년 이하	4년-10년	11년-20년	21년 이상	전체
수업시간마다 활용한다	1(10.0)	3(18.8)	6(10.5)	6(13.3)	16(12.5)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7(70.0)	9(56.3)	41(71.9)	34(75.6)	91(71.1)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2(20.0)	4(25.0)	10(17.5)	5(11.1)	21(16.4)
계	10(100.0)	16(100.0)	57(100.0)	45(100.0)	128(100.0)

2) 미술과 생활 교과서 활용 내용 영역

어느 내용 영역을 지도할 때 교과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미술의 이해’(48.4%), ‘미술 감상’(38.5%)으로 응답했다.

〈표 V-2〉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서 영역(교사 경력별) N(%)

	3년 이하	4년-10년	11년-20년	21년 이상	전체
미술의 이해	2(22.2)	3(18.8)	31(58.5)	23(52.3)	59(48.4)
미술 감상	3(33.3)	12(75.0)	19(35.8)	13(29.5)	47(38.5)
미술 창작	4(44.4)	1(6.3)	3(5.7)	8(18.2)	16(13.1)
계	9(100.0)	16(100.0)	53(100.0)	44(100.0)	122(100.0)

3)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에 대해 교사와 전문가는 ‘적절하다’에 각각

41.9%와 36.7%로 응답했다. 전문가는 ‘매우 많다’에 30.0%로 비교적 높게 응답한 반면, 교사는 ‘부족하다’에 22.6%로 높게 응답했다.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는 교사의 의견과 개발하거나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함을 볼 수 있다.

〈표 V-3〉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N(%)

	교사	전문가
매우 많다	15(12.1)	9(30.0)
많다	22(17.7)	5(16.7)
적절하다	52(41.9)	11(36.7)
부족하다	28(22.6)	5(16.7)
매우 부족하다	7(5.6)	0(0)
계	124(100.0)	30(100.0)

4) 미술과 생활 교과서 내용 수준의 적절성

교과서 내용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교사와 전문가 모두 ‘적절하다’에 높게 응답했다. 전문가는 ‘적절하다’ 46.7%, ‘어렵다’ 33.3%로 교사에 비교해서 어렵다는 의견에 높게 응답했다.

〈표 V-4〉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내용 수준 N(%)

	교사	전문가
매우 어렵다	2(1.6)	0(0)
어렵다	24(19.2)	10(33.3)
적절하다	84(67.2)	14(46.7)
쉽다	11(8.8)	6(20.0)
매우 쉽다	4(3.2)	0(0)
계	125(100.0)	30(100.0)

5) 교과서 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교사는 ‘교과서 보충 자료의 다양화’에 41.0%와 ‘전자 교과서 등 다양한 교과서 유형이나 매체로 개발’에 30.6%로 응답했고, 전문가는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에 46.3%와 ‘교과서 보충 자료의 다양화’에 24.45%로 응답했다. 교사는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보다는 보충 자료의 다양화나 교과서 유형이나 매체의 다양화에 관심이 많으며, 전문가들은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향후 미술과 생활 교과서 개발 시 개선 사항(복수 응답) N(%)

	교사	전문가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	21(15.7)	19(46.3)
교과서의 편집이나 제시 방식 등 형식적 측면	17(12.7)	4(9.8)
전자 교과서 등 다양한 교과서 유형이나 매체로 개발	41(30.6)	6(14.6)
교과서 보충 자료의 다양화	55(41.0)	10(24.4)
기타	0(0)	2(4.9)
계	134(100.0)	41(100.0)

나.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1)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 전문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미술 이론에 대해서는 교사, 전문가, 학생이 모두 ‘필요하다’에 79.1%, 84.4%, 64.9%로 응답했다.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는 교사와 전문가는 ‘필요하다’에 74.6%, 56.3%로 응답했고,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다’에 51.5%로 응답했다. 미술 실기 수업은 대체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작품을 참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서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6〉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N(%)

		교사	학생	전문가
미술이론	필요하다	106(79.1)	131(64.9)	27(84.4)
	필요하지 않다	28(20.9)	71(35.1)	5(15.6)
	계	134(100.0)	202(100.0)	32(100.0)
미술실기	필요하다	100(74.6)	142(48.5)	18(56.3)
	필요하지 않다	34(25.4)	151(51.5)	14(43.8)
	계	134(100.0)	293(100.0)	32(100.0)

2)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미술 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교사와 전문가가 모두 1순위에 ‘미술의 이해’로 응답했다. 교사는 2순위와 3순위 모두 ‘미술사’에 높게 응답했다. 전문가는 2순위에 ‘미술의 구조’, 3순위에 ‘미술 감상’에 높게 응답했다. 학생들에게 미술 이론 과목에서 배웠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서양미술사’ 27.7%, ‘미술과 문화’ 24.1%, ‘현대 미술’ 21.9%의 순으로 응답했고, 회화, 조소 등 실기 관련 이론에 대한 응답은 거의 낮게 나타났다.

미술 실기의 경우는 1순위에 교사는 ‘실기 영역 모두’, 전문가는 ‘조형의 기초’, 2순위는 교사는 ‘회화’, 전문가는 ‘디자인’, 3순위는 교사는 ‘디자인’, 전문가는 ‘영상 미술’로 응답이 다양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는 통합적인 교육과정 개발, 미술과 커뮤니케이션, 미술과 창작, 미술 비평, 미술과 미디어, 현대 문화와 미술 문화 등의 소수 의견도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미술 실기 과목에서 배웠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시각디자인’ 31.9%, ‘사진’ 28.0%, ‘제품 디자인’ 27.4%, ‘애니메이션’ 22.8%, ‘수채화’ 20.8%, ‘컴퓨터 그래픽’ 20.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디자인 관련 분야’와 컴퓨터 기술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수채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기존의 실기 내용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7> 미술 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복수 응답) N(%)

	교사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미술의 이해: 미술의 특성, 미술의 역할	38(34.5)	15(14.3)	15(14.3)	17(58.6)	3(10.7)	2(7.1)
미술의 구조: 조형 요소, 조형 원리	19(17.3)	23(21.9)	15(14.3)	4(13.8)	10(35.7)	2(7.1)
미술의 영역별 이론: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영상 미술, 기타	21(19.1)	23(21.9)	18(17.1)	0(0)	3(10.7)	7(25.0)
미술사: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24(21.8)	28(26.7)	30(28.6)	3(10.3)	9(32.1)	5(17.9)
미술 감상	8(7.3)	16(15.2)	27(25.7)	3(10.3)	2(7.1)	9(32.1)
기타	0(0)	0(0)	0(0)	2(6.9)	1(3.6)	3(10.7)
계	110(100.0)	105(100.0)	105(100.0)	29(100.0)	28(100.0)	28(100.0)

<표 V-8> 미술 실기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N(%)

	교사			전문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묘	20(20.4)	7(8.0)	3(3.5)	6(28.6)	2(10.5)	1(6.3)
회화	19(19.4)	32(36.4)	7(8.1)	2(9.5)	1(5.3)	2(12.5)
판화	0(0)	1(1.1)	3(3.5)	0(0)	0(0)	0(0)
조소	2(2.0)	2(2.3)	8(9.3)	0(0)	1(5.3)	0(0)
디자인	12(12.2)	23(26.1)	25(29.1)	0(0)	6(31.6)	3(18.8)
공예	1(1.0)	1(1.1)	13(15.1)	0(0)	0(0)	3(18.8)
서예	0(0)	1(1.1)	1(1.2)	0(0)	0(0)	0(0)
영상 미술	2(2.0)	7(8.0)	14(16.3)	0(0)	1(5.3)	5(31.3)
조형의 기초	19(19.4)	7(8.0)	4(4.7)	7(33.3)	4(21.1)	1(6.3)
실기 영역 모두	23(23.5)	7(8.0)	7(8.1)	3(14.3)	3(15.8)	1(6.3)
*기타	0(0)	0(0)	1(1.2)	3(14.3)	1(5.3)	0(0)
계	98(100.0)	88(100.0)	86(100.0)	21(100.0)	19(100.0)	16(100.0)

다. 요약 및 시사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술과 생활’ 교과서는 수업에서 활용도가 크지 않으며, 주로 ‘미술의 이해’와 ‘미술 감상’ 영역의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개발시 수업에서의 교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 선정 및 조직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미술과 생활 교과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는 주로 보충 자료의 다양화나 교과서 유형의 다양화를 필요로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주로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다양한 교과서 유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에서는 내용 선정 및 조직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술 이론에 대해서는 교사, 전문가, 학생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미술 실기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가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정도이며,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행의 ‘미술 실기’ 과목과 유사한 개정 시안의 ‘미술 창작’ 과목 교과서를 개발할 때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 이론과 미술 실기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술 이론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을 교사와 학생은 ‘미술사’로 보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서양 미술사’나 ‘현대 미술’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는 ‘미술의 이해’ 다음으로 ‘미술의 구조’, ‘미술 감상’, ‘미술 비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개선안의 미술 감상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미술사와 미술 감상, 미술 비평을 다룰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요구는 미술 감상 과목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술 실기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교사는 실기 영역 모두를, 전문가는 조형의 기초 실기로 서로 의견이 달랐다. 전문가는 ‘디자인’과 ‘영상’ 등 최근의 사회적 관심 분야에 필요성을 나타냈고, 교사들은 회화를 비롯한 실기 영역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통적으로 디자인 분야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학생들은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사진’, ‘영상 미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의 미술 창작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미술의 구조에 대한 이해, 다양한 실기 영역을 다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요구 역시 미술 창작 과목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심의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교육부, 1999)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역시 같은 방향에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방향, 제7차 교과용 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및 심의 기준 검토 결과, 현장의 요구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과 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가.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반영

2005년 시작된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기본 방향은 크게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 시각 문화 교육의 수용, 현장과의 의사소통 기능 강화, 통합적인 미술 활동의 수용이다. 이러한 개정 시안의 방향에 따라 선택 과목 교과서 개발의 공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안내하는 미술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과제로 주어진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탐색하며 수행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통합성을 살린 교

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미술에서 다루었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을 고려하면서, 선택 과목 간의 내용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학습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미술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실생활이나 경험 등과 주요 개념이 연계되어 통합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미술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 및 탐색 활동, 체험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 보고서 작성, 토론 활동, 비평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계획해야 한다.

다섯째, 결과보다는 동기 유발, 표현 과정을 중시하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기 유발을 위한 관련 작품을 선정하고 제시하며, 학습 과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체험, 표현, 감상 활동 속에서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통 방향과 함께 각 과목별 개선안에 기초하여 과목별 특징적인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과 삶

첫째, 미술과 삶 교과서에서는 특히 생활 속에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공간에 따라 미술에 대한 시각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술과 다른 교과나 미술 외의 다른 예술 분야와의 적극적인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직업에서의 미술의 활용을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술 감상

첫째, 시대별, 지역별, 양식별로 다양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찰과 반응, 분석과 해석, 판단과 활용의 체계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 체험, 정보 수집, 토론 활동, 비평문 쓰기, 전시 기획하기, 포트폴리오 제작 등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술 창작

첫째, 학습자의 다양한 발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매체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신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조형 방식의 차이와 소통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면서 얻은 반성적 정보를 다시 작품 제작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기존의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목의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근거로 하되 개선점으로 제안되었던 심의 기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교과서 편찬 방향

<교육과정의 준수>

(1) 각 선택 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한다.

<내용 선정 및 조직>

(2)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4) 주어진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5)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6)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7)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8)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영역별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 지식이나 개념,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선정, 조직하여야 한다.

(9) 관련 자료(작품, 참고 도판, 삽화 등)는 다양하며, 학습 내용과의 관련이 드러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0) 시대, 지역, 양식, 영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도록 한다.

- (11)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2) 범교과 학습 내용을 관련 내용에 적절히 반영한다.

<미술과 삶>

- ① 교육과정 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연간 32주, 주당 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습 분량을 결정한다.
- ② 내용은 고등학교 10학년에서 학습한 '미술'의 내용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의하며, '미술과 삶' 과목의 중심 학습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 ③ '미술의 기능'은 다양한 예시 자료를 통해 사회적 소통 언어로서의 미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 속에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미술의 변천'과 '미술의 확장'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④ '미술의 변천'은 미술의 시대별, 지역별 변화와 다양한 시각에서의 미술에 대한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미술의 기능' 및 '미술의 확장'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⑤ '미술의 확장'은 미술과 다른 분야를 통합하여 미술에 적용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미술의 기능' 및 '미술의 변천'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미술 감상>

- ① 교육과정 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연간 32주, 주당 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습 분량을 결정한다.
- ② 내용은 고등학교 10학년에서 학습한 '미술'의 내용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의하며, '미술 감상' 과목의 중심 학습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 ③ '관찰과 반응'은 미술 감상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주변 미술적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석과 이해' 및 '판단과 활용'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④ '분석과 해석'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초로 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작품의 맥락적 이해를 유도하되, '관찰과 반응' 및 '판단과 활용' 영

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⑤ ‘판단과 활용’은 비평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찰과 반응’ 및 ‘분석과 해석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미술 창작>

- ① 교육과정 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연간 32주, 주당 3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습 분량을 결정한다.
- ② 내용은 고등학교 10학년에서 학습한 ‘미술’의 내용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의하며, ‘미술 창작’ 과목의 중심 학습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 ③ ‘주제와 발상’은 작품의 표현 주제와 작품 표현을 위한 발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해 보는 활동, 창작에 필요한 기본 학습과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되, ‘매체와 표현’ 및 ‘분석과 적용’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④ ‘매체와 표현’은 미술의 각 영역별 표현 활동에 대한 제반 내용을 제시하고, 창작의 방법 및 재료, 기법의 확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되, ‘주제와 발상’ 및 ‘분석과 적용’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⑤ ‘분석과 적용’은 미술 창작품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작품의 표현 결과에서 작품을 재발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되, ‘주제와 발상’ 및 ‘매체와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단원의 구성>

- (13) 목표 성취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 (14)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평 능력의 신장에 효과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 (15)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 개별 학습, 협동 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 (16) 다양한 자료와 매체의 정보 및 활용 방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한다.
- (17) 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다양한 평가 과제 또는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한다.

<표현 · 표기>

- (18)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한다.
- (19) 각종 참고 자료에는 자료명, 재료, 크기, 작가명, 시대, 국적, 생몰 년도 등의 관련 정보와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20) 원 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분'임을 표기한다.

<편집 및 외형 체제>

- (21)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22) 사진, 삽화 등 각종 참고 자료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한다.
- (23) 사진, 삽화는 선명하며 원작의 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독창성>

- (24) 독창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 구성한다.
- (25) 독창적으로 교과서를 편집한다.

지도서 편찬 방향

<교육과정의 준수>

- (1) 각 선택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한다.

<내용 선정 및 조직>

- (2)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한다.
- (3)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 (4) 주어진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 (5)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제시한다.
- (6)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제시한다.

- (7) 학습 지도에 필요한 참고 자료와 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 (8)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주요 지식이나 개념,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한다.
- (9)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 반영된 범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설명한다.

<단원의 구성>

- (11) 총론, 각론, 부록 등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 (12) 단원 설정의 이유, 목표, 교수·학습 계획안, 지도상의 유의점, 배정 시간, 준비물, 관련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3) 부록에서는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및 미술 교육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시한다.

<표현·표기>

- (14)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한다.
- (15) 교과서 및 지도서의 예시 자료에 대한 자료명, 재료, 크기, 작가명, 시대, 국적, 생몰 년도 등의 관련 정보와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16) 원 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분’임을 표기한다.

<편집 및 외형 체제>

- (17)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18) 사진, 삽화 등 각종 참고 자료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한다.
- (19) 사진, 삽화는 선명하게 제시한다.

<독창성>

- (20) 독창적으로 지도서의 내용을 선정, 구성한다.
- (21) 독창적으로 지도서를 편집한다.

다. 교과용 도서 심의 방향

기존의 제7차 미술과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목의 심의 기준을 근거로 하되 개선점으로 제안되었던 집필상의 유의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교과서 심의 방향

<교육과정의 준수>

(1) 각 선택 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가.

<내용 선정 및 조직>

(2)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있는가.

(3)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있는가.

(4) 주어진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있는가.

(5)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선정, 조직하였는가.

(6)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하였는가.

(7)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 조직하였는가.

(8)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영역별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 지식이나 개념,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선정, 조직하였는가.

(9) 관련 자료(작품, 참고 도판, 삽화 등)는 다양하며, 학습 내용과의 관련이 드러나도록 제시하였는가.

(10) 시대, 지역, 양식, 영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었는가.

(11)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았는가.

(12) 범교과 학습 내용을 관련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단원의 구성>

- (13) 목표 성취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 (14) 학습자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평 능력의 신장에 효과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 (15)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 개별 학습, 협동 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16) 다양한 자료와 매체의 정보 및 활용 방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17) 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다양한 평가 과제 또는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표현 · 표기>

- (18)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 (19) 각종 참고 자료에는 자료명, 재료, 크기, 작가명, 시대, 국적, 생몰 년도 등의 관련 정보와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 (20) 원 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분’임을 표기하였는가.

<편집 및 외형 체제>

- (21)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22) 사진, 삽화 등 각종 참고 자료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하였는가.
- (23) 사진, 삽화는 선명하며 원작의 색을 살리고 있는가.

<독창성>

- (24) 독창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 구성하였는가.
- (25) 독창적으로 교과서를 편집하였는가.

지도서 심의 방향

<교육과정의 준수>

- (1) 각 선택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하였는가.

<내용 선정 및 조직>

- (2) 교육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3) 교육과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였는가.
- (4) 주어진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였는가.
- (5)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6)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 (7) 학습 지도에 필요한 참고 자료와 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8)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주요 지식이나 개념,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9)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았는가.
- (10) 반영된 범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단원의 구성>

- (11) 총론, 각론, 부록 등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 (12) 단원 설정의 이유, 목표, 교수·학습 계획안, 지도상의 유의점, 배정 시간, 준비물, 관련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13) 부록에서는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및 미술 교육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표현 · 표기>

- (14)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가.

- (15) 교과서 및 지도서의 예시 자료에 대한 자료명, 재료, 크기, 작가명, 시대, 국적, 생몰 년도 등의 관련 정보와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 (16) 원 작품의 일부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분’임을 표기하였는가.

<편집 및 외형 체제>

- (17)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18) 사진, 삽화 등 각종 참고 자료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하였는가.
- (19) 사진, 삽화는 선명하게 제시하였는가.

<독창성>

- (20) 독창적으로 지도서의 내용을 선정, 구성하고 있는가.
- (21) 독창적으로 지도서를 편집하였는가.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동향을 분석하여 구성 체제와 과목별 내용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도입 취지와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의 선택 과목 운영 실태와 교육과정 적절성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연구 내용별로 도출된 쟁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미술과 선택 과목의 구성 체제에서 선택 과목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개설 취지가 다르지만 각 과목간의 수준이나 이수 순서 등이 명료하지 않다.

둘째, 일반 선택 과목군의 이론적, 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며, 체육, 음악, 미술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 건강, 예술적 소양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좀더 교육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과목군이 짜여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심화 선택 과목군은 편성·운영 지침이 현실성 없게 제시되어 있다. 일반계에서 운영할 과목을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과목을 운영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과 심화 선택 과목은 거의 개설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예술계 진학생들에게 적합한 전문성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미술과 선택 과목들은 학교에서 선택률이 저조하며 집중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집중 과정의 내용이 주로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됨으로써 미술 실기 과목들은 실기 시험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일반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과목 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선택 과목 구성 체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 과목 설정 취지를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7차에서 구분되어 있던 ‘교양 증진 및 실생활 관련’과 ‘진로, 적성, 소질 계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미술과 선택 과목은 ‘미술의 생활화’와 ‘미술 문화 이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집중 과정 설치시 ‘미술 창작’ 과목은 과정별 필수로 이수한다는 점에서 좀더 전공 심화 과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선택 과목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고등학교 미술 교과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내용 영역을 각각 심화하여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선택 과목간에는 내용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선택 과목간 이수 순서는 없으며, 집중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과정별 필수 과목을 두도록 하였다.

나.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미술과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 선택 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과 비교해서 수준과 폭의 차이가 나타나있지 않았다.

둘째,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 구성에서 성격, 목표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영역들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다.

셋째, 미술 이론의 과목 명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고 예술계 전문 과목의 내용이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술 실기 과목이 주로 입시 과목으로 개설되는 것과 예술계 전문 과목의 내용이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선택 과목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과 생활 과목은 미술과 삶 과목으로 과목명을 수정하였다. 미술과 삶 과목은 미술의 생활화와 미술의 문화적 이해를 강조하며, 주제 중심의 내용 체계로 구성하였다. 주제별로 이해, 표현,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술 이론 과목은 미술 감상 과목으로 과목명을 수정하였다. 미술 감상 과목은 최근 미술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각적 문해력과 비평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감상과 비평의 방법론 중심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미술 실기 과목은 미술 창작 과목으로 과목명을 수정하였다. 미술 창작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창작 교육을 지향하며, 실기를 통합할 수 있는 창작의 기초 개념과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방법론 중심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2. 정책 제언

본 보고서에 제시한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와 과목별 내용의 개선 방안이 각 단위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기 및 장기적인 향후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 학교 편성·운영 관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기타계나 실업계 관련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이 보장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은 수업 시설, 지도 교사, 반 편성 등이다. 지금과 같이 책과 약간의 시청각 자료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인문 계열, 자연 계열과 달리 좀더 까다로운 시설이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거점 학교를 정하고 학교간 역할 분담에 의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들을 고려하고, 학생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술 교사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학교이면서도 학교간 이동 거리가 가까운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시기도 방과 후나 토요일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토요일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 외의 지역 사회 학습장을 활용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천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문화 관광부나 산업 자원부에서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미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학습장을 활용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역 사회의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술 실습이나 교양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미술과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 학습장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술 계열 지원 학생 수가 적어 집중 과정이 편성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지원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며 학교 자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과정 연수 관련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 새로운 미술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철학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의 방향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술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과정 연수와 자료의 보급, 교사 토론회 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연수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연수의 정책 방향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동안 교육전문직, 현장 교사 등 미술 교육 관계자들이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실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 기간 까지 고려한다면 3년여 동안 이루어졌다. 그동안 개최한 세미나, 협의회, 공청회만 해도 수십 차례에 달한다. 참석자의 범위와 숫자도 전국의 교사들과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전문직, 교대와 사대 교수, 일반 대학 교수 등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정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연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개정 내용에 대한 취지와 방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연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진 미술 교사 연수의 특징은 연수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수에서 강사가 아닌 연수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식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과정 연수 방식 즉,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나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서 선정된 핵심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달하고, 각 핵심 요원들은 다시 지역이나 학교로 돌아가서 전달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연수 시기와 방법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큐티스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이나 합의를 위해 항상 열려져 있는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 기관에서는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연구나 자료 개발 연구물들을 지속적으로 탑재하여 공

유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연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검정 관련

새롭게 미술과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교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술과 교과용 도서의 완성도 있는 개발과 보급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선될 미술과 선택 과목의 내용 체계는 주제 중심의 과목과 방법 중심의 과목 등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좀더 다양한 미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검정 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미술과 선택 과목 교과용 도서는 이번에 세 과목을 개발하게 되어 새로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기대가 좀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교과용 도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세 과목의 교과용 도서가 각각의 특색을 살려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과 삶 교과서는 주제별로 미술 탐구가 가능하도록 미술 작품과 함께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읽기 자료가 다수 제시되어야 한다. 미술 감상 교과서는 내용 체계가 방법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여 감상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과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술 창작 교과서는 내용 체계가 방법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여 창작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과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설명 자료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학습 과제와 해결에 대한 안내를 교과서에서 제시하여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유형도 현재와 같은 책자 형태와 함께 전자 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상 과목은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제한된 지면에서 제대로 감상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의 내용을 심화시켜 학습하기 위한 자료들

을 전자 교과서 형태로 개발해서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위해서는 검정 지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검정 기준에서 판형, 매수, 지질 등이 제한됨으로 인해 미술 교과서는 교과 특성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미래 사회의 첨단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좀더 창의적이고 참신한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정 기준이 좀더 유연하고 열려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검정 시기와 방법도 좀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차 검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의 정책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6차까지 동시 검정 체제였던 경험을 살려 연차 검정과 동시 검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대입 제도 관련

현재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좀더 다양한 적성과 진로의 학생들을 고려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다. 수학 능력 시험 과목은 공통 교과 중에서 체육, 음악, 미술을 제외하고 모든 교과와 관련되어 있다.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는 대입 제도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기본 소양에서 어느 교과도 중요하지 않은 교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과목에서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예술 탐구’에 대한 필요성도 다른 교과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특정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 또는 사회 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이 대학 입학 자격에 포함되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대학 입학의 조건 중에는 클럽 활동이나 예술, 체육 관련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학생의 인격적인 자질을 판단하는 데 기초로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예술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미술 이론’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소한 미대 진학생들의 미술적 소양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활용되었던 적이 있다. 최근 이러한 미술에서

의 소양 교육이 결여됨에 따라 미술 대학 입학생들의 전공 소양이 낮아서 전문인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의 문항들을 보면 예술 관련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대학 논술 시험에 예술 관련 주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번 선택 과목 개설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미술과 삶 과목의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개발하여 미술에서의 탐구와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주제들과 관련하여 시사적인 읽기 자료들을 활용하여 논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심도 깊은 미술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예술 탐구’ 영역이 개설되고, 그 안에 ‘미술과 선택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미술과 선택 과목 운영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보다도 학교 현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강동욱(2001).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강신임(1999). **정보화 사회의 문화현상과 교육과정의 과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강창동(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3.
- 강태희(1995). **현대 미술의 문맥 읽기**. 서울 : 미진사.
- 곽병선(1988). **교과 교육 원리**. 서울 : 갑을 출판사.
- 교육개혁위원회(1995). **한국의 교육개혁: 신교육 체제를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I)**.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서울 :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1997a).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3].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1997b). **예술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26].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1998). **제7차 교육과정 해설-미술**.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 중,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기준(1955-1997)**.
- 구자역 외(1997). **제7차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기영호(2001). **중학교 미술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경배, 이홍숙(1999). **교과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성숙, 김정희, 김창식, 김춘일, 김향미, 김혜숙, 김황기, 성완경, 안금희, 이성도,

- 이은적, 이창립, 전성수, 황연주(2003). 한국미술 교육학회 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 : 학지사.
- 김수천(1999). **교육과정과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수현(1997). DBAE에 있어서 미학이론의 역할. **미학**. 제23집. 1-32.
- 김수현(2002). 미적 교육의 현대적 의미. **미학**. 제32집. 201-224.
- 김승호(1998). 통합 교과의 이론적 근거. **교육과정 연구**. 16(10), 349-376.
- 김용주, 김재웅 역(1997).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오름.
- 김정선(2004). 의사소통 중심의 시각문화교육을 통한 미술교육 개선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 김성숙, 김혜숙, 안금희, 이성도, 이주연, 황연주(2003).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 김정희(1998). **미술교육입문**. 서울: 형설출판사.
- 김진엽(1999). 미술교육과 미학. **미학**. 제27집. 63-80.
- 김진엽(2001). 미적 체험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총**. 11집. 1-12.
- 김창식(1999).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 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7집. 173-190.
- 김창식(2002). 교사중심의 구성주의 미술감상교육. **미술과 교육**. 제3집. 105-121.
- 김춘일(1988). **미술과 교육론**. 서울: 갑을 출판사.
- 김황기(2003). 시각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16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목영해(1994). **후 현대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목영해(2001). **디지털 문화와 교육**. 서울: 문음사.
- 문화 연대 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에 관한 의견 제안서. 미간행.
- 문화관광부(2004)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과 설치-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기반 마련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대-. 문화예술교육과. 보도자료. 2004년 11월.

- 박소영(1997). 미술교과학 연구. **교과학연구총서 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7-16-8.
- 박소영(2000). 교육의 본질회복으로 새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2001-2002 현장 교육연구운동주제해설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박소영(2001).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도전과 미술교육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소영(2002a). 21세기 사회 문화적 현상과 미술교육의 방향. **조형교육. 제20집. 가을**. 227-242.
- 박소영(2002b). **초등학교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14-4.
- 박소영, 양윤정, 조운숙, 서석례(1997).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연구보고 CR 97-26.
- 박소영, 성경희, 김평국, 신진아, 이민영(2004).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II): 중등학교 미술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2-10.
- 박소영, 양윤정, 이수경(2004). **미술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11.
- 박소영, 이경언, 유정애(2004).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한계 및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7(1)**, 87-106.
- 박순경, 이양락, 이광우, 김평국, 이미숙, 정영근, 이희영, 김현진(2004).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3.
- 박순경, 정영근, 이광우, 이미숙, 김진숙, 민용성, 유신영(2005).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
- 박정애(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 시공사.
- 박정애(2002).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미술작품: 의미읽기. **미술과 교육. 제3집**. 179-183.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 백기수(1981). **미학**. 서울 : 서울대출판부.

- 서명원 역(1956). **교육과정지침 (American Education Team. 1954-55)**.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서인숙(2002).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교원대학교부설교과교육공동연구소. 593-606.
- 성경희, 차우규, 유정애, 이경언, 박소영, 류상희(2003). **제7차 교육과정의 현상 운영 실태 분석(I): 초등학교 도덕·실과·체육·음악·미술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1.
- 손지현(2003). 시각 문화의 해석과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미술과 교육. 제4집**. 27-49.
- 심광현(2003). 미술교육에서 시각문화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화연대·문화교육위원회(공편). **이제 문화 교육이다**. 241. 서울 : 문화과학사.
- 양윤정, 박소영(2002). **미술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7.
- 양윤정, 박소영(2003). **미술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3-8.
- 양윤정, 박소영, 이성도, 심효진(2005). **미술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10.
- 양윤정, 박소영, 이성도, 조중현, 윤양희(2005).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5-14.
- 이돈희, 광병선, 구자역, 김재춘, 박순경, 신동로, 유균상, 유하구, 이범홍, 이찬희, 최석진, 홍후조, 이범주, 이경환, 김영일, 박정자(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연구보고 CR 96-30.
- 이돈희, 박순경(1997). **교과학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7-16.
- 이성도(2003). 문화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김성숙, 김정희, 김창식, 김춘일, 김향미, 김혜숙, 김황기, 성완경, 안금희, 이성도, 이은적, 이창림, 전성수, 황연주(2003) 한국미술교육학회 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서울 : 학지사.
- 이성도, 김혜숙(2004).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 탐색. **조**

형교육 23집. 173-203.

이수경(1998). 새로운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개선점 및 중점사항에 대한 韓·日 비교연구. **조형교육 14집**. 한국조형교육학회.

이수경(2002). 제7차 중등 미술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577-592.

이은적(2004). 신교육 사회학의 학교문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미술교육논총. 제18집**. 한국미술교육학회.

이주연(1996). Post-Modernism과 DBAE의 연계성에 기초한 창의력 증진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Ⅰ). **미술교육논총. 제5집**. 91-103.

이주연(2001).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조형교육**. 91-108.

전성수(2000). 미술교육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한국디자인진흥원(2004). 디자인산업 육성 본격시동“디자인산업 발전전략 기획단” 발족. 보도자료. 2004년 3월.

한기민(2003). 중학교 미술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 충남지역 중학교 미술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허경철, 박순경, 이화진, 소경희, 유승연, 강익수, 유상덕, 이원희, 김영일, 김성기, 이우봉(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2-1.

허경철(2003).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2003년도 학술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학회.

허경철,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김두정(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5-6.

홍후조, 박순경, 김진숙(199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

- 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98-5.
- 홍후조(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I) : 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선형으로. **교육과정연구**, 17(2).
- 황연주(2001).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술교육의 역할과 과제. **조형교육**. 제18집. 153-171.
- 황연주(2003). 미술교육에서 시각적 미디어 교육. 김정희, 김성숙, 김혜숙, 안금희, 이성도, 이주연, 황연주(2003).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 학지사.
- 황유경. 예술교육에 대한 인지적 접근. **미학**. 제22집. 193-223.
- 日本教育課程審議會(1998)(平成 10年), 教育課程의 基準改善 基本方向 對하여(中間報告書) 文部省. 初等教育資料, 平成 10年 1月號, pp86-136
- (1998) 教育課程의 基準改善, 文部省, 文部廣報, p1-9
- 文部省,(1998)(平成 10年), 小學校 學習指導要領, 付學校教育法施行規則, 大藏省印刷局 發行 日本: 東京都.
- 文部省,(1999)(平成 11年), 中學校 學習指導要領, 付學校教育法施行規則, 大藏省印刷局 發行 日本: 東京都.
- ヴィゴツキー/ 譯(1992). 子どもの想像力と創造. 新讀書社.
- Barkan, M. (1966). Curriculum problems in art education. In E. L. Mattil (Ed.), *A seminar in art education for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pp.240-255).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arthes, R.(1977). From work to text. In H. Stephan (Trans.). *Image-music-text*. New York: Hill and Wang. 157-164.
- Barthes, R.(1985). Day by day with Roland Barthes. In M. Blonsky (Ed.), *On sig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8-117.
- Betty, E.(1989).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New York: A Jeremy P. Tarcher/Putnam Book.
- Boughton, D. (1997). Reconsidering issues of assessment and achievement

- standards in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38(4), 199-213.
- Boughton, D.(1986). Visual literacy: implications for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art education.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5(1-2), 125-142.
- Broudy, H. S.(1972). *Enlightened Cherishing: An Essay on Aesthetic Education*,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Bruner, J.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pman(1985). *Discover art*. Grade 1-6. Worcester, Massachusetts: Davis Publications, Inc.
- Chapman(1994). *Adventures in Art*. Grade 1-6. Worcester, Massachusetts: Davis Publications, Inc.
- Clark, R.(1996). *Art Education: Issues in Postmodernist Pedagogy*. Reston, Virginia: NAEA.
- Crawford, D. W. (1989). *Aesthetics in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pp.227-242. In Smith, R. A.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Dewey, D.(1933). *How we think*.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 Dewey, D.(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aragon.
- Dunn, P. C.(1995). *Creating Curriculum in Art*. Reston, Virgini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fland, A. D.(1990a). *Art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A history of ideas*. In Soucy, D. & Stankiewicz, M. A.(Eds). Framing the past: Essays on art education. Reston: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fland, A. D.(1990b). *A history of art education: Intellectual and social currents in teaching the visual art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박정애 역(1996). **미술교육의 역사**. 서울: 예경.
- Efland, A. D.(2002). *Art and cogni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Efland, A., Freedman, K., Stuhr, P.(1996). *Postmodern Art Education: an approach to Curriculum*. Reston. Virgini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isner, E. W.(1972). *Educating artistic vision*. New York: Macmillan.
- Eisner, E. W.(1972). *Educating Artistic Vision*. 서울교육대학교미술교육연구회 역(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 예경.
- Eisner, E. W.(1973-4). Examining some myths in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15(3), 7-16.
- Eisner, E. W.(1988).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김인용, 김대현 역 (1995). **학문기초 미술교육 운동**. 서울 : 학지사.
- Eisner, E. W.(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박승배 역(2003). **인지와 교육과정**. 서울 : 교육과학사.
- Feldman, D. H., Gardner, H.,& Csikszentmihalyi, M.(1994). *Changing the world: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creativity*. Westport, Conn: Praeger.
- Freedman, K.(1997). *Teaching technology got meaning*. Art Education, 50(4).
- Gardner H. and D. Perkins eds.(1988). *Art, Mind & Education: Research from Project Zero*. Univ. of Illinois.
- Goodman, N.(1984). *Of Mind and Other Matters*, Harvard Univ. Press.
- Goodman, Nelson(1969). *Languages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Oxford Univ. Press.
- Greene, M.(1981). *Aesthetic Literacy in General Education*, in *Philosophy and Education*, ed. Jonas F. Soltis, Univ. of Chicago Press. 121-141.
- Lankford, E. L.(1992). *Aesthetics: Issues and inquiry*.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Levi, A. W. and Smith, A. R. (1993). *Art Education: A Critical Necessity*. Univ. of Illinois Press.

- Lowenfeld, V.(1947)(1987). *Creative and Mental Growth*, 서울교육대학교 미술 교육연구회 옮김(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 미진사.
- Liotard (Jean-François)(1970). *La condition postmoderne*, Paris: Galilée.
- NAEA(1999). *Purpos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Art Programs*.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Neperud, R. W.(1995). Transitions in Art Education: A Search for Meaning. In Neperud, R. W.(Ed.). *Context, Content, and Community in Art Education: Beyond Postmodernis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22.
- Parsons, M. J. and Blocker, H. G.(1993). *Aesthetics and Education*, Univ. of Illinois Press. 김광명 역(1998). **미학과 예술교육**. 서울 : 현대미학사.
- QCA(2000).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2000 What has changed?*.
- Smith, P. 배재한 역(2003). 시각 문화와 미술 교육. **미술과 교육. 제4집**. 65-77.
- Stolnitz, J.(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Houghton Mifflin C., 오병남 역(1999),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 이론과 실천.
- Anderson, T.(1995). *Toward a cross-cultural structure for art criticism*. Studies in Art Education 36. (4). pp. 198-209. 안금희 역(2002). **교사를 위한 미술비평 모델**. 미술교육논총 제13집.
- Vygotski (Lev)(1992), *Pensée & langage* (1934), trad. de Françoise SÈVE, Paris: La Dispute.
- 이은적, Champ artistique et construction des objets d'enseignement - Une réflexion épistémologique sur l'enseignement des arts plastiques dans le système scolaire français, et plus particulièrement sur son enseignement en tant que discipline obligatoire à l'école élémentaire et au collège (미술세계와 미술교육 내용의 구성. 프랑스 의무교육제도에서의 미술교육 내용의 구성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프랑스 파리 8대학, 2001,
- Accompagnement des programmes de 6e, C.N.D.P., Paris, 1996.

- Education artistique, classes des collèges, classes de 6e, 5e, 4e, 3e, C.N.D.P., Paris, 1995 (Arrêté du 14 novembre 1985).
- Les cycles à l'école primaire, C.N.D.P.(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Paris, 1991 (Arrêté du 15 mai 1985).
- Le projet d'école, C.N.D.P., coll. « Une école pour l'enfant, des outils pour les maîtres », Paris, 1992.
- L'éducation artistique à l'école, C.N.D.P./Hachette, coll. « Une école pour l'enfant, des outils pour les maîtres », Paris, 1993.
- Programmes d'arts plastiques (classes de seconde, première et terminale), B.O.E.N., n° 11 du 1er septembre 1994 (Arrêté du 7 juillet 1994).
- Programmes de l'école primaire, C.N.D.P., Paris, 1995 (Arrêté du 22 février 1995).
- Programmes de 6e, C.N.D.P. et Savoir Lire, coll. « Collège », diffusion Magnard, Paris, 1996.
- Programmes de 5e et 4e, C.N.D.P. et Savoir Lire, coll. « Collège », diffusion Magnard, Paris, 1996.
- Accompagnement des programmes de 5e et 4e, C.N.D.P., Paris, 1997.

<미국>

<http://www.mcrel.org/>(McREL: Mid-Continen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http://www.cde.ca.gov/>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nagb.org/> (NAGB: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http://www.groton.org/> (Groton School)

<http://www.milton.edu/> (Milton Academy)

<http://schools.cranbrook.edu/> (Cranbrook Schools)

<영국>

<http://www.nc.uk.net/> (NC: The National Curriculum)

<http://www.nlcs.org.uk/>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http://www.harrowschool.org.uk/> (Harrow School)

<http://www.etoncollege.com/> (Eton college)

<캐나다>

<http://www.gov.bc.ca/> (BC: British Columbia)

<http://www.edu.gov.on.ca/> (ON: Ontario)

<http://www.stgeorges.bc.ca/> (Saint George's School)

<http://www.brentwood.bc.ca/>(Brentwood CollegeSchool)

<http://www.bced.gov.bc.ca/irp/curric/lo.html>

<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art/art.html>

<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secondary/arts/artsfulhtml>

<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secondary/grade1112/arts/arts.html>

<프랑스>

http://www.eurydice.org/accueil_menu/en/frameset_menu.html

<호주>

<http://www.decs.act.gov.au/publicat/acpframeworks.htm>

<http://www.decs.act.gov.au/publicat/pdf/arts297.pdf>

<http://www.decs.act.gov.au/publicat/profiles.htm>

<http://www.curriculum.edu.au/mceetya/adeldec.htm>

<http://www.curriculum.edu.au/mceetya/nationalgoals>

<http://www.detya.gov.au/schools/adelaide>

<http://www.savaea.org.au/papers/rtoseven.html>

<일본>

www.monbu.go.jp

<대만>

<http://www.edu.tw/>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igh School Elective-centered Art
Curriculum

Yang, Yun-Jeong

Park, So-Young

The 7th National Curriculum consists of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which covers from the elementary level to the first grade at the high school level, and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grade at the high school level. By allowing students to decide their courses of study,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relevance of the instructional content for each student and, ultimately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or not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s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Elective-centered Curriculum. Furthermore,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problems in current practices it draws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um that can provide meaningful art education for various students. The literature review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and documents on the National Curriculum. In addition, multiple research methods are used such as holding the expert councils on central issues and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The summarie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In Chapter 2, the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a of other countries are analyzed. The structure, operation, and constitution of high school art cours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ngland, France, Japan, and Taiwan are analyzed so as to generate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Several implications are drawn as follows. First, various art courses are offered. Second, courses are titled as 'Art Foundations,' 'Studio Arts' 'Media Arts' 'Plastic Arts' 'Arts Life' and so on. Third, the nature and content of 3 art elective courses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might have the advanced starting point by aligning with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content standards of the 10th grade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Taiwan. Fourth, the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a of other countries reflect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the change from general education to professional education. The other is the effort to offer courses required for cultural refinement or liberal arts.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several purposes simultaneously and to harmoniz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stead of choosing one over the other. Fifth, in constructing the content and presentation of art elective courses, the subject matter and textbooks can be used for reference.

In Chapter 3, the researche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elective-centered curriculum and the National Curriculum are analyzed so as to examine the meaning of an "elective" in association with its original purpose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s to open general elective courses and advanced elective courses, which reflect two discrete purposes such as the 'completion' of secondary education and the 'preparation' for the future. According to this structure, the art curriculum includes 'Art and Living' for the general elective, and 'Art Theory' and 'Art Studio' as the advanced electives. The arrangement and operation of the advanced electives is subject

to follow the 'Special Subject of Art,' whereas there is no specific guide for the operation of the electives at general high schools. Thus, this study has examined if the curriculum of 'Art and Living' and the documented nature, objective, content, methods, and evaluation of art courses such as 'Art Theory' and 'Drawing' are appropriate to the original purpose. As the result, the content of the special subject of art is not appropriate to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o some ext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actice of the 7th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 schools, and examines the opinions of teachers, students and specialists on the relevance and improvement of current elective courses. In many cases, various art electives are offered only in schools that have arts concentration programs. In other schools, art electives are chosen at a low rate in comparison to other similar subject groups, or rarely register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teachers and facilities. In terms of the relevance of each elective course, teachers, students and specialists have mentioned several problem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Art and Living,' 'Art Theory,' and 'Art Studio.' In 'Art and Living' they have pointed out that 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the first grade high school art. The relevance of 'Art Theory' and 'Art Studio', which are substituted by the special subject of art, is evaluated as not appropriate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its width and depth of content. Thus, it is inevitable to develop an advanced elective curriculum for the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Besides, the unicameral system of elective course 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are regarded as positive.

In Chapter 4 based the implications discussed above, the possible ways of improving the art elective curriculum are explored. The bas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iculum needs to reflect the various

interests and career plans of the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Second, the elective curriculum needs to be aligned with the High School Art Curriculum by considering the level and extent of art learned by the first grade in high schools. Third, the curriculum needs to correspond with the transforming direction of art education and the need of schools and classrooms. Fourth,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operating art elective courses should be provided so as to execute various art education in schools. According to these basic directions, this study has laid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High School Elective-centered Curriculum. Art elective courses purports to intensify art learned by the first grade in high schools and to serve cultural refinement, relevance, and intensive major. The titles of courses are revised as 'Art and Life,' 'Art Appreciation,' and 'Art Production'. The level and extent of courses are to be at the similar level so that they can be completed in any order. Yet, if the concentration courses are in practice, 'Art Production' is the required, and then other courses can be completed in any order. In order to foster the alignment of the elective courses with common art courses, the content is constructed in a way to expand and deepen the notion of aesthetic experience, expression, and appreciation in art.

In Chapter 5, the development and deliberation of textbooks for the elective courses are discussed. A textbook actualizes the curriculum and has influence on teachers' practices. Thu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it is important to explain how and in which way the curriculum should be embodied through textbooks. Based on the guide for the 7th textbook development and deliberation, this study has revised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compilation and deliberation by examining the selection,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content that embody the instructional content of each course.

At last, this study has proposed that policy making is needed to support the art elective-centered curriculum so that it can be actually carried out in schools.

부록 1.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설문지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1종 도서를 개발하며,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관장하는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도에 제7차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고등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외에 달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해주시면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6. 4. .

한국 교육 과 정 평 가 원

- ※ 작성하신 설문지는 모두 수합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어 **2006년 4월 15일 (토)**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응답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서술하여 주십시오.
- ※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화 : 02-3704-3667, 3668 / 팩스 : 02-3704-3580

■ 다음은 학생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_____(1) 남 _____(2) 여
2. 진학예정계열 : ___(1) 인문 ___(2) 자연 ___(3) 미술___(4) 미술 외 예체능
_____ (5) 기타 _____
3. 학교 소재지 : _____(1) 서울특별시 _____(2) 광역시 _____(3) 중소도시
_____ (4) 읍면

(1-5) 다음은 학생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미술과 선택과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미술과 생활」 과목을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습니까?
_____ (1) 예 (1-1, 1-2, 1-3번으로 가시오)
_____ (2) 아니오(1-4번으로 가시오)
 - 1-1. 「미술과 생활」 과목의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미술」 수업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_____ (1)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거의 비슷하다.
_____ (2)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을 좀더 심화시켰다.
_____ (3) 고등학교 1학년 미술보다 좀더 확대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_____ (4) 고등학교 1학년 미술보다 좀더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다.
_____ (5) 기타 : _____
 - 1-2. 학생이 「미술과 생활」 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 _____ (2)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
_____ (3) 미술을 좋아해서 _____ (4)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_____ (5) 기타 : _____
 - 1-3. 「미술과 생활」 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과 학습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3-1. 내용 수준 : _____ (1) 높다 _____ (2) 보통이다 _____ (3) 낮다
1-3-2. 학습량 : _____ (1) 많다 _____ (2) 보통이다 _____ (3) 적다
 - 1-4. 학생이 「미술과 생활」 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_____ (2) 진로와 관련이 없어서

- ____(3) 수능 시험과 관련이 없어서 ____ (4)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____ (5) 수업 준비가 많아서 ____ (6) 평가가 부담스러워서
 ____ (7) 기타 : _____

2. 학생은 「미술 이론」 관련 과목을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습니까?

- ____ (1) 예 (2-1, 2-2, 2-3, 2-4, 2-5번으로 가시오)
 ____ (2) 아니오(2-6번으로 가시오)

2-1. 구체적인 과목 명과 개설된 학기, 주당 수업 시간을 써주십시오.

과목 명	개설 학기(학년-학기)	주당 수업 시간

2-2. 「미술 이론」 관련 과목에서 배웠거나 배운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____ (1) 미술의 특성	____ (2) 미술의 역할	____ (3) 조형요소와 원리	____ (4) 한국미술사	____ (5) 동양미술사
____ (6) 서양미술사	____ (7) 회화 이론	____ (8) 조소 이론	____ (9) 디자인 이론	____ (10) 공예 이론
____ (11) 서예 이론	____ (12) 판화 이론	____ (13) 영상미술	____ (14) 미술 감상	____ (15) 기타 :

2-3. 학생이 「미술 이론」 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 (1)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 ____ (2)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
 ____ (3) 미술을 좋아해서 ____ (4) 실생활에 도움이 되서
 ____ (5) 기타 : _____

2-4. 「미술 이론」 과목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과 학습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4-1. 내용 수준 : ____ (1) 높다 ____ (2) 보통이다 ____ (3) 낮다
 2-4-2. 학습량 : ____ (1) 많다 ____ (2) 보통이다 ____ (3) 적다

2-5. 「미술 이론」 과목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_ (1) 필요하다 ____ (2) 필요하지 않다

2-6. 학생이 「미술 이론」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2) 진로와 관련이 없어서
 (3) 수능 시험과 관련이 없어서 (4)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5) 수업 준비가 많아서 (6) 평가가 부담스러워서
 (7) 기타 : _____

3. 학생은 「미술 실기」 관련 과목을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습니까?

- (1) 예 (3-1, 3-2, 3-3, 3-4, 3-5번으로 가시오)
 (2) 아니오(3-6번으로 가시오)

3-1. 구체적인 과목 명과 개설된 학기, 주당 수업 시간을 써주십시오.

과목 명	개설 학기(학년-학기)	주당 수업 시간

3-2. 「미술 실기」 관련 과목에서 배웠거나 배운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 소묘	<input type="checkbox"/> (2) 유화	<input type="checkbox"/> (3) 수채화	<input type="checkbox"/> (4) 수묵화	<input type="checkbox"/> (5) 채색화
<input type="checkbox"/> (6) 판화	<input type="checkbox"/> (7) 조각	<input type="checkbox"/> (8) 소조	<input type="checkbox"/> (9) 시각디자인	<input type="checkbox"/> (10) 제품디자인
<input type="checkbox"/> (11) 환경디자인	<input type="checkbox"/> (12) 염색공예	<input type="checkbox"/> (13) 금속공예	<input type="checkbox"/> (14) 도자공예	<input type="checkbox"/> (15) 서예
<input type="checkbox"/> (16) 건축	<input type="checkbox"/> (17) 사진	<input type="checkbox"/> (18) 컴퓨터그래픽	<input type="checkbox"/> (19) 애니메이션	<input type="checkbox"/> (20) 기초조형
<input type="checkbox"/> (21) 표현기법	<input type="checkbox"/> (22) 기타 :			

3-3. 학생이 「미술 실기」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서 (2)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
 (3) 미술을 좋아해서 (4)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5) 기타 : _____

3-4. 「미술 실기」 과목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과 학습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3-4-1. 내용 수준 : (1) 높다 (2) 보통이다 (3) 낮다
 3-4-2. 학습량 : (1) 많다 (2) 보통이다 (3) 적다

6.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반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미술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1종 도서를 개발하며,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관장하는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7차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이를 운영해 오신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외에 달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해주시면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6. 4. .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 ※ 작성하신 설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2006년 4월 15일(토)까지 보내주시십시오.
- ※ 응답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술교육연구실
전화 : 02-3704-3667, 3668 / 팩스 : 02-3704-3580

■ 다음은 선생님과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 ____ (1) 남 ____ (2) 여
2. 경 력 : ____ (1) 3년 이하 ____ (2) 4-10년 ____ (3) 11-20년 ____ (4) 21년 이상
3. 학교 소재지 : ____ (1) 서울특별시 ____ (2) 광역시 ____ (3) 중소도시 ____ (4) 읍면
4. 귀교에는 예술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과정 명에 √표 하여 주십시오.
		____ ① 미술과정 ____ ② 예술과정 ____ ③ 예체능과정 ____ ④ 기타

5. 귀교에는 다음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의 경우 해당 학기에 단위수와 개설된 과목 명을 적어 주십시오.			
			2-1	2-2	3-1	3-2
미술과 생활			단위수:	단위수:	단위수:	단위수:
미술이론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미술실기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단위수: 과목 명:

(1-4) 다음은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의 성격과 개설된 미술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성 격	교양 증진 및 실생활 관련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	
과목 수	1	2	
과목 명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단위 수	4단위	4단위	4단위 이상

1. 일반선택과목인 「미술과 생활」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각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성 격			
과목 수			과목 수:
과목 명			과목 명:
단위 수			단위 수:

2. 심화선택과목인 「미술 이론」, 「미술 실기」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각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성 격			
과목 수			과목 수:
과목 명	미술 이론		과목 명:
	미술 실기		과목 명:
단위 수	미술 이론		단위 수:
	미술 실기		단위 수:

3. 다음은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 현재는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개선 방향】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으로의 구분이 연계성과 계열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반, 심화의 과목 구분을 없애고 선택과목으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 3-1. 선택과목으로 일원화한다면, 적절한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적어주십시오.

----(1) 교양 증진

----(2) 실생활 관련

----(3)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

----(4) 기타 _____

6.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목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미술과 생활」의 목표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생활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미술과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7.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1) 미술과 미술 문화 이해
 ____ (2) 미술품의 가치 판단
 ____ (3)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____ (4) 기타 _____

8.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영역별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별 수준과 교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표 하여 주십시오.

영역	내용	내용의 수준			내용의 필요성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미술의 이해	·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기						
	·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이해하기						
	·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미술 감상	·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 시대별, 지역별로 미술품 감상하기						
	·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						
미술 창작	·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 환경 꾸미기						
	·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 제작하기						
	·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하기						

9. 「미술과 생활」 내용으로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0.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미술과 생활」의 교수·학습 방법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 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가. 학습 지도 계획 시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존중			
나.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 행사 또는 계절 등 고려			
다.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라. 미술의 이해 지도 시 유의 사항: 멀티미디어 활용, 표현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 고려			
마. 미술 감상 지도 시 유의 사항: 다양한 감상 관점 활용, 미술 용어 이해 및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이해 및 표현 활동과의 연계 고려, 미술품 존중 태도 함양			
바. 미술 창작 지도 시 유의 사항: 다양한 발상 지도,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학습 내용 선정,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도, 환경 문제 고려, 이해 및 감상 활동과의 연계 고려, 주변 정리			

11. 현행 「미술과 생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현행대로 한다.
 (3) 좀더 간략하게 제시한다.
 (4) 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
 (5) 기타 _____

(16-20) 다음은 선택 과목의 교과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미술과 생활」 교과서

16. 「미술과 생활」 교과서를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 ____(1) 수업 시간 마다 활용한다. (16-1로)
 ____ (2)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16-1로)
 ____ (3)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16-1. 어느 내용 영역을 지도할 때 교과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십니까?

- ____(1) 미술의 이해 ____ (2) 미술 감상 ____ (3) 미술 창작

17.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내용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1. 학습량:

- ____(1) 매우 많다 ____ (2) 많다 ____ (3) 적절하다 ____ (4) 부족하다
 ____ (5) 매우 부족하다

17-2. 내용 수준:

- ____(1) 매우 어렵다 ____ (2) 어렵다 ____ (3) 적절하다 ____ (4) 쉽다
 ____ (5) 매우 쉽다

18. 향후 「미술과 생활」 교과서에서 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____(1)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
 ____ (2) 교과서의 편집이나 제시 방식 등 형식적 측면
 ____ (3) 전자 교과서 등 다양한 교과서 유형이나 매체로 개발
 ____ (4) 교과서 보충 자료의 다양화
 ____ (5) 기타_____

※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 현재 「미술 이론」, 「미술 실기」는 별도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술계열 전문교과의 경우에도 과목별 교과서가 모두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인정도서로 <미술이론>, <미술사>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9.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이론」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필요하다 (19-1로)

____(2) 필요하지 않다

19-1. 「미술 이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1) 미술의 이해: 미술의 특성, 미술의 역할

____(2) 미술의 구조: 조형 요소, 조형 원리

____(3) 미술의 영역별 이론: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영상 미술, 기타

____(4) 미술사: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____(5) 미술 감상

____(6) 기타 _____

20.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실기」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필요하다 (20-1로)

____(2) 필요하지 않다

20-1. 「미술 실기」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1) 소묘

____(2) 회화

____(3) 판화

____(4) 조소

____(5) 디자인

____(6) 공예

____(7) 서예

____(8) 영상 미술

____(9) 조형의 기초

____(10) 실기 영역 모두

____(11) 기타 _____

(21) 11, 12학년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반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1종 도서를 개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장하는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7차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술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외에 달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해주시면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6. 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작성하신 설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2006년 4월 15일(토)까지 보내주십시오.
- ※ 응답하는 방식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술교육연구실
전화 : 02-3704-3667, 3668 / 팩스 : 02-3704-3580

■ 다음은 선생님께서 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 _____(1) 남 _____(2) 여
2. 직 급 : ___(1) 대학 교원(교수 및 강사) ___(2) 교육전문직 ___(3) 중등 교원
 - 2-1. 교수 및 강사의 소속 : _____(1) 교육대학 _____(2) 사범대학 _____(3) 비
사범대학
3. 선택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참여 여부 :
 - _____ (1) 있다 : ___① 미술과 생활 ___② 미술 이론 ___③ 미술 실기 ___③
기타 _____
 - _____ (2) 없다

(1-4) 다음은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의 성격과 개설된 미술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성 격	교양 증진 및 실생활 관련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 계발	
과목 수	1	2	
과목 명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단위 수	4단위	4단위	4단위 이상

1. 일반선택과목인 「미술과 생활」의 성격, 과목 수, 과목 명, 단위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각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성 격			
과목 수			과목 수:
과목 명			과목 명:
단위 수			단위 수:

「미술과 생활」의 목표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생활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미술과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7.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목표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미술과 미술 문화 이해
- (2) 미술품의 가치 판단
- (3)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4) 기타-----

8.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영역별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별 수준과 교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표 하여 주십시오.

영역	내용	내용의 수준			내용의 필요성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미술의 이해	·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미술의 구조와 용어 등을 이해하기						
	·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이해하기						
	·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미술 감상	·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 시대별, 지역별로 미술품 감상하기						
	·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						
미술 창작	· 미술품을 제작하여 생활 환경 꾸미기						
	· 생활에 필요한 미술품 제작하기						
	·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하기						

12.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미술과 생활」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아니다'에 답한 경우 개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미술과 생활」의 평가	(1) 그렇다	(2) 아니다	(3) '아니다'의 경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가.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평가			
나.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의 균형 있는 평가			
다.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라. 3가지 내용 영역을 모두 평가			
마. 평가 기준 제시			
바. 개인별 성장 수준 파악을 위한 결과의 누 가 기록			
사. 각 영역별 평가 요소			

13. 현행 「미술과 생활」 평가 부분의 제시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1)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____ (2) 현행대로 한다.
 ____ (3) 좀더 간략하게 제시한다. ____ (4) 교사에게 일임해야 한다.
 ____ (5) 기타 _____

※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육과정

현재 미술과의 심화선택과목인 「미술 이론」 「미술 실기」는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다음과 같은 예술계열 전문교과의 과목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계열 전문교과
미술 이론	「미술 이론」, 「미술사」
미술 실기	「소묘」,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영상 미술」, 기타

(16-19) 다음은 선택 과목의 교과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미술과 생활」 교과서

16. 「미술과 생활」 교과서의 학습량, 내용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1. 학습량:

- ____(1) 매우 많다 ____ (2) 많다 ____ (3) 적절하다 ____ (4) 부족하다
 ____ (5) 매우 부족하다

16-2. 내용 수준:

- ____(1) 매우 어렵다 ____ (2) 어렵다 ____ (3) 적절하다 ____ (4) 쉽다
 ____ (5) 매우 쉽다

17. 향후 「미술과 생활」 교과서에서 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____(1)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측면
 ____ (2) 교과서의 편집이나 제시 방식 등 형식적 측면
 ____ (3) 전자 교과서 등 다양한 교과서 유형이나 매체로 개발
 ____ (4) 교과서 보충 자료의 다양화
 ____ (5) 기타 _____

※ 「미술 이론」, 「미술 실기」 교과서

- 현재 「미술 이론」, 「미술 실기」는 별도의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술계열 전문교과의 경우에도 과목별 교과서가 모두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인정도 서로 <미술이론>, <미술사>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8.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이론」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1) 필요하다 (18-1로)
 ____ (2) 필요하지 않다

부록 2.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연구 협의회 회의록

미술과 선택과목 설문 검토 협의회

일시 : 2006년 3월 17일(금) 15:00~17: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협의실(별관 102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4명) 양민영(삼성고), 홍기태(부평여고), 류장걸(인천교육연수원), 송희성(계원예고)

협의 내용

1. 교사용(전문가용) 설문지 검토

- 학교 소재지 외에 학교 구분이 필요함.(국공립, 사립)
- 1-1번 문항에서 미술과 생활은 1학년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1학년 예시 삭제
- 1-2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추가
- 2-4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예체능반이 개설되지 않아서' 추가
- 3-1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대학진학 관련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추가
- 4번 문항에 예술체육과정 설치에 대한 찬반에 대한 문항 추가
- 7, 8, 9, 10 문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9번 문항은 우선순위를 질문하는 것으로 수정.
- 20번 문항에서 선택지의 순서를 수정 : 현행을 중심으로 좀더 간략한 제시에서 구체적인 제시의 순서
- 25번 문항에서 (5)번 선택지 삭제
- 28-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를 소묘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30-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에 소묘와 조형의 기초와 실습 등을 포함하여 질문

2. 학생용 설문지 검토

- 1-3번 문항에 '수업준비가 많아서',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등을 포함
 - 나머지 부분은 교사용과 동일하게 수정
-

미술과 설문지 검토 집중작업

일시 : 2006년 4월 3일(월) 10:00~22: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제3협의실 511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김원정

원외(6명) : 박선혜(서울대박사과정), 장연자(홍익대박사과정), 안금희(경인교대), 고헌경(중흥중), 황숙희(청천중), 김찬기(청량고)

협의 내용

1. 교사용(전문가용) 설문지 검토

- 학교 소재지 외에 학교 구분이 필요함.(국공립, 사립)
 - 1-1번 문항에서 미술과 생활은 1학년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1학년 예시 삭제
 - 1-2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추가
 - 2-4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예체능반이 개설되지 않아서' 추가
 - 3-1번 문항에서 선택지에 '대학진학 관련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추가
 - 4번 문항에 예술체육과정 설치에 대한 찬반에 대한 문항 추가
 - 7, 8, 9, 10 문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9번 문항은 우선순위를 질문하는 것으로 수정.
 - 20번 문항에서 선택지의 순서를 수정 : 현행을 중심으로 좀더 간략한 제시에서 구체적인 제시의 순서
 - 25번 문항에서 (5)번 선택지 삭제
 - 28-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를 소묘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30-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에 소묘와 조형의 기초와 실습 등을 포함하여 질문
-

미술과 선택 교육과정 성격 설정 협의간담회

일시 : 2006년 4월 13일 (목) 15: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제6회의실(103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0명) : 김찬기(청량고), 김종수(서울시교육청), 정연희(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서인숙(상모고), 원종임(상일중), 박만용(부명중), 안동선(교
육부), 오병욱(동국대), 김형숙(서울대), 강해중(진서고)

협의 내용

1. 선택과목 성격 범주들에 대한 의미 규정

- 총론 방향 : 교양 증진, 실생활 관련, 적성 함양, 진로 계발

가. 교양 증진 관련 논의

-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위치는 ‘교양’을 중심으로 한축은 진로에 한축은 실생활에 관련되어진다.
- 진로 방향에서는 전문가 교육(professional)을 위한 소양을 실생활에서는 미술과 미디어, 미술과 비평 등의 실제적인(practical) 과목으로 구성해야 함.
- 대학에서 가장 선택이 많이 되는 것은 ‘미술의 이해’임. 특히 타대학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있음.
- 미술에서 이해는 교과 본질적인 부분이면서도 수요가 많은 부분임. 가장 기초적인 미술의 이해가 필요함.
- 미술의 이해 관련 과목을 순서가 있는 과목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그림 읽기가 중요함.
-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이해와 실습이 포함되어야 함.
- 미술의 체험, 실습, 이해, 비평에서부터 시작

나. 진로 관련

- 적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며,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적성까지 고려하기에는 뒤늦은 단계임. 좀더 학생의 사회 생활에 맞춰야 될 필요.
- 어떤 진로(직업)를 선택하든 미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 필요함.
- 진로에서 대상은 비예체능계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제함.
- 미술실기와 미술이론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필요한 기능과 소양으로 볼 수 있음. 예술 경영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음.

다. 생활 연관

- 미술과 생활은 결국 미술의 이해였다. 차라리, ‘색과 생활’, ‘--과 생활’ 등의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 미술과 생활은 생활 관련 주제들을 지식으로 다루거나, 교사들이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좀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공통교과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교사의 자율성을 약간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생활 연관의 의미는 생활의 필요와 타학문영역과 통합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음.

미술과 선택 교육과정 성격 설정 협의간담회

라. 과목 구분 아이디어

대상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구분5	구분6
비예 술계	-미술이해와 비평 -미술실기(미술 에서 다른 것 중 1가지 심화)	-직업관련미술 이론 -직업과 관련된 미술 실기	-실생활 관련 미술과 미디어 -실생활 관련 미술 비평 -미술과 사회사 (공통교양)	-미술 체험 과 실습 -미술이해 와 비평	-생활속의 미술의 이해와 실습	미술의 이해시리즈 1, 2, 3
예술 계	-현대적인 미술 실기		-미술과 사회사 (공통교양) -전문적인 과목	-조형과 감상	-미술감상과 비평(감상 의 길잡이) -조형의 기초(매체, 구조, 언어, 실습)	

- 비예술계 대상의 과목 A, B 유사 과목이면서 중점 차별화 방안(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선택과목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전략)
- 미술1, 2, 3의 시리즈
- 비예술계 학생들의 교양, 직업, 생활 과목 개설 방안

마. 합의할 내용

- 대상을 진학계열과 무관한 일반 학생들로 할 것인가, 또는 미대진학생들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 일반 학생들을 위한 미술의 이해, 미술 실기, 미술 감상 과목 개설이 가능함.(미술과 생활의 내용 분화)
- 미술의 이해와 미술 감상 과목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문제
- 7, 8, 9, 10 문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9번 문항은 우선순위를 질문하는 것으로 수정.
- 20번 문항에서 선택지의 순서를 수정 : 현행을 중심으로 좀더 간략한 제시에서 구체적인 제시의 순서
- 25번 문항에서 (5)번 선택지 삭제
- 28-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를 소묘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30-1번 문항에서 공통실기에 소묘와 조형의 기초와 실습 등을 포함하여 질문

미술과 선택과목 성격 설정을 위한 집중 작업

일시 : 2006년 4월 20일(목) 10:00~22: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6명) 안동선(교육부), 서인숙(상모고), 김찬기(청량고), 김형숙(서울대),
오병욱(동국대), 강해중(진서고)

협의 내용

1. 선택과목 대상에 대한 논의

- 협의회 결과, 미대 진학과 무관한 학생들과 미대 진학 예정 학생들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이 우세함.
- 7차의 경우 일반 선택 1과목, 심화 선택 2과목으로 구분되어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따라서,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1과목, 심화 선택에 해당하는 1과목,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미대 진학 학생들에게도 취약하면서 일반 학생에게도 필요한 과목으로 개설함.

2. 선택과목 명(가상) 선정

- 미술 A : 일반학생 대상으로 함
 - 현행 미술과 생활의 내용 수정
 - 미술의 주제별 내용 영역 선정
 - 각 주제별로 체험, 이해, 실습의 수업
 - 미술 B : 일반학생과 미대진학학생 공통으로 함.
 - 학교 교육에서 미술 비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함
 - 미술 감상과 비평과목 개설
 - 미술관이나 박물관 순례 형식 가능함.
 - 미술 C : 미대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전공 공통의 기초 및 교양 과목
 - 조형의 이해와 실기(창작), 조형론
-

미술과 선택과목 성격 설정을 위한 집중 작업

일시 : 2006년 4월 26일(수) 15: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회의실

참석자 : 원내(3명) 양운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0명) : 서인숙(상모교), 안동선(교육부), 오병욱(동국대), 김형숙(서울대), 조종현(개웅중), 박우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조은정(서울대), 김백균(중앙대), 김정선(홍익대), 박선희(충남대)

협의 내용

1.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검토

-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보통 교과와 성격과 차별화되도록 과목 개설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사회생활에서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과목 개설
- 집중 과정 개설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공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 개설

2. 미술과 선택과목별 성격 및 내용 구성 방향(안) 검토

가. 미술과 생활

-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미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
- 미술과 삶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미술이론 또는 미술실기
- 미술과의 논술이나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의 지문에서 다루는 예술 지식이나 사실들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음.
- 인문교양적인 측면에서 주제 선정
- 내용 영역의 예 :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미술과 종교, 미술과 미디어 등

나. 미술 감상과 비평

-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공준비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미술 분야의 비평적 안목 형성 과목
- 작품 감상과 비평 활동 중심의 미술 과목
- 미술 비평에 대한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 미술관과 박물관 관련 내용 포함.

다. 조형의 이해와 실기/조형론

- 창작의 기초 이해와 실습 과목
- 특정 실기 분야에 국한되지 않도록 구성
- 미술 창작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영역 선정(조형학, 색채학, 해부학, 재료학, 매체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와 실습 구성 가능함.)

3. 기타 의견

- 과목 명이 좀더 흥미로운 것으로 발전되어야 함.
 - 7차 미술과 생활 교과서가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진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교과서 집필이 가능하도록 친절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내용 선정 협의회

일시 : 2006년 5월 2일 (화) 15: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운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명) 전성수(부천대)

협의 내용

1.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검토

-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보통 교과와 성격과 차별화되도록 과목 개설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사회생활에서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과목 개설
- 집중 과정 개설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공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 개설

2. 미술과 선택과목 '조형의 이해와 실기' 내용 구성 방향(안) 검토

- 창작의 기초 이해와 실습 과목
- 특정 실기 분야에 국한되지 않도록 구성
- 미술 창작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영역 선정(조형학, 색채학, 해부학, 재료학, 매체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와 실습 구성 가능함.)

3. 기타 의견

- 과목 명이 좀더 흥미로운 것으로 발전되어야 함.
 - 7차 미술과 생활 교과서가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진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교과서 집필이 가능하도록 친절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별 내용 검토 집중작업

일시 : 2006년 6월 1일(목) 14: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0명) 박선혜(서울대박사과정), 서인숙(상모고), 안동선(교육부), 조중현(개웅중), 오병욱(동국대), 김형숙(서울대), 조은정(서울대), 김백균(중앙대), 김정선(홍익대), 전성수(부천대)

협의 내용

1. 미술과 생활 과목

- 성격과 목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미술을 바라본다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설정
- 인문학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김정선 선생님의 안에서처럼 미술과 수학, 미술과 언어, 미술과 역사 등으로 설정할 것인가 또는 조중현 선생님 안처럼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내용처럼 쟁점으로 같 것인가의 합의 필요함.
- 미술과 생활이 인문학적 요소가 강해지면 미술감상과 차별화가 어려움. 차라리 생활 과학처럼 생활속에서 과학 원리를 찾아보게 하고, 원리를 이해시키는 편이 '생활'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봄.

2. 미술 감상과 비평

- 과목 명 수정 필요함. 예술고의 모든 교과에서 감상과 비평 포함시키는 방향 설정 따라서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이 예술계 과목과 중복됨.
- 미술 감상은 기본 교과와 차별화되어 보이지 않음. 미술 비평이 현장에서는 재미없게 보일 수 있음. 미술 감상 개설 취지로 볼때 '미술읽기'가 좋음.
- 내용 선정에서 감상과 비평을 다르게 볼 만한 교육적 의미가 부족함. 녹여서 새로운 내용 체계 선정 필요함.

3. 조형의 이해와 창작

- 이해 과목인가 창작 과목인가 성격 명료하지 못함.
 - 전통미술과 서구미술의 조형 방식을 통일된 목차하부에 진술 필요함.
 - 서예, 문인화, 회화, 조소 등이 내용 영역이 되는 것은 부적절함.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별 내용 검토 집중작업

일시 : 2006년 6월 16일(금) 14: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4명) 서인숙(상모고), 안동선(교육부), 김정선(홍익대), 박선희(충남대)

협의 내용

1. 적합성 검토 기관 소개

가. 16개 시도 초(2), 중(2), 일반고(2), 기타계 및 실업계 고(2) : 총 128개교의 검토 결과

나. 전국 단위 미술 교과 연구회 :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서울초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

다. 교육부 CUTIS 의견함

라. 평가원 홈페이지 의견함

2. 분석 방법 및 절차

가. 일반 절차 준수(현장 적합성 분석 지침 설명)

나. 미술과 절차 마련

다. 공동 연구진 분석 업무 분담

3. 미술과 분석 방법 및 절차 논의

가. 미술과 분석 방법 및 절차

- 1단계 : 검토 기관별, 검토 기준별 엑셀 자료 정리 완료됨.

- 2단계 : 검토 의견 기초 분석 : 연구진 업무 분담

- 3단계 : 검토 의견 타당성 1차 분석 평가 : 연구진 공동 검토(8월 초)

- 4단계 : 검토 의견 타당성 2차 분석 평가 : 연구협력위원 협의회(8월 중순)

- 5단계 : 검토 의견의 반영 방안 제시 : 토론회, 협의회(8월말)

- 6단계 : 검토 의견 최종 검토 및 시안 수정 보완 : 연구진 (9월)

- 공청회 : 10월

나. 2단계 수행 내용

- 검토 의견별 확인 후 교육과정의 구조 변경과 관련된 문제와 부분 수정 관련된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 의견 정리

- 업무 분담 : 초등학교, 교과연구회 : 양윤정/ 중학교 : 조중현/ 일반고 : 이성도/기타고 : 박소영/실업계 : 윤양희

다. 추후 일정

- 8월 둘째 주에 연구진 검토 집중 작업 개최

4. 미술과 초등학교 결과 분석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생소함과 의미 해설 요구 : 시각 문화, 시각 환경, 표현의 확장, 표현 과정 등

나. 용어 교체, 문장 수정

다. 학년 군별 내용 수준 조정 : 지각, 발견, 탐색, 탐구 등의 수준에 대한 검토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검토 전문직 협의회

일시 : 2006년 6월 21일 (수) 14: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4회의실(별관 101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운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0명) : 서인숙(상모고), 이경란(서울시동부교육청) 서권수(인천광역시 교육청) 서예식(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이옥주(충청남도교육청) 강재원(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김대복(경상북도교육연구원) 이현숙(전라남도교육청) 홍순열(제주교육과학연구원) 안동선(교육인적자원부)

협의 내용

1.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소개
2. 2005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 개선 연구 경과 소개
3.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현장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소개
4. 선택과목별 개선 내용 검토
 - 가. 과목 명
 - 학생들에게 호감이 가는 과목 명이 필요함. : 창조적인 삶, 미적인 삶, 미술과 삶, 미술과 사회, 생활 속의 미술, 미술 감상, 미술의 이해, 바라보는 미술, 표현하는 미술, 조형과 창작, 미술의 이해와 창작, 미술 창작, 미술 I II III)
 - 과목 명을 '비평' 으로 하는 것은 제고가 필요함.
 - 나. 과목별 내용 체계
 - 세과목의 내용이 구분되는 것 보다 미술 I II III의 성격으로 통합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타당함.
 - 세과목의 성격 구분이 확실하여 7차보다 개선되어 있다고 보여짐.
 - 1) 미술과 생활
 - 소영역에서 디자인 분야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교사의 전공 문제와 관련됨.
 - 미술과 사회 영역에서는 문자, 마크 보다는 한시대의 상품디자인의 변화 등 경제, 정치와 미술 결부시켜 진술
 - 미술과 사회에서 지역별 조형의식의 다양성을 다룰 필요
 - 미술과 테크놀로지에서 과학의 발전과 미술 재료, 매체의 변화, 수공예의 시대적 변화, 인쇄기술의 변화 등을 다룰 필요
 - 미술과 직업에서 (나)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진로 설계, 진로 준비, 진로 탐색 등이 적합함.
 - 미술과 예술의 영역명 수정이 필요함. 미술과 문화, 미술과 통합,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검토 전문직 협의회

2) 미술감상과 비평

- 대영역의 분류를 전통미술과 서양미술로 하고 그 하부에 관찰, 분석, 판단 등을 다룰 필요
- 미술사가 누락되는 것을 보완할 필요
- 미술사는 맥락적 분석과 해석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서 강조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최근의 미술과 독서를 연결시켜 보는 활동을 포함할 필요. 비평문 분석 등에 항목 포함할 필요.
- 미술관, 박물관 교육 부분을 강조할 필요

3) 조형의 이해와 창작

- 소영역에 전통과 서양의 구분은 논리적이지 못함. 평면과 입체의 구분 필요함.
- 중영역에 ‘문화적 차이’ 보다는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문화’가 적합함.
- 창작에서는 ‘발상’이 강조될 필요

다. 현장 적용에서 예상되는 문제

- 3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 교사 업무 부담. 선택이 거의 어려울 것이다.
- 집중 과정이 운영될 경우는 3과목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지역 사회 중심 학교, 과목별 운영학교 등으로 해소 가능하다(충남의 주말 학교 진로 교과 운영을 중점 학교에서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음)
- 선택과목 이수율의 대안적인 지침으로 ‘지역의 학습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학원등이 개입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음. 대안으로는 ‘지역의 집중 학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함.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검토 교사 협의회

일시 : 2006년 6월 28일 (수) 14: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4회의실(별관 101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2명) 유순식(충남서천여고), 전상보(목포제일여고), 이달훈(경기수원청
명고), 박만용(경기부천부명중), 나정아(경기광명광문고), 유덕철(인천청학공고),
윤여준(충남서산농공고), 신진환(울산효정고), 서순원(강원태백장성여고), 김
병일(전남대사대부고), 안동선(교육인적자원부), 서인숙(상모고등학교)

협의 내용

1.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소개
2. 2005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 개선 연구 경과 소개
3. 제7차 미술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현장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결과 소개
4. 의견
 - 가. 과목 개설 방향
 -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양 과목이 대폭 늘어야 함.
 - 세 과목이 어느 과목을 이수해도 유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미술 I II III으로 구
성해야 함
 - 세 과목을 유사하게 갈 경우에 현재의 미술 교과와 수업 내용의 차별화가 어려우
며, 현재도 선택과목이 공통과목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함.
 - 세 과목이 미술의 학문적 분류의 성격이 강한데, 현장에서 다루는 미술 내용과 괴리
가 있을 수 있음.
 - 미술 교과는 오히려 학문적 체계가 약한 것이 문제이며, 학문적 분류에서 출발하더
라도 현재 구성된 내용은 현장의 미술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학교에서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과목도 동일한 절차를 9월에
거치게 됨
 - 현재 개선안의 내용은 강원도 지역 설문 조사 때 교사와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 미술이 교양이나 흥미 위주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세 과목의 이수 대상은 일반계 학생 중 전공자나 비전공자에게 모두 선택권을 부여
할 예정임. 특히, 세 과목의 성격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집중 과정이 개설될 경우
에 미술 과목이 4-5과목으로 늘어야 하기 때문임.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검토 교사 협의회

- 집중과정에서는 실기 과목이 대다수여야 하기 때문에 세 과목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임
- 실제로 미대 입학 학생들은 실기는 우수하지만 창작을 위해 필요한 미술 지식이나 안목에서는 다른 계열 진학자들과 수준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기 이외에 전공 교양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이수되어야 하며, 그렇게 때문에 세 과목에 이수 대상자를 일반계나 또는 미술계열 진학자냐를 구분하기 어려움.

나. 과목 명

- 현재 보다 간략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 미술 생활, 미술 감상, 미술 실기 등
- 교육과정의 과목 명과 교과서의 과목 명을 다르게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다. 과목별 내용 체계

1) 미술과 생활

- 대영역간의 위계가 어떤 것은 대상, 도구, 주제로 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음
 - 대영역 중 미술과 테크놀로지를 반드시 도구로만 볼 것은 아니며,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목적이나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대영역들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미술을 체험하는 과목의 성격에 맞지 않음.
 - 미술 작품을 포함한 시각 환경 관련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함.
 - (5) 미술과 또 다른 예술과의 통합은 다른 중영역과 위계가 맞지 않으며, 대안으로 '미술과 일상' 이나 '미술과 생활' 이 있음.
 - 미술과 또 다른 예술과의 통합 부분에서는 시, 소설 등의 문학과 연결된 미술도 포함 시켜야 함.
 - (5)의 (나)에 소영역 두 번째 항목은 감상과 비평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미술과 직업 부분에서 중영역은 표현 보다는 적용이 적합함. 예컨대 직업군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수정
 - 미술과 직업에서는 미술 직업 외에도 일반 직업 내에서 미술관련 내용 탐색도 필요함.
 - 미술과 생활의 대영역을 '미술과 나' , '미술과 사회' , '미술과 자연' 으로 구분이 적합함.
 - 이러한 방식은 초등 1, 2학년에 즐거운 생활과 동일한 방식임. 현재 학교 교육 방식은 초등 1, 2에서 통합 활동을 지도하다가 점차 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미술과 생활 과목에는 전통 미술과 미래라는 영역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과목 개선 방향 및 내용 체계 검토 교사 협의회

2) 미술 감상과 비평

- 수준이 대학 과목과 비슷하게 어려움.
- 외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비평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늦게 도입되고 있음.
- 설문조사나 그동안 현장에서 보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있음. 따라서, 본 과목은 감상의 주제적 접근이 아니라 감상의 방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감상과 비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미술 작품에만 한정되어 있음. 전체적인 시각 환경이나 미술 환경으로 관심을 돌려야함.
- 감상이나 비평의 대상을 미술 작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미술, 시각 환경으로 확대하여 수정하겠음.
- (3) 판단과 활용에서 비평문을 읽고 쓰는 문제는 지나치게 수준이 높으며,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음.
- 비평문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내용도 쉽게 수정하겠음.
- 최근에 논술이 범교과에 적용되면서 미술에서도 논술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3) 조형의 이해와 창작

- 대영역의 분류를 현재와 같은 조형의 방법보다는 조형의 분야 예컨대, 조형기초, 디자인, 영상 등으로 대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오히려 대영역에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특정 장르로 제한적이 될 수 있음. 현재의 분류는 범 장르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음.

3. 조형의 이해와 창작

- 이해 과목인가 창작 과목인가 성격 명료하지 못함.
 - 전통미술과 서구미술의 조형 방식을 통일된 목차하부에 진술 필요함.
 - 서예, 문인화, 회화, 조소 등이 내용 영역이 되는 것은 부적절함.
-

고등학교 「미술감상」 과목 내용 검토 협의회

일시 : 2006년 7월 19일 (수) 14: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소회의실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8명) : 서인숙(경북상모고), 안동선(교육부), 김형숙(서울대), 조은정(서울대), 이경란(서울시동부교육청), 이달훈(경기수원청명고), 전상보(목포제일여고), 신진환(울산효정고)

협의 내용

1. 선택과목 「미술감상」 성격 검토
 - 현 본질적 관점->본질적 관점+맥락적 관점도 포함시켜 성격 서술할 것을 제안
2. 선택과목 「미술감상」 내용체계 검토
 - 비평 용어나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기존 협의내용에 공감
 - 그러나, 「미술감상」 과목의 취지 및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평' 용어 및 내용을 중영역 또는 소영역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안내해야한다고 협의.
 - 논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영역으로 미술관련 글 읽기/쓰기로 제시함.
3. 대영역 분류 검토 및 협의
 - 현 대영역 분류 항목이 너무 딱딱하고 과학교과와 비슷하며, 현장 교사, 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문제제기
 - 그러나 「미술감상」 교과의 목표와 성격을 고려할 때 현 대영역이 다루는 내용이 적절함.
4. 중영역 분류 및 소영역 내용 검토 및 협의
 - 대영역 (2) 중 (다)항의 '미술가 연구' 는 너무 고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문제제기
 - 미술해독력을 길러줄수 있는 내용의 비중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제안됨.
⇒ 학생에게 미술감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균형있는 내용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가 연구' 도 현대미술 및 시각리터러시 교육내용과 함께 제시해야함.
 - 대영역(3)의 중영역이 언어활동에만 국한, 활용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제기
⇒ 미술관련 언어활동 + 다양한 비평 적용 및 참여 활동으로 확대하여 재구조화하기로 협의.
 - 소영역의 내용서술 중 '분석한다', '해석한다' 의 표현이 딱딱하다는 문제제기
⇒ '알아보다', '찾다', '조사하다', '분류하다' 등의 좀더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
5. 미술감상 선택과목 내용체계 재조정 결론
 - (1) 관찰과 반응 : (가)현장 체험 / (나)전체적인 감상
⇒ 적절한 용어 제안시 대체용어로 변경
 - (2) 분석과 해석 : 중영역 배열체계 재구조화
⇒ (가)조형적 특성 분석과 해석 (나) 미술가 연구 (다) 맥락적 분석
 - (3) 판단과 활용: 중영역 다룰 범위 보다 확장함. '비평' 용어를 포함하여 표기함
⇒ (가) 미술 비평문 읽기, 쓰기, 토론하기(미술 비평적 탐구)
(나) 판단, 활용 관련 활동(적절한 용어로 대체):전시기획, 전시도록제작, 전시자료제작 등

고등학교 「미술과 생활」 과목 내용 검토 협의회

일시 : 2006년 7월 18일 (화) 14: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소회의실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8명) : 서인숙(경북상모고), 안동선(교육부), 김정선(홍익대), 조중현(개웅중), 이옥주(충남교육청), 김대복(경북교육연구원), 김병일(전남사대부고), 유순식(충남서천여고)

협의 내용

1. 선택과목 「미술과 생활」 설정 목적 및 성격 검토
 - 미술교과와 관련성 : 미적 체험 영역의 심화
 - 성격 검토 : 기존 '실천' 중심 교과 수정-> 이해 및 활용(적용) 중심 교과
 2. 선택과목 「미술과 생활(가칭)」 과목 명 검토
 - 교과 설정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미술과 삶」 과목 명으로 변경토록 협의.
 3. 대영역 분류 검토 및 협의
 - 현 대영역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미술과 사회/미술과 환경 영역은 너무 광범위하여 다른 대영역과 중복된다는 문제제기
 - 대영역은 「미술과 생활」의 교과목 목표 하에 좀더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함
 - 「미술과 생활」 교과가 「미술감상과 비평」, 「조형의 이해와 창작」과의 전체적 연관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대영역의 내용 설정이 필요함
 - 현 맥락적 관점의 분류기준보다 본질적 관점, 구조적 관점의 분류기준이 적절함
-> 대영역 재설정 : (1) 미술의 역할, (2) 미술의 변화, (3) 미술과의 연계
 4. 중영역 분류 및 소영역 내용 검토 및 협의
 - 현 중영역 분류가 이해/표현으로 너무 이분법적 영역분할이라는 문제제기
 - 소영역 내용 서술 중 일반적 서술시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제기
 - 대영역 재분류에 따른 중영역, 소영역 재설정 요구됨.
 5. 「미술과 생활」 선택과목 내용체계 재조정 결론
 - (1) 미술의 역할 : 미술과 언어(개인적 소통) / 미술과 생활(사회적 소통)
=>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의 미술의 소통의 예, 영상, 미디어, 기호, 평면, 입체 등 영역별 의사소통 방식의 예, 시각디자인 및 순수미술작품의 소통 사례, 개인적 표현욕구를 충족하는 미술의 사례, 전통문화, 전통미술의 사례
 - (2) 미술의 변화: 미술에서의 시각의 변화 / 미술에서의 기술의 변화
=> 현대미술에서의 다양한 시각 및 관점, 문화적 다양성과 관점의 차이, 시각적 리터러시
=> 테크놀로지, 사진, 컴퓨터, 영화, 비디오, TV 등 주제, 재료, 매체의 변화
 - (3) 미술과의 연계: 미술과 직업/ 미술의 다양한 통합(가칭)
=> 미술관련 직업(다양성, 전문성 모두 포함), 이해활동과 탐색활동
=> 예술과의 통합, 타학문과의 통합, 지역사회와의 통합(산업과 미술의 관계 내용 포함)
-

고등학교 「조형의 이해와 창작」 과목 내용 검토 협의회

일시 : 2006년 7월 21일 (금) 15: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국동 분관 협의실(2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8명) : 서인숙(경북상모고), 안동선(교육부), 오병욱(동국대), 김백균(중앙대), 전성수(부천대), 홍순열(제주교육과학연구원), 박만용(경기부천여중), 유덕철(인천청학공고), 서순원(태백장성여고)

협의 내용

1. 선택과목 「조형의 이해와 창작」 내용체계 검토
 - 현 학습내용요소별 구성방식이 현장수업 적용시 너무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
 - 주제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연상시키는 통합수업을 위한 구성방식으로 재구성 의견
 - ⇒ 본 과목이 표현과 표현의 배경이 되는 이론 과목의 성격이며, 이에 따른 재구성에 합의
2. 대영역 분류 검토 및 협의
 - 대영역 각 항목의 순서를 수업진행방식의 재구조화에 따라 재배열하자는 의견
 - (1)조형의 요소와 원리: 필수 학습내용이나 이전 학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므로 고등2,3학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세 번째 항으로 배열, 표현활동 후 자기작품 및 동료작품 감상 및 평가시 활용 및 적용 내용으로 성격설정
 - ⇒ 명칭 변경: 분석과 적용
 - (2)주제와 상상,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체계적 지도와 창작의 이유, 문제의식이 주요한 학습내용으로 설정. 첫 번째 항으로 배열
 - ⇒ 명칭 변경: 주제와 발상
 - (3) 재료와 기법 및 제작: '제작' 은 과목 명에서 중복되므로 명칭에서 삭제.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료와 기법' 을 '매체' 용어로 변경
 - ⇒ 명칭 변경: 매체와 표현
3. 중영역 분류 및 소영역 내용 검토 및 협의
 - 미술 '창작' 과 '이해' 의 학습 내용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영역내용 다양화 할 것.
4. 선택과목 내용체계 재조정 결론
 - (1) 주제와 발상 : (가)표현주제 / (나)발상과 표현
 - ⇒ 다양한 발상 및 표현을 가능케 하는 소영역내용으로 확장
 - (2) 매체와 표현 : 중영역 배열체계 재구조화
 - ⇒ (가)평면 (나) 입체 (다) 매체의 확장
 - (3) 분석과 적용: 중영역 다룰 범위 보다 확장함. '비평' 용어를 포함하여 표기함
 - ⇒ (가) 작품 분석: 조형의 요소와 원리, 작품분석 내용의 이해. 자기작품 및 동료작품 평가
 - (나) 작품 재발견: 창작결과에 대한 피드백과정. 대체용어 검색 후 적용
5. 「조형의 이해와 창작」 과목 명 재검토
 - 이상의 내용체계 협의 결과 “ 미술의 이해와 창작” 으로 협의

미술과 선택과목 소영역 내용 검토 협의 간담회

일시 : 2006년 8월 4일 (금) 14:00~20: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5명) : 안동선(교육인적자원부), 서인숙(상모고등학교), 이성도(교원대), 윤양희(계명대), 조중현(개웅중)

협의 내용

1. 미술과 삶 과목

- 미술과 언어 : 시각 언어로서 개인적, 사회적 역할의 이해와 적용
- 미술과 생활 : 생활 속에서 미술의 활용과 가치의 이해와 적용
- 미와 미술 : 미에 대한 시대별, 지역별 시각의 변화 이해와 적용
- 미술과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의 영향과 미술의 변화 이해와 적용
- 미술과 통합 : 예술, 학문, 사회 교육과 미술의 통합의 의미 이해와 적용
- 미술과 직업 : 다양한 직업군에서 미술의 역할과 활용 이해와 적용

2. 미술 감상 과목

- 현장 체험 : 다양한 목적과 장소에서의 미술 감상 활동에 참여
- 전체적인 감상 : 미술 언어를 사용해서 미술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서술
- 조형 특성 이해 : 감상 대상의 형식적 특성에 기초한 작품 분석
- 미술가 연구 : 미술가를 중심으로 미술 작품과 미술 활동의 분석
- 맥락적 이해 : 감상 대상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분석
- 미술 비평 : 비평 방법을 활용한 미술 작품 비평
- 미술 활동 : 감상 내용과 판단 기준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 활동

3. 미술의 이해와 창작 : 미술 창작

- 표현 주제 : 미술 작품에 나타난 주제를 이해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표현
 - 발상과 표현 : 발상 방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 평면 표현 : 평면 표현의 특징과 방법 이해와 창의적 표현
 - 입체 표현 : 입체 표현의 특징과 방법 이해와 창의적 표현
 - 매체의 확장 :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작품 제작에 창의적으로 표현
 - 작품 분석 : 서로의 작품 비교 분석
 - 작품의 재발견 : 서로의 작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새로운 표현에 적용
-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검토 협의 간담회

일시 : 2006년 8월 24일 (목) 10:00~17: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별관 305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5명) : 안동선(교육인적자원부), 서인숙(상모고등학교), 이성도(교원대),
윤양희(계명대), 조중현(개웅중)

협의 내용

1. 과목별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검토

<성격 >

- 미술과 삶 :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심화, 확대시킨 과목으로, 문화에 대한 인문적 소양과 창조적인 문화적 실천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
- 미술 감상 :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을 비평적, 방법적 관점에서 심화, 확대시킨 과목으로, 미술 작품을 비롯한 시각 문화 현상을 해독하는 비평적 방법과 절차 등을 익혀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
- 미술의 이해와 창작 : 고등학교 1학년 미술을 창작과 방법적 관점에서 심화, 확대시킨 과목으로, 창작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익혀 창작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

<목표 >

- 총괄 목표와 영역별 목표로 진술

<내용>

- (2) 미술의 변화에서 (가) 미와 미술을 ‘미술의 의미’ 로 수정
- (3) 미술의 연계에서 (가) 미술과 통합을 ‘미술과 다른 분야’ 로 수정

<방법>

- ‘가. 교수·학습 계획’ 과 ‘(나) 교수·학습 방법’ 으로 하위 항목 구성
- ‘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유의점 제시하고 ‘나’ 부분에서 과목별 특성에 따른 유의점 제시

<평가>

- ‘가. 평가 계획’ . ‘나. 평가 방법’ , ‘다. 평가 결과의 활용’ 으로 하위 항목 구성
- ‘가. 평가 계획’ 에서는 일반적인 유의점 제시하고 ‘나’ 부분에서 과목별 특성에 따른 유의점 제시

<과목 명>

- 미술의 이해와 창작/ 미술 창작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
-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검토 협의회

일시 : 2006년 8월 30일 (수) 14:00~17: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본관 311호)

참석자 : 원내(3명) 양윤정, 박소영, 변순영

원외(14명) : 안동선(교육인적자원부), 홍기태(부평여고), 안금희(경인교대),
서예식(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노용(이화여대), 양민영(삼성고), 이수경
(동국대), 안혜리(국민대), 박은영(매송중), 이석원(용산고), 김정희(경인
교대), 조성근(극동대), 윤철현(태원고), 유종희(서울미고)

협의 내용

1. 제7차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현황 소개
 2. 고등학교 2, 3학년 미술 교과 선택과목의 구성 방향 및 개요 소개
 3. 고등학교 2, 3학년 미술 교과 선택과목 개발 일정 소개
 4. 의견
- 가. 과목 개설 중점 사항 및 성격 타당성 검토
- 세 과목은 기존의 '이해', '감상', '표현' 으로 구성되는 미술교과 내용의 분절로 생각됨. 따라서 『미술과 삶』 과목은 보다 인지적 성격의 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명도 『미술의 이해』가 더 적합함.
 - 미술과 삶 과목 개설목적에 부적합함. 인지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미술계가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타 분야와의 연계 및 통합에 폐쇄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세 과목은 공통과목의 심화, 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중복을 피하여야 하며, 일반계 학생의 교양, 일반계 및 미술계 진학희망 학생의 심화과목, 전공희망 학생의 선택과목 개설방향에 맞도록 성격을 보다 다듬어야 함.
 - 학교 현장의 현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세 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개발되어도 학교 선택가능성이 희박함.
 -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나, 긍정적 가능성을 더 평가하고 미술교과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함.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미술관련 지문이 언어 및 외국어 문항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논술시험문제로도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세과목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에 주력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함.
 - 세 과목의 충분한 시수가 확보되어야 함.
 - 각 4단위, 4단위, 6단위로 공통과목에 비해 시수 운용 환경이 긍정적임. 집중과정 이 개설되면 미술 과목이 4-5과목까지 개설 가능함.
-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검토 협의회

- 세 과목이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된 미술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미술교육과정 용어 선택시 현장 교사의 시각과 학생 관심도를 적극 반영하여, 미디어, 영화 등 학생 흥미도를 반영하는 용어의 부각이 요구됨.
- 미술교과서 개발시 충족가능함. 국가 교육과정은 국내 미술교육학의 학문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나. 과목 명 검토

- 『미술과 삶』 : ‘미술 이해와 삶’ , ‘미술 이해’ 과목 명 제안됨.
- 『미술 이해와 창작』 : 세 과목의 차별화된 성격을 고려할 때 『미술 창작』이 더 바람직함.

다. 과목별 내용 체계

- 1) 미술과 삶
 - 대영역이 미술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어 미술체험을 다루기에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며, 공통과목인 ‘미술과 생활’ 과 내용이 중복됨. 공통과목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합 성격을 보다 강조하여 학교 현장의 선택활용도를 높여야 함.
 - 고등학생의 학습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교사 재교육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내용을 다루어 미술 시지각과 인지심리학적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 대영역의 구분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교과서 개발시 내용구성의 문제가 예상됨. 과목의 성격을 보다 살려 대영역을 실생활 근접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 대안으로 ‘미술과 나’ , ‘미술과 사회’ , ‘미술과 테크놀로지’ 제안함.
 - (1) 미술의 역할은 공통과목 미술과 생활과 중복되는 내용임.
 - (1)의 (가)미술과 언어에 ‘미술과 의사소통/소통’ , ‘미술과 시각언어’ , ‘미술과 조형언어’ 제안
 - ‘미술과 언어’ 가 개인과 사회적 소통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더 적합함.
 - (1)이 (가)의 소영역에서 ‘시각 언어’ 대신 ‘조형 언어’ 제안. ‘시각 언어’ 는 디자인 장르의 용어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조형 언어’ 는 형식 언어로 의미가 좁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합함.
 - (1)의 (나)의 소영역 ① ‘미술의 가치 이해’ 로 활용 삭제. ②디자인과의 연계는 너무 한정적이며, 장르명인 ‘디자인’ 과 의미가 혼돈될 수 있어 애매함. ‘미술과 나’ 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학생 중심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흥미도를 높여야 함.
-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검토 협의회

- (2) 미술의 변화는 공통과목 고1 내용과 중복됨. : '미의식의 변화' 혹은 '미술의 동향(trend)'로 수정.
- (3) 대영역명 제고 요망 : '미술의 확장/확산' , '미술의 통합' , '미술의 연계' 에서 가장 적합한 용어 사용
- (3)의 (나) 미술과 직업은 '미술의 연계' 하위 항목으로 그 타당성이 의문시됨. 대영역 (1)의 중영역이나 (나)의 소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함.
- 미술과 직업은 진학을 준비하는 고2, 3학생에게 비중 높은 사안이므로 중영역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며, 미술 직업 외에도 일반 직업 내에서 미술관련 내용 탐색도 다루어야 함.
- 미술과 삶 과목의 중영역에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주제를 다루어야 함.
- (3)의 (가)에서 '다른 분야' 는 '관련 분야' 가 더 타당함.
- 미술 관련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통합, 연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 용어 사용이 요구됨.
- (3)의 (가) 미술의 의미는 내용이 분명하도록 보다 명확한 서술을 할 것이 요구됨.
- (3) 대영역 '미술 관련 영역' , 중영역명으로 '미술의 연계 혹은 통합' , 소영역은 보다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서술할 것.

2) 미술 감상

- (1)의 (나) 전체적인 감상은 직관적 감상의 내용을 내포하는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것.
 - (1) 대영역명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2)의 중영역인 '조형적 특성 이해' , '미술가 연구' , '맥락적 이해' 를 '미술 감상' 과목의 대영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 (1)의 (나) ①미술 언어와 '미술과 삶' 과목의 '시각 언어' 와의 차이와 구분이 모호함.
 - '미술 언어' 를 '미술 용어' 로 대체하기로 결정.
 - (1)의 (가) 현장 체험을 '미술·문화 체험' 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 (2)의 (나)에서 ① 미술가의 정보 수집과 ②미술가의 개인적 경험, 성장 배경, 표현 특성의 관계 이해와 의미간 차이가 있는지 재점검 필요함.
 - (2)의 (다)에서 ①사회상 분석과 ②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해석과의 의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재점검 필요함.
-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검토 협의회

- 미술 감상에 관한 관점 소개 및 안내가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함.
- (3)의 (가)에 미학 관련 비평 내용을 포함할 것.
→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3)의 (나) ‘활동’ 이 너무 포괄적인 용어임. : ‘미술 감상의 활용’ 으로 수정 제안함.
- (3)의 (가)의 ② ‘비평문’ 대신 ‘감상문’ 으로 수정 제안함.
- (3)의 (나)의 ② ‘도록’ 삭제. ‘포트폴리오 등 제작’ -> ‘작품 및 포트폴리오 작성 및 토론’ 으로 수정.
- 전체적으로 소영역 서술 문장 재점검 및 수정이 요구됨.

3) 미술 창작

- (3) 대영역명을 ‘발표와 창작’ 으로 수정 제안. 중영역은 (가) 작품 분석, (나) 작품 평가로 구성 제안.
 - (1)의 (나) ‘발상’ 용어는 너무 입시 용어로 고착되어 있으므로 사용 지양해야 함. (나) ‘생각과 표현’ 으로 수정 제안함.
→ 홍보 효과로 긍정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함. 미술 창작시 발상과정이 중시되므로 ‘생각’ 보다 ‘발상’ 이 더욱 적합한 표현임.
 - (3)의 (나)에서 작품 창작과 발표 및 토론의 피드백 과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문장 및 용어 사용으로 재점검 요구됨
-

부록 3. 제7차 미술과 생활 교과서 분석표

고등학교 <A 출판사> 내용 분석

교과서	교육과정(미술의 이해)				기타
단원명	미술의 기능과 역할	미술의 구조와 용어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1. 미술의 의미	•미술의 기능과 역할	•미술의 개념	•	•미술의 기원	
2. 미술의 구조	•	•미술의 영역과 양식 •주제와 소재 •재현적, 심상적, 추상적 표현 유형 •조형의 요소와 원리	•	•	감상 영역과 연계
3. 미술의 세계	•	•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의 관계 이해 •미술 관련 직업과 그 직업에 필요한 조건 이해	•미술 문화의 교류 이해	

교과서	교육과정(미술 감상)			기타
단원명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중심 감상	시대별, 지역별 감상	생활 활용 미술품 감상	
4. 미술 감상의 의미	•미술 감상의 의의와 미적 체험 이해	•	•	
5. 미술 감상과 비평	•감상과 비평의 구분 •감상과 언어의 관계 이해	•	•	일상 언어와 예술의 언어
6. 미술 감상의 관점과 내용 및 방법	•일반적 감상 관점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디자인, 건축 등 영역별 관점 •주제, 양식, 종류, 제작 기법 중심 관점 •직관적 감상 방법 •비평적 감상 4단계 방법 •지적 감상, 미적 감상, 형식적 감상, 내용 감상 등의 통합적 감상 •회화, 조소, 서예, 공예, 디자인, 건축 등 영역별 감상 내용 및 방법	•지역, 연대 비교 중심 관점 •동양적 전통 회화 감상 기준 - 기운 중심 감상 관점(사혁의 화육법) •조형품 감상 •자연 및 환경 감상	•	작품의 평가 단계 및 기준표

교과서	교육과정(미술 감상)			기타
단원명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중심 감상	시대별, 지역별 감상	생활 활용 미술품 감상	
7. 미술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성 전체 공간, 형태, 색 등을 고려한 감상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 감상방법 사례 굿 디자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현대 이전 미술사 근대 미술과 낭만주의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현대미술(추상미술, 초현실주의) 근·현대 조각 추상 회화(칸딘스키, 몬드리안) 20세기 건축 우리나라 근·현대미술 현장 답사를 통한 감상 미술문화유산, 감상록 작성법(수원화성 감상록, 불국사 문화유산체험활동) 지역성, 역사성, 사회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과 미술 환경 조형물 감상 건축 감상 생활속 디자인 감상 제품 디자인 감상 	박물관, 미술관 감상 미술사 연표 인터넷 활용 감상 활동 (주요 미술관, 박물관 사이트) 미술문화유산 감상록

교과서	교육과정(미술 창작)			기타
단원명	미술품 제작과 생활환경	생활 미술품 제작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	
8. 시각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구상 매체에 의한 아이디어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화적 시각 사진적 시각 동영상적 시각 새로운 시각의 중요성 대상 묘사와 관찰 경험과 표현의 관계 	용어 해설
9. 여러 가지 표현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주변 기성품, 폐품 활용 작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 오브제, 앳상 블라주, 컴퓨터그래픽, 설치 미술 등의 여러 표현기법의 활용 	감상 영역과 연계
10. 생활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고장의 모습 가족, 이웃의 모습 삶의 현장의 모습 환경 디자인 다색 목판화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과 색채(의복과 색채, 실내 색채 계획) 시각전달 디자인 생활 용품 디자인 칼라 이미지, 패턴, 색채 조절(컴퓨터 그래픽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과 영상 매체의 의한 표현 생활 속 오브제에 의한 표현 	민속 공예품 제작과정 이해영역과 연계

고등학교 <8 출판사> 내용 분석

교과서	교육과정(미술의 이해)				기타
단원명	미술의 기능과 역할	미술의 구조와 용어	미술과 자연, 과학, 종교, 사회, 직업 등의 관계	미술 문화의 발전과 교류	
1. 미술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공간의 장식, 편이, 정서순화 기능 •미적 체험 기능 •미적 만족 기능 •역사적 사실 기록 기능 •교육적 기능 •상업적 기능 •생활 공간의 문화 창조 기능 •인간 의사소통의 이미지 체계 •인간을 표현한 미술 •인간이 참여하는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 가치와 미적 가치 •예술, 미, 미술의 개념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조형 형식과 표현양식 •자연미와 조형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공간과 미술의 관계 •자연합일의 동양 미술 •서양의 자연관과 미술 •사회적 상황을 표현한 미술 •사회의식을 일깨우는 미술 •현대 사회와 미술 •종교미술의 기원 •불교, 기독교 미술 •현대미술과 종교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과 과학 •과학과 현대 미술 •미술과 테크놀로지 •화가, 조각가, 건축 미술과, 공예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애니케이터 등의 직업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전통 미술 문화의 계승과 창조 •자연과의 동화 •우리나라 현대 미의식 •우리나라 회화, 조각, 금속공예, 도자공예, 건축 문화유산 •광주 비엔날레, 국제 비엔날레, 디자인 교류 	감상 영역과 연계

교과서	교육과정(미술 감상)			기타
단원명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중심 감상	시대별, 지역별 감상	생활 활용 미술품 감상	
2. 미술 세계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감상 방법과 태도 • 미술 양식과 경향 • 미술 예술적 가치와 미술비평 	•	•	아해 중심 단계적 미술비평 방법
3. 동서양의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 • 동양미술 • 서양미술 	•	미술사 관점
4. 산업발전과 디자인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공작 연맹 • 네덜란드의 데 슈틸 운동 • 아르 데코 • 미국의 공업 디자인 • 20세기 후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산업사회의 디자인 • 바우하우스 • 현대디자인 	근대 디자인사
5. 미술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에서의 작품감상 	•	

교과서	교육과정(미술 창작)			기타
단원명	미술품 제작과 생활환경	생활 미술품 제작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활용	
6. 생활에 묻어있는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작품과 환경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용품 제작 • 장식용 탁자 	•	
7. 자연과 인간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속의 인간 표현 • 인물화 및 인물 소조 • 실외/실내 풍경화 • 꽃의 표현과 상징 • 동세 표현(평면/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꽃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 • 테라코타, 유채, 비단에 담채, 파스텔, 리도그라프, 연필 	감상 영역과 연계

<p>8. 자유로운 표현의 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과 상상의 표현 •추상화 과정과 추상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화(문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채, 아크릴, 비단에 담채, 브론즈, 판화, 실 크스크림 •새로운 재료와 기법 (앗상블라주, 압축, 석고뜨기, 오브제, 혼합 재료) •변형, 합성, 인용 표현 	<p>감상 영역과 연계</p>
<p>9. 현대미술의 다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미술의 역할과 기능 •미술 역할 범위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미술의 새로운 재료와 표현 양식 •조형예술 표현의 확장 •비디오 아트, 디지털 아트, 영상, 사진, 인터넷, 무대미술 	<p>감상 중심</p>
<p>10. 자연속의 디자인 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물 속의 디자인 조형성과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이해 중심</p>
<p>11. 디자인의 기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의 기본 원리 •착시 현상 •색의 성질과 색채구성 	<p>이해 영역과 연계</p>
<p>12. 생활속의 시각전달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벌마크와 문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광고, 포장, 영상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이해 영역과 연계</p>
<p>13. 쓸모와 아름다움을 갖춘 생활용품 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중심, 인간 친화적 산업 디자인 •생활 공예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과정과 창작 단계 •전통공예기법 -도자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목공예, 피혁공예, 죽세공예, 칠공예, 초고공예, 화각공예 기법 	<p>연구 보고서 작성 과제</p>
<p>14. 쾌적함과 아름다움의 조화 환경디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디자인 •실내환경 디자인 •주변환경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이해 중심</p>
<p>15. 미래의 디자인 엿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환경친화적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이해 중심</p>
<p>16. 생활속의 서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예의 조형미와 생활속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쓰기와 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 출판사 > 내용 분석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1. 자연과 함께 하는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조형의 관계 • 자연의 조형요소와 색 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색-고려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이미지를 응용한 생활용품 제작 •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 미술과 생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의 미술 양식 • 환경보호와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조형물의 미적특징 • 환경벽화 • 알타미라 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환경 개선 포트폴 리오 제작 • 환경보호 광고디자인 	토론 학습
3. 사회 속에서의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기능(개인적, 사회 적, 물리적 기능) • 미술과 사회의 관계 • 정치의 이념적 표현 • 대중사회의 미술 • 사회 통합과 공익을 위한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행사 CIP 감상 • 시그니처 - 심벌마크, 로고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기능별 참고작품 포트폴리오 제작 • 반전, 반핵운동 포스터 • 통일 문화 행사 계획 및 작품 제작 • 학교 CIP 제작 	조별 활동
4. 생활과 공간 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의 목적과 기능 • 건축의 구조이해 - 우리 건축, 서양 건축 • 현대건축의 특징 • 빛과 건축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하우스 • 천정화와 벽화 • 건축물 포함 조형물 • 우리 전통가옥 실내공간 • 시대별, 지역별 미술감 상 리포트 작성 • 다양한 탐 조형물 감상 • 홀로그램, 레이저 아트, 네온 아트, 비디오 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고대 건축 양식 예 시작품 포트폴리오 제작 • 현대 건축물 예시사진 포트폴리오 제작 • 생활 공간 디자인 • 생활 소품 제작 • 향아리를 재료로 한 쏫 대 제작 	포트폴리오 제작법
5. 미술로 본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개념과 의의, 속성 • 미술 관련 직업 조사보고서 • 미술관련 직업 특징 • 공예가 특징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재료의 공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 공예, 목초 공예 제작 	적성과 직업 선택 및 검토 질문지
6. 생활과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의 의미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지역별 옷의 변천 - 우리 옷, 서양 의복 • 예술로서의 옷 • 유니폼과 일상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스크린 장식 의상 • 천을 이용한 패러디 •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의 의상 작품 제작 • 염색 - 전통염색, 쪽물 들이기, 훌치기 기법 과정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7. 미술과 전통놀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놀이문화의 이해와 탐구 전통 탈의 조형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미술, 설치미술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놀이 주제의 인형극 활동 나무탈 제작 	
8. 미술과 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과 미술의 관계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미술과 전통 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 종교 미술과 현대의 종교 소재 미술 비교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문양 및 생활용품 문양 포트폴리오 제작 전통문양 이용한 포장디자인, 설치미술 제작 	설치작품 계획서 및 제작 일지
9. 미술과 음악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과 음악의 관계 음악과 소리의 시각적 표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을 표현한 조형작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회 포스터 제작 	
10. 미술과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의 문학적 요소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가 있는 미술작품 감상 문자디자인(상형문자, 타이포그래피 등) 전통 서예와 현대 타이포그래피 비교 감상 풍자화, 만화,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를 이용한 생활미술품 제작 풍자를 담은 만화, 일러스트, 캐리커처, 애니메이션 등 표현 	클레이에니케이션 제작과정 작품감상 질문카드 민화
11. 미래를 여는 새로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과 미술의 관계 이해 과학 발전에 따른 디자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작품 감상 방법 컴퓨터 활용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HP를 활용한 투시자료 제작 컴퓨터 활용 프리젠테이션 협동제작 컴퓨터 활용 학급 영상앨범 제작 	작품감상 질문카드 영상작품 개인 활동표

고등학교 <4 출판사> 내용 분석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1. 미술과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미와 조형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형물에 나타는 자연미 감상 •생활용품 속의 자연미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한 자연미 표현 	생활 속 미술 활용의 예
2. 미술과 인간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의 시각 언어 기능 •조형요소와 조형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을 표현한 미술 - 표현주의 미술 •상상을 표현한 미술 -자연 친화적 상상력 표현, 동물 의인화 표현 •추상미술의 기원과 개념 및 특징 -서정적 추상, 기하학적 추상, 다양한 추상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 기법의 표현 •다양한 재료와 기법 이 용하여 추상작품 표현 	칸딘스키 일화
3. 미술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의 사회적 역할 - 역사적 사건 기념 - 새로운 이념 표현 •종교 미술의 제작 목적 이해 •미술의 기록적 기능 •미술과 직업의 관계 •미술과 놀이 문화 - 풍속에 활용되는 미술의 기능 - 동서양의 놀이문화와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이념을 다룬 미술 작품 감상 •종교 회화, 종교 조각, 종교 건축 감상 •미술 작품에 나타난 여러 도시 모습과 당시 생활상 감상 •미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직업인의 모습과 당시 사회상 감상 •미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일상의 모습과 당시 생활상 감상 •어린이 놀이문화를 담은 미술작품 감상 •미술 작품에 담긴 놀이 문화와 당시 생활상, 미의식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포스터 제작 •전설, 수호신 주제의 이야기 그림 표현 •도시 풍경 표현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놀이 경험 	탈춤의 풍자 및 해학적 미의식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4. 미술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자기의 생활 활용성 이해 •도자기에 나타난 문화 교류 •사회적 변화와 의복의 기능 •가구 디자인과 일상 생활의 관계 •문화와 건축 디자인의 관계 •건축의 용도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공간으로서의 건축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건축 -지배 권력을 위한 건축 •새로운 건축 재료와 현대 건축의 특징 •환경디자인의 개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이해 •거리 환경 디자인의 요소 •환경 조형물의 역할과 특징 •벽화의 특징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별, 지역별 문화적 독창성이 담긴 도자기 감상 •다양한 현대 그릇 디자인 감상 •자연 환경, 미의식과 관련된 의상디자인의 시대별 특징 감상 •실용성, 개성을 강조한 현대의 의상 디자인 •가구 디자인에 나타난 사회상 및 미의식 감상 •현대 가구 디자인의 특징 감상 •특수 목적 가구 디자인 •시대별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당시 사회상, 문화상, 미적 감각 감상 •현대 건축물 감상 •거리 구조물 디자인 감상 •환경 조형물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환경조형물, 조각 공원, 기념 조형물 •전통적 벽화와 현대의 대중적 벽화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자기 제작 및 문양 장식 •장소, 상황에 적합한 의상 디자인 •생활에 필요한 가구 디자인 및 제작 •건축 모형 제작 •문화 공간 모형 제작 •재활용품 활용 상징 제작 •학교 벽화 계획 및 공동 제작 	<p>도자기 감상을 통한 문화교류의 이해</p> <p>의상, 가구 디자인 감상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미술의 역할 이해</p>
5. 미술과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과 수학의 관계 •미술과 과학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발명(떡, 유화, 플라스틱류, 아크릴, 자석 등) -표현기법 개발(주조기술, 해부학, 사진기, 광학, 현미경/망원경, 압축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작품에 나타난 수학적 원리 및 특징 감상 •새로운 재료, 표현 기법을 활용한 미술작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하학적 형태 패턴의 포장디자인 제작 •현대 산업 재료를 활용한 창작품 제작 •새로운 표현기법 사용한 창작품 제작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6. 우리나라의 미술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의 시대별, 양식별 미술작품 감상 -선사시대~근현대 미술 -회화, 조소, 건축, 공예 •도자기 감상 방법 •인터넷 활용한 감상문 작성 방법	•	미술 단계적 감상 방법 사례
7. 동양의 미술	•동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문화적 배경	•동양의 시대별, 양식별 미술작품 감상 -중국, 인도, 일본의 미술	•	
8. 서양의 미술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특징과 문화적 배경	•서양의 시대별, 양식별 미술작품 감상 -선사시대~20세기 미술	•	한국/서양 자화상 비교 감상법

고등학교 < 출판사 > 내용 분석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1. 미술은 보는 문화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시각 언어의 관계 이해 •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 - 주술사, 기록자, 계몽가, 일상 장식가로서의 미술가 • 이미지에 담긴 미술과 사회의 관계 • 생활용품과 미술의 관계 • 미술과 자연의 관계 -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 • 미술문화의 변천과 교류 • 문화적 자산과 미술문화 • 박물관의 기능과 미술품의 직, 간접 체험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가의 다양한 역할을 반영한 미술작품 감상 • 당시 시대상과 가치관, 사회상을 반영한 미술작품 감상 •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 감상(단청, 도자기 등) • 미술작품 응용한 패션 디자인 감상 • 자연물과 조형물의 미적 특징 감상 - 동서양 조경문화, 환경 관련 미술 • 간다라 미술과 헬레니즘 미술 •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감상과 인터넷에서의 감상, 거리에서의 미술품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작품 응용한 의상 디자인 제작 	감상 영역과 연계 도상학 이해 미술관 관람 주의사항
2. 미술은 이미지 기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언어의 특성 • 글과 그림의 관계 • 사진과 미술문화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언어, 시각 언어의 특성 살린 미술작품 감상 • 사진 발명의 영향을 받은 미술작품 감상 • 미술 문화가 창조하는 새로운 표현 영역의 작품 사례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해설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3. 거울을 본다	•시대별 인물 표현의 특징과 기법	•시대별 인물 표현 작품 사례 감상 •시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자화상 감상	•독창적 시각으로 자화상 표현 •인물 표현 - 소묘(연필, 목탄, 콘테 등) - 입체(종이, 석고, 테라코타, 혼합재료 등)	인물화 인체조소
4. 자신을 알린다	•정보 전달 목적의 시각적 표현방법 이해	•시각 디자인 감상 (캐릭터 디자인, 편집 디자인, C.I.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자신의 명함 제작 •그림 문자 제작 •자기 소개서 컴퓨터 편집 디자인 •학교 이미지 C.I. 디자인	통합 교과형 과제 제시
5. 책상을 본다	•동서양 정물화의 전통 이해	•정물화와 기명절지도 감상 •세잔과 고흐의 정물화 비교 감상	•다양한 시점의 정물화 제작	현대 정물화의 관점 변화
6. 생활을 꾸민다	•공예품의 대량생산과 공예 디자이너의 등장	•일상 생활 활용 미술품의 조형성과 기능 - 목공예, 금속공예, 도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금속판으로 꽃 만들기 •도자기 제작 방법 •유리병 제작 과정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기법	공예제작 과제 제시
7. 주위를 본다	•풍경화의 특징	•동양과 서양의 풍경화 감상 - 네덜란드 풍경화, 바르비종파 풍경화, 인상주의, 산수화, 진경산수화	•풍경화 제작 - 수묵 담채 표현 - 수채 표현	문방사우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기타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미술 창작	
8. 환경을 가꾼다	•환경디자인의 특징과 요소	•실내디자인, 무대디자인, 전시디자인, 슈퍼그래픽, 환경조형물 감상	•자신의 주변 공간 디자인 •시나리오 바탕의 무대 디자인 •학교 벽화 공동 제작	통합 교과 과제 제시
9. 개념을 본다	•추상 미술의 이해	•추상 미술의 논리와 가치, 기능 중심 감상 •한국 추상화에 나타난 조형성 감상	•추상 미술 판화 제작 - 목판화, 지판화, 스텐실, 모노타이프	판화 에디션
10. 도구를 만든다	•산업디자인의 종류와 특징	•근대 디자인사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감상	•학용품 디자인 렌더링 제작	전화기 디자인 변천사
11. 꿈을 본다	•초현실주의 관련 미술 용어 이해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미술작품 감상 •초현실주의 미술 감상 •초현실주의 미술의 의의	•환상적 이미지 표현 방법과 기법 -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스크래치, 포토 몽타주) •초현실적 작품 제작 - 데페이즈망 기법 활용 •자아나 무의식의 세계 표현	
12. 영상을 그린다	•첨단과학과 미술과의 만남	•컴퓨터 그래픽 감상 •애니메이션의 종류	•기계 매체를 통한 이미지의 속성과 기법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카툰 수록

연구보고 RRC 2006-10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인 정 강 정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
전화: (02) 3704-3704
팩스: (02) 3704-3710
홈페이지 www.kice.re.kr
인쇄처 승림문화사
전화: (02) 2277-0661(代)
팩스: (02) 2278-0113
ISBN 89-5931-437-4 9337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